

2025 제28권
HA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ISSN : 2982-4982

학생생활연구



한 세 대 학 교 상 담 센 터

HA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학생생활연구

제 28 권

발 행 인

최광현

편 집 인

이 훈 민, 성 지 현

발 행 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 행 일

2025년 11월 30일

우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ISSN : 2982 - 4982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상담분야의 연구논문과 신입생 실태자료를 게재합니다. 학생생활연구는 무료로 다운로드되며, 구독관계는 상담센터 T(031-450-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지는 21권부터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학생생활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25 제28권

ISSN : 2982_4982

HA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학생생활연구

제 28 권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HA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인 사 말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업과 대인관계,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많은 대학생은 우울과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심한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고 제 자리를 맴돌고 있어 대학생들의 정신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한세대학교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한세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학생생활연구지는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술 논문과 한세인의 신입생 실태조사와 상담소의 이용실태를 정리하여 엮었습니다. 본 학술 연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과 조사 연구를 수록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세인들의 학생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5. 11. 26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장 최 광 현

목 차

인 사 말	상담센터장
-------------	-------

제1장. 연구논문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 :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 세 영 · 김 희 수
---	---------------

애착 외상을 가진 그룹홈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에 대한 내러티브	김 영 복
---	-------

제2장.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25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	이훈민
--------------------------	-----

<부 록>

2025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2025학년도 상담센터 활동 보고
학생생활연구 논문 투고 규정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 :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저자 : 김 세 영*

지도교수 : 김 희 수+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 267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조직문화 척도, 직무만족 척도, 일과 삶의 균형 척도, 긍정심리자본 척도로 진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검증 및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에 따른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는 직무만족,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은 각각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형인 불완전 순차매개 모형과 경쟁 모형인 불완전 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불완전 순차매개 모형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이 순차적 매개효과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고,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여성 상담사,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 교신저자 : 김세영,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E-mail : rlatpdud258376@gmail.com

* 본 연구는 김세영(2024)의 한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E-mail : kimhs@hansei.ac.kr

I. 서 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되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살, 조현병,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반복적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마음 치유사업 및 정신건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상담 전문 인력의 취업자가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1만 명 정도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관계적 측면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져 상담 서비스 제공에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심리상담의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우수하고 전문적인 상담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류인찬,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20).

상담사 대부분은 대학원 석사 이상의 높은 학위를 취득하고 수련 및 상담 훈련에 임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상담사의 직무환경 및 상담 현장은 낮은 보수, 과도한 행정업무,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근무 형태 등 직업인으로서 소진을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른 조직문화에 비해 응집력이 적어 이직 및 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상담사라는 직업적 삶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이자 타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조력하는 전문 서비스 환경의 질이 합당한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상담사의 전문적 역할 수행과 직무환경 만족을 이끌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상담사의 직무환경, 즉 조직문화가 어떻게 갖춰줘야 하는지 학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박성숙, 2013; 백미현, 유현실, 2012; 이샘, 최한나, 2012; 최혜림 외, 2022).

한국에서 나타난 상담사의 성별 비율은 남성 15.1%, 여성 84.9%로 여성 상담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 및 프리랜서의 고용 형태를 띄고 있다. 연령대는 평균 40대에서 50대가 30대 이하 또는 60대 이상의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로서 결혼, 출산과 자녀의 양육이라는 큰 과업으로 인해 일과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서미경, 2010; 이형국, 2017, 2018).

즉 자녀가 있는 상담사는 상담 관계로 형성된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돌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고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등 엄마의 역할이 더해져 다중 돌봄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통념상 남성보다 여성에게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성역할이 수용되어 있기에 상담사로서의 균형과 함께 맞추어가는 삶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문화정, 2019). 이에 따라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반드시 조직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 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질 수 있고 긍정적 정서와 개인의 성취감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의 영향이 높은 조직문화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김일옥 외, 2021; 박정열, 손영미, 2016; Allen, 2001; 심지양, 2010).

또한 유지훈(2011)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갈등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핵심적 요인이며, 직무와 조직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내적 자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상담사가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재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갖추면 내재적인 직무만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상담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을 느낄 때 상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상담 결과 도출, 조직구성원과 원활한 관계 형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 공정성에 민감해지고 직무 몰입도가 상승하여 내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며 특히 상담사의 조직문화, 보상, 승진 기회, 연차 사용의 복지 등 환경에 따라 직무만족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였다(권문찬, 2016; 김민철, 2019; 박미진, 2016; 임지영, 김지현, 2015; 이호숙, 2015; 정균욱, 2023; 정소연, 2015; Capella & Andrew, 2004; Nimmagadda & Buddha,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성 상담사의 직무만족을 증진하고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 상담사에 대한 처우와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일하는 엄마’이자 기혼 여성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오늘날 워킹맘(working mom)의 총칭적 의미로 사용된다. 시대 변화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용 환경 및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되었다.(구유정, 2017; 노성숙 외, 2012; 문은미, 2014).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되면서 특히 자녀 양육에 관련한 쟁점이 등장했고 동시에 이중의 역할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대 사회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성의 태도와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을 갖추는 부모의 태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녀와의 돈독한 관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부여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경제 기혼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문은미, 2014; 이기선, 2016; 홍지아, 2014).

상담은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병리적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며, 자기 성장과 생활 문제의 해결을 돕는 과정을 말하며 상담사는 개인, 가족, 조직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및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진단하여 다양한 상담 기법을 통해 예방, 지도, 치료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기홍, 2014; 한국표준직업분류, 2018; Catwright & D'Arce, 2005).

따라서 여성 상담사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노동과 병행하며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경력 유지에 다양한 경우의 상황이 잦아 심리적인 갈등과 위기감을 느낄 수 있으며,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인원에 비해 상담 관련 업무의 양적 과부하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조직 내에서 동료나 상사 관계가 좋지 못할 경우 상담 업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 소음이 차단되지 못하여 비밀보장 노출의 환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상담사는 상담의 전반적인 준비과정과 내담자 관리, 조직 내 환경까지 챙겨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한다(안가영, 2002; 정미연, 2019; 허재경, 신영주, 2015).

2. 조직문화

조직은 목적 또는 이익 달성을 위해 여러 요인이 모여 체계가 잡힌 집단이며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하는 의미가 다양하다(배은진, 2020; 유한선, 2021). 조직문화의 이해는 조직 내부에서 자라난 가치관과 믿음을 조직에 소속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계통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공유가치를 나타내는 한 지표이자 가치가 합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에 속한 사람에게 집단의 독립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정체감과 동질적인 성질을 공유하고 조직 내 적응을 증진하며 조직 내 시스템을 배우고 익혀 조직의 일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신유근, 1990; 양승용 등, 2008; 이동기, 2012).

시대적으로 양성평등 문화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만 한국 여성은 여전히 근로 환경에서 업무 수행과 가사 및 자녀 양육이라는 동시적 역할 요구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일보다 업무 또는 회사조직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 회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조직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여성 상담사는 상담 업무와 가정 노동의 양립이 어려울 수 있고 불리한 입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유미애 손연정, 2009).

상담사의 조직문화는 여성 상담사의 비율이 높아 육아 배려, 출산, 가족 행사에 대한 높은 이해심이 필요하고, 조직의 배려를 받는 여성 상담사들은 다른 조직구성원과 원만한 업무 관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성의 조직문화는 조직에 대한 적응과 업무의 만족도, 조직의 업무환경 등이 조직에 대한 성과나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경우, 조직문화는 여성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김기동 외, 2017; 정제연, 2022).

3. 일과 삶의 균형

Sharf(2014)는 '일'이란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 지향적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두 공간이 겹치거나 개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역할이 다른 한 공간에 비해 과도해져 균형을 잃게 되면, 개인은 통제감을 상실하고 불만족스러운 심리적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 및 생활의 균형은 오늘날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비중이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큰 이슈의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Hughes & Bozionelos, 2007).

국내 연구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우양호 (2024)의 연구에서는 “근무조건 및 업무환경 (job condition)”의 계약 조건, 보수 수준,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만족할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올라간다고 보았으며, 김선희(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조직구성원이 큰 곳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책적인 결정의 관심이 조직의 규모가 작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4. 긍정심리자본

Luthans 외(2004)는 심리적 자본(Psychological Capital)을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로 지칭하였으며, ‘개인이 발휘하는 4가지의 긍정적 심리자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Luthans 외(2004)의 명명 이후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 종종 ‘Psychological Capital(심리적 자본)’과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긍정심리자본)’두 용어의 의미가 흡사하여 혼용되거나 섞여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류현주, 2012; 최용득, 2009).

긍정심리자본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삶의 경험이나 학습, 훈련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후천적인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을 이루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4개의 하위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의 효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조직의 소속감을 공유하며 조직의 업무에 능률을 일으켜 이바지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주엽, 김명수, 2011; 이동섭, 최용득, 2010; Avey et al., 2006; Larson &

Luthans, 2006; Luthans 2004; Luthans et al., 2007).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재민(2013)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소인 낙관성이 일과 삶의 균형 중 일-가정 요인과 일-성장 요인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일-여가 요인의 관계에서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보여졌다. 이는 직장여성의 주관적인 성공에 대한 높은 수준을 인지하는 측면의 결과를 보여주며 조직문화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여성의 여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 제도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5. 직무만족

직무란 일반적으로 부여된 직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업 또는 직위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말하며, 만족이란 개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며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는 즐거움이나 욕구를 말한다. 직무만족이란 직무의 한정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주된 의미로 근로자의 생산 및 만족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배경혜, 2010; 윤숙경, 2016).

상담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의 공정성, 고용 형태, 적절한 업무량, 합리적인 보수, 사회적지지 등으로 나타났고 내담자의 치료 후 변화 부족, 상담사와 기대와 내담자의 성장 사이의 불균형, 상담 업무에 대한 역할의 모호성, 감정 노동 등은 직무만족보다 직무의 스트레스 또는 소진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담사의 전문성의 위한 지속적인 교육, 상담사

들의 자조모임,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안재순, 2021; 이영우, 2014)

정희수, 조상미(2019)의 연구에서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직무만족이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솔(2022)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서로 의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일수록 직무만족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중요시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가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로 구성하였으며 수집 방식은 상담관련 학회 연구 설문 조사 게시판에 연구 설문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거나 상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 홍보 게시판에 설문 조사 참여를 모집하는 글을 올려 설문지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상담사 지인들에게 직접 전달 또는 SMS로 전달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 267명의 설문결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빈도	퍼센트
		(명)	(%)
나 이	20대	6	2.2
	30대	111	41.6
	40대	136	50.9
	50대	14	5.2
학 력	학사 졸업	74	27.7
	석사 졸업	161	50.3
	박사 졸업	32	12.0
경 력	5년 미만	100	37.5
	5년~10년	129	48.3
	10년 이상	38	14.2
관 련 기 구 형 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57	21.3
	교육청, Wee센터,		
	초, 중, 고등학교 상담실	47	17.6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2	4.5
	정신건강복지센터 ((구)		
	정신보건센터)	13	4.9
	근 대학소속 상담센터(대학 내		
	무 학생생활상담센터, 대학 부설,	15	5.6
	부속 상담센터)		
	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관 쉼터 등)	48	18.0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9	3.4
	병원 치료실 및 병원 부설	9	3.4
	상담센터		
	기업 상담실	5	1.9
	사설 상담센터		
	(운영자, 근로자)	50	18.7
	기타	2	0.7
	전일제 근무(주 5일,	218	81.6
	무 1일 8시간 이상 근무)		
	형 시간제 근무	49	18.4
	태		

자 격 중	청소년상담사 1급	30	11.2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21	7.9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9	3.4
	임상심리사 1급	7	2.6
	청소년상담사 2급	56	21.0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40	15.0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4	9.0
	임상심리사 2급	11	4.1
	청소년상담사 3급	5	1.9
	직업상담사 1급	4	1.5
	직업상담사 2급	18	6.7
	전문상담교사 1급	4	1.5
	전문상담교사 2급	24	9.0
	자격증 없음	8	3.0
	기타	6	2.2
지 역	서울	113	42.3
	경기	92	34.5
	강원	9	3.4
	충청	13	4.9
	경상	19	7.1
	전라	13	4.9
자 녀 수	제주	8	3
	1명	183	68.5
	2명	76	28.5
첫 째 자 녀 나 이	3명 이상	8	3
	영아	39	14.6
	유치원	96	36.0
	초등학교	80	30.0
	중학교	33	12.4
	고등학교	6	2.2
	대학교	13	4.9
합계		267	100

2. 측정도구

1) 조직문화

Denison, Haaland & Goelzer(2003)가 개발한 조직문화 척도를 정두진(2012)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의 ‘적응성’,

‘일관성’, ‘참여’, ‘미션’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측정 점수가 낮은 1개의(적응성) 하위 요인을 제거하여 총 3개의 하위 요인에 9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두 합한 총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의 영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두진(2012)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34이고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의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는 .877이었다.

2)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의 척도를 박소희(2023)가 일부 수정하여 간소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성장’, ‘일-여가’, ‘일-가정’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총 13 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의 내용은 ‘매우 그렇다’, 5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모두 역 환산하여 처리된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소희(2023)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00이었다.

3) 긍정심리자본(K-PPC)

Luthans 등(2007)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임태홍(2014)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의 4개의 하위 요인에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두 합한 총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태홍(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26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는 .939였다.

2) 직무만족

Brayfield와 Rothe(1951)가 개발한 직장만족도(Job Satisfaction Index)와 Weiss 등이 제작한 미네소타 만족도(MSQ)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제작한 김학운(2006)의 척도를 안병훈(2008)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병훈(2008)의 척도구성은 4개의 하위 요인 즉, ‘직무 자체’, ‘보수 수준’, ‘대인 관계’, ‘승진 기회’의 2가지 하위 요인,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두 합한 총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병훈(2008)의 연구에서는 반분신뢰도로 .730이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는 .838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1.0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모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구조방정

식의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변인 간의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불완전 순차 매개 모형과 불완전 매개 모형을 생성하였다.

다섯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를 구해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비교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섯째, 유령변수(Phantom variable)를 통하여 매개변수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구조방정식의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규분포성의 정규분포에 대한 기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와 같다.

<표1> 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조직문화	일관성	참여	미션	일과 삶의 균형	일-성장	일-여가	일-가정	일과 삶의 균형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	직무만족	직무자체	승진기회
조직문화	1															
일관성	.851**	1														
참여	.893**	.652**	1													
미션	.869**	.669**	.715**	1												
일과 삶의 균형	.326**	.240**	.323**	.260**	1											
일-성장	.333**	.236**	.323**	.256**	.940**	1										
일-여가	.285**	.182**	.299**	.244**	.899**	.785**	1									
일-가정	.273**	.230**	.267**	.217**	.919**	.767**	.764**	1								
일과 삶의 균형	.767**	.644**	.680**	.679**	.483**	.478**	.444**	.411**	1							
자기효능감	.693**	.589**	.616**	.603**	.431**	.433**	.381**	.367**	.917**	1						
낙관주의	.705**	.611**	.625**	.624**	.444**	.430**	.411**	.386**	.900**	.756**	1					
희망	.722**	.580**	.635**	.666**	.443**	.445**	.419**	.360**	.933**	.808**	.802**	1				
회복탄력성	.626**	.524**	.561**	.529**	.418**	.406**	.381**	.366**	.832**	.706**	.643**	.716**	1			
직무만족	.843**	.697**	.750**	.737**	.448**	.454**	.378**	.392**	.857**	.757**	.768**	.831**	.716**	1		
직무자체	.695**	.615**	.570**	.586**	.455**	.472**	.361**	.398**	.733**	.639**	.702**	.718**	.554**	.839**	1	
승진기회	.758**	.536**	.687**	.676**	.398**	.428**	.343**	.314**	.762**	.638**	.700**	.766**	.621**	.899**	.699**	1
평균	3.88	3.97	3.73	3.84	3.53	3.56	3.59	3.47	3.86	3.78	3.93	3.92	3.8	3.98	4.12	3.96
표준편차	0.581	0.644	0.765	0.708	0.854	0.987	0.964	0.843	0.611	0.66	0.641	0.665	0.797	0.566	0.571	0.65
왜도	-0.937	-0.906	-0.708	-0.82	-0.708	-0.733	-0.539	-0.59	-0.945	-0.707	-1.005	-1.227	-0.755	-0.955	-1.227	-0.976
첨도	1.498	1.337	0.247	0.569	-0.186	-0.434	-0.705	-0.162	1.252	0.622	1.075	2.159	0.009	1.665	2.751	1.021

먼저 연구대상자 전체의 직무만족,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평균(M)과 표준편차(SD)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의 평균은 3.88(SD=.581)이며, 하위 요인으로 일관성의 평균은 3.97(SD=.644), 참여의 평균은 3.73(SD=.765), 미션의 평균은 3.84(SD=.708)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의 평균은 3.53(SD=.854)였으며, 하위 요인 일-성장의 평균

은 3.56(SD=.987), 일-여가의 평균은 3.59(SD=.964), 일-가정 3.47(SD=.843)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86(SD=.611), 하위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78(SD=.660), 낙관주의 3.93(SD=.641), 희망 3.92(SD=.665), 회복탄력성 3.80(SD=.797)였다. 직무만족의 평균 점수는 3.99(SD=.566),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인 직무자체 4.12(SD=.571), 승진기회 3.96(SD=.650)였다.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 사이에는 ($r=.326^{**}, <.01$)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인 일관성($r=.851, <.01$), 참여($r=.888^{**}, <.01$), 미션($r=.889^{**}, <.01$)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조직문화가 잘 형성될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문화와 긍정심리자본 사이에는 ($r=.767^{**}, <.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r=.688^{**}, <.01$), 낙관주의($r=.705^{**}, <.01$), 희망($r=.722^{**}, <.01$), 회복탄력성($r=.626^{**}, <.01$)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또한 조직문화가 잘 형성될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사이에는 ($r=.843^{**}, <.01$)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인 직무자체($r=.665^{**}, <.01$), 승진기회($r=.758^{**}, <.01$)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여졌다. 조직문화가 형성될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 사이에는 ($r=.483^{**}, <.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r=.418^{**}, <.01$)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의 하위 요인인 일-생활($r=.544^{**}, <.01$), 일-여가($r=.378^{**}, <.01$), 일-가정($r=.392^{**}, <.01$)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수록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영향이 높게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r=.757^{**}, <.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의 정규성 기본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line(2011)에 기준에 따라 (왜도의 절대 값 < 3, 첨도의 절대 값 < 8) 자료를 살펴 보았는데, 왜도의 절대 값은 -1.227 ~ -.500에 해당하여 3 미만에 해당하였고, 첨도의 절대 값은 -0.434 ~ 1.498로 나타나 정규분포 충족 여부에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1) 측정모형 검증(CFA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경로계수를 파악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측정 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이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측정 모형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ive Factor Analysis)라고도 하며, 측정 도구인 관측 변수들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한다(김원표, 2020).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적합도의 절대 적합 지수인 GFI(Goodness-of-Fit-Index)와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는 모형이 >0.90일 때 매우 좋은 모형이며, >0.80 일 때, 적합한 모형이다.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이 <0.05일 때 매우 좋은 모형이며, <0.08일 때 괜찮은 모형이다. 상대적합 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가 있다. 이 상대적합지수는 모두 >0.90일 때 매우 좋은 모형이며, >0.80일 때 적합한 모형이다(김원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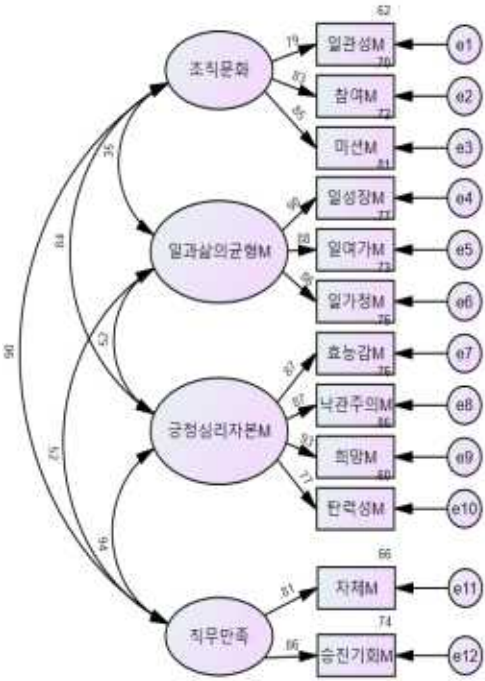
Kline(2011) 연구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주로 사용하는 TLI, CFI, RMSEA로 해석 기준을 살펴보면 TLI=.973, CFI=.980으로 매우 좋은 모형이며, RMSEA=.063으로 괜찮은 모형으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홍세희, 2000). 연구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결과를 확인하였다.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p<.001$ 수준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267)

모형	χ^2	df	p	TL I	CF I	RMSEA (95% CI)
측정 모형	98.497	48	.000	.973	.980	.063 (.054~.079)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3>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p<.001

잠재변인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조직문화	→ 일관성	1.000	0.788		
조직문화	→ 참여	1.256	0.834***	0.086	14.674
조직문화	→ 미션	1.185	0.851***	0.079	15.01
일과삶의균형	→ 일-성장	1.000	0.899		
일과삶의균형	→ 일-여가	0.954	0.879***	0.049	19.491
일과삶의균형	→ 일-가정	0.814	0.857***	0.043	18.759
긍정심리자본	→ 자기효능감	1.000	0.866		
긍정심리자본	→ 낙관주의	0.975	0.870***	0.051	19.294
긍정심리자본	→ 희망	1.081	0.929***	0.049	21.97
긍정심리자본	→ 회복탄력성	1.077	0.773***	0.069	15.658
직무만족	→ 직무자재	1.000	0.812		
직무만족	→ 승진기회	1.206	0.860***	0.073	16.482

2) 구조방정식의 모형검증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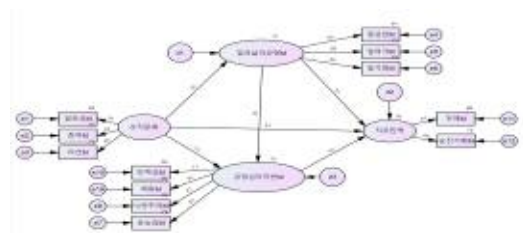
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으며, 아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비교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I	I	(95%CI)
연구모형 (불완전 순차매개)	98.497	48	.000	.973	.980	.063
						(.054~.079)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으로 설정한 불완전 순차 매개 모형 적합도는 χ^2 는 98.497, 자유도 48, p값은 유의수준 .000에서 기각되었으며, 경쟁 모형인 불완전 매개 모형 적합도는 χ^2 는 130.612이고 자유도 49, p값은 .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기각되었다. 모델 간 χ^2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두 모델 중 더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려면 χ^2 이 작은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일 수 있지만 표본 수에 민감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 쉽게 기각이 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RMSEA(절대적합지수), TLI, CFI(상대적합지수)를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73, CFI=.980였으며,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57, CFI=.968로 나타나 모두 >0.90으로 매우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RMSEA지수는 연구 모형은 .063, 경쟁 모형은 .079로 $0.05 < RMSEA < 0.08$ 일 때 괜찮은 모형으로 모두 적합도가 괜찮은 모형으로 나타났다(홍세희, 2000).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두 모델 중 더 적합한 모델을 비교하였다. 두 모델의 차이 검증을 비교한 결과 $\Delta\chi^2(1)=32.115$ 로 자유도 1에 대한 95% 임계값 3.84($p<.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쟁 모형에 비해 연구 모형의 χ^2 값이 유의하게 낮고, RMSEA, TLI, CFI값이 경쟁 모형보다 우수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불완전 순차 매개 모형, 즉 연구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의 경로계수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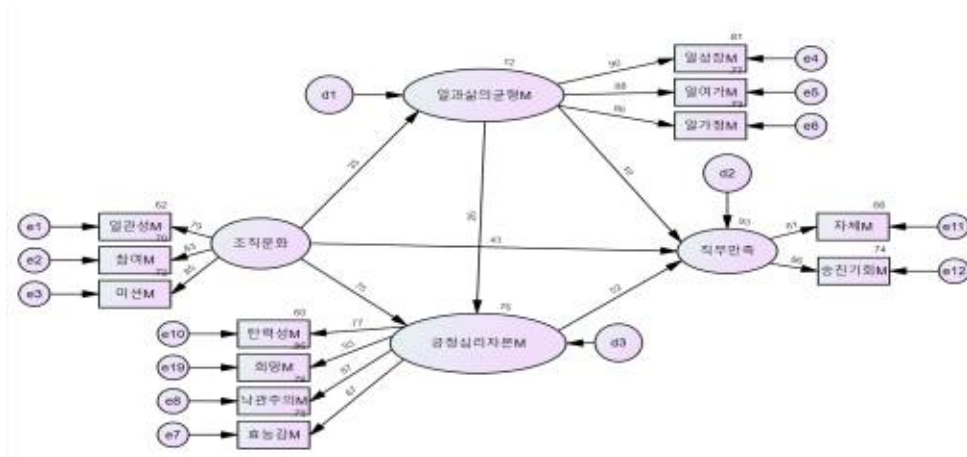
<표 5>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p<.001, **p<.01, *p<.05

변수 간 경로	Estimate		S.E	C.R
	B	β		
조직문화 → 일과삶의균형	0.611	0.350***	0.119	5.128
조직문화 → 긍정심리자본	0.839	0.746***	0.070	12.007
조직문화 → 직무만족	0.397	0.434***	0.083	4.755
일과삶의균형 → 긍정심리자본	0.169	0.262***	0.029	5.732
일과삶의균형 → 직무만족	0.053	0.102*	0.024	2.192
긍정심리자본 → 직무만족	0.421	0.519***	0.080	5.293

<표 5>에서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는 일과 삶의 균형($\beta = .350$)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긍정심리자본($\beta = .746$)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beta = .434$)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과 삶의 균형은 긍정심리자본($\beta = .262$)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직무만족($\beta =$

.102)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beta = .519$)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측변수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 모형의 불완전 순차 매개 모형은 [그림 2]와 같은 그림으로 다음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최종 연구 모형

3. 구조방정식의 매개효과 검증

1) 최종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간의 직접효과(direct-effects), 간접효과(indirect-effects)를 제시하여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beta=.350$, $p<.001$) 유의미하였고,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beta=.746$, $p<.001$) 유의미하였으며 직무만족에 향하는 직접 효과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beta=.434$, $p<.001$). 일과 삶의 균형은 긍정심리자본에 ($\beta=.262$, $p<.001$) 유의미하였고, 직무만족으로는 ($\beta=.102$, $p<.001$)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에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beta=.519$, $p<.001$) 유의미하였다. 조직문화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거쳐 직무만족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B=.033$, $p<.05$) 유의미 하였으며, 조직문화에서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353$, $p<.001$) 유의미하였다. 조직문화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거쳐 긍정심리자본을 지나 직무만족으로 향하는 이중 매개의 간접효과는 ($B=.043$, $p<.001$) 모두 유의미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최종 연구 모형 변인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 $p<.001$, ** $p<.01$, * $p<.05$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조직문화 → 일과삶	0.611***		0.350***	
조직문화 → 긍정심리	0.839***		0.746***	
조직문화 → 직무만족	0.397***		0.434***	
일과삶 → 긍정심리	0.169***		0.262***	
일과삶 → 직무만족	0.053***		0.102*	
긍정심리 → 직무만족	0.421***		0.519**	
조직문화 → 일과삶 → 직무만족		0.033*		1.000*
조직문화 → 긍정심리 → 직무만족		0.353***		1.000***
조직문화 → 일과삶 → 긍정심리 → 직무만족		0.043***		1.000***

2) 최종 연구 모형의 팬텀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최종 연구 모형으로서 불완전 순차 매개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하였다. AMOS는 본 연구

모형에서 매개변수가 2개일 경우에는 각 매개 변수에 대한 경로를 통해 간접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령변수(Phantom variable)를 간접 효과 경로로 별도로 구성하여 알 수 있다. 팬텀 변수라고도 불리며 이 팬텀변수는 모형적합도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 변수이다. 팬텀변수를 활용한 간접효과 검증은 비표준화 계수로 제시한다(배병렬, 2014). 유의한 확률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2,000회 반복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BC 신뢰구간(Bia-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은 95%의 수준으로 설정해 놓았다. 본 연구의 팬텀변수를 이용한 이중 매개 간접효과 경로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조직문화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의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는

(B=.033, CI=.007-.076)으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P<.05$ 수준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조직문화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거쳐 직무만족의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는 (B=.353, CI=.197-.543)으로 $P<.001$ 수준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직무만족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경로는 (B=.080, CI=.018-.088)으로 불완전 순차 매개 모형에 적합한 이중 매개모형을 띄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7> 최종 연구 모형 변인의 팬텀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변수 간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조직 문화	→	일과삶의 균형	→	직무 만족	0.033*	0.024	0.007	0.076
조직 문화	→	긍정심리 자본	→	직무 만족	0.353**	0.080	0.197	0.543
조직 문화	→	일과삶의 균형	→	긍정심리 자본	0.043**	0.080	0.018	0.094

*** $p<.001$, ** $p<.01$, * $p<.05$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문제의 첫째,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후 여유와 원활한 소

통을 제공하는 조직문화가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효섭, 정홍인, 2021; 최주몽, 2020)와 일치한다. 이는 여성 상담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배려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는 정적 상관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강유정, 김규태(2016)의 연구에서 조직문화가 긍정적이고 조직구성원 간 관계 형성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이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여

성 상담사는 긍정심리자본을 키울 수 있는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바이다.

또한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직무 역할이 명확하고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협동적이며, 직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영성, 2006)와 일치한다. 또한 조직 갈등이 적고 동기 부여가 높은 목표지향적인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최재준, 2020)와도 부합한다. 이는 여성 상담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근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과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정적 영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수록 직무만족의 영향이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김준기, 양지숙(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상담사가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나 각 변인의 하위 요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서상숙(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소인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환경 극복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으며, 신재민(2013)의 연구에 결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소인 낙관성이 일-여가 요인을 제외한

일-가정 요인과 일-성장 요인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이 미쳤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여성 상담사의 여가 환경이 부족하더라도 직업적 성장과 가정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연구(차주옥, 2017) 및 요양보호자 대상 연구(정원영,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여성 상담사에게 긍정심리자본이 환경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핵심 심리적 자원으로서 직무만족에 기여함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음은 연구 문제의 두 번째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은 불완전 순차 매개하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 상담사의 직무만족이 조직문화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간접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매개효과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관계지향적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의 증진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예진, 유미, 202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자녀가 있는 상담사는 다중역할의 요구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상담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상담사의 처우와 어려움을 헤아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김승겸 외(2020)가 유소년 스포츠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GWP(Great-Work-Place) 조직문화를 갖출수록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GWP조직문화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하며 조직구성원이 서로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보람있게 근무하는 문화가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에 반영이 된다면 그동안 긍정심리자본의 심리적 자원으로 버텨내던 여성 상담사들의 직무만족의 상승과 발전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바이다.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는 정적 영향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미흡하지만, 황,루(2020)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요인인 희망,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로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일과 삶의 균형이 낮을수록 조직을 이탈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여성 상담사는 이직 의도가 낮은 조직문화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지고 긍정심리자본이 더 많이 생성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일과 삶의 균형이 긍정심리자본을 거친 직무만족의 관계는 서로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양승경(2022)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높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자녀가 있는 상담사의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가정 내 갈등이 감소하고 상담사로서의 성장에 투자할 시간이 보장되어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얻는 행복감과 성장이 긍정심리자본을 발달시켜 직무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및 긍정심리자본은 유의한 정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상담사로서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상담사의 자리를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하였으며, 여성 상담사의 직무만족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여성 상담사의 근로 환경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상담사로서 후속 연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성 상담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역할이 서로 정적 영향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앞으로 여성 상담사의 일과 양육의 다중 역할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더 나은 처우와 복지정책의 개선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상담사의 직무만족은 곧 내담자에게 이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상담사를 한정으로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자녀가 있는 남성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부여하여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남성 상담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의 나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양육에 대한 자녀 나이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양육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었다. 양육은 생애주기 및 발달과업에 따라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적인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는 양육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설정하는 데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 환경의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국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 상담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는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모습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 연구 대상의 객관적인 자료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심층 면담이나 행동 관찰, 세부적인 연구 방법들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여성 상담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의 요인을 발전시키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정, 김규태 (2016). **보육교사가 지각한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5.4. 77-92.
- 고기홍 (2014). **(통합적 자기관리 모형을 통한) 개인상담**. 서울: 학지사.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20). **2021 한국직업전망**. 서울: 전우용사촌
- 구유정 (2017). **고학력 워킹맘의 일과 육아에 대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권문찬 (2016). **직업상담사의 조직공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 김기동, 김화연, 문상호. (2017). **조직우선주의가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여성연구, 73-108.
- 김민철 (2019).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소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선희 (2010). **공공조직에서 여성의 일-가정 갈등(WFC) 결정요인 분석**.

- 行政論叢 48.1. 171-196.
- 김영성 (2006). **청소년傭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원표 (2020).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서울. 와이즈인컴퍼니.
- 김일옥, 김순행, 노현승 (2021)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 병원경영학회지, 26(4), 1-11.
- 김정운, 박정열 (2008).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여가학연구, 5(3), 53-69.
- 김주엽, 김명수 (2011). 긍정심리자본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영 교육연구, 26(3), 117-148.
- 김준기, 양지숙 (2019). **간호사의 일, 가정양립 및 양육경험**.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8(1). 53-63.
- 김학운 (2006). **경찰공무원의 스포츠활동이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류인찬 (2021). **상담자의 소명과 직무만족 관련변인의 구조모형 검증**.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류현주 (2012). **대기업 근로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특성 및 조직 특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은미 (2014). 여성노동자 50년, 여공에서 워킹맘까지: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버전 업. 여/성이론, (31), 188-205.
- 박미진 (2016), **상담자의 진로소명과 직무만족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직업몰입의 매개효과**,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6(8): 879-897.
- 박성숙 (2013).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 위기관리자와 일반상담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소희 (2023). **COVID-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워킹맘의 사회적 지지, 통합성 (SOC), 감염병 스트레스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박솔 (2022). **위라벨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정열, 손영미 (2016).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693-705.
- 배경혜 (20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변화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 배은진 (2020). **직무특성과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을 매개로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무직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백미현, 유현실 (2012). **상담경력에 따른**

- 상담자 발달 수준과 소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6), 3191-3205.
- 서미경 (2010). **중고령여성의 취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상숙 (2016). **직무 스트레스가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서예진, 유미 (2023). **병원 이직간호사의 이직 전 일과 삶의 균형, 간호근무 환경,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현 임상간호사군과 비 임상간호사군**. 간호행정학회지 29.4. 385-396.
- 신유근 (1990). **조직행위론**. 다산출판사.
- 신재민 (2013). **여성의 일-삶의 균형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지양 (2010). **취업기혼 남녀의 일-생활 균형요인과 관련요인분석: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 질 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46-247.
- 안가영 (2002).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안병훈 (2008). **공무원의 여가활동과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안재순 (2021). **상담사의 직무만족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인문사회 21 12.3. 357-370.
- 양승경 (2022). **사무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영향요인 - 그릿, 회복탄력성,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12, 816-825.
- 양승용, 오민재, 신정하 (2008). **호텔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 경영 성과 간의 관계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4.4. 292-305.
- 우양호 (2024).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행정연구, 38(1), 221-256.
- 유미애, 손연정 (2009). **기혼 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4), 515-523.
- 유지훈 (2011). **방해성 및 도전성 스트레스가 직무탈진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유한선 (2021). **호텔의 조직문화가 조리사의 일과 삶의 균형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대학원.
- 윤숙경 (2016). **가정-일의 충실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기선 (2016). **고학력 기혼여성의 일-가족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동기 (2012). **조직문화와 경영전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원.
- 이동섭·최용득 (2010).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Vol. 39(1), pp. 1-28.
- 이샘, 최한나 (2012).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人間理解 33.1.123-137.
- 이영우 (2014).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직업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형국 (2017). **상담전문가 인력 현황 조사 연구 II: (사)한국정신건강상담협의회 산하 학회 상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1.45-66.
- 이형국 (2018).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인력 현황 및 관련 요인 연구**. 상담학 연구, 19(3), 1-25.
- 이효섭, 정홍인 (2021). **일과 삶의 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인문사회과학연구, 22(1), 389-414.
- 이효숙 (2015).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임지영, 김지현 (2015).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요구 만족 척도 개발: 자기결정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231-262.
- 임태홍 (2014).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 (K-PPC) 타당화 검증**.코칭능력개발지 16.3. 157-166.
- 정균욱 (2023). **상담자의 수퍼비전 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정두진 (2012).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미연, 임정하 (2021). **아동·청소년 상담자의 직무요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22.3. 217-237.
- 정소연 (2015). **직업상담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 정원영 (2018).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 정재연 (2022). **여성 직장인의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정희수, 조상미 (2019). **조직문화와 리더십 역량, 영향력 수단이 여성 관리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2. 141-169.
- 차주욱 (2017). **개인의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용득 (2009). **조직맥락에서의 긍정심리역량의 선행 요인과 결과에 관한**

-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최재준 (2020). **경찰의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주몽 (2020). **혁신문화, 조직커뮤니케이션, 업무자율성이 직원의 워라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혜림, 김혜수, 정재석, 안진아 (2022). **여성 상담사의 팬클럽 상담 일자리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교육치료연구 14.2. 179-203.
- 허재경, 신영주 (2015). **여성상담자의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15-639.
- 홍지아 (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현상과 인식**, 38(1/2), 205-228.
- 황, 루 (2020). **Y세대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고기숙·이면재·김영은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경험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501-51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질병통계자료**.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경미 (2009).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성격장애) 척도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Avey, J. B., Patera, J. L., West, B. J. (2006). **The implication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absenteeism**.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13(2), 42-60.
- Brayfield Arthur H ,Rothe Harold F (1951). **An index of job satisfaction**.*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07-311.
- Capella, M. E., & Andrew, J. D.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job satisfaction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4), 205-214.
- Cartwright, B. Y., & D'Andrea, M. (2005). **A Personal Journey Toward Culture-Centered Counseling: An Interview With Paul Peders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3(2), 214-221.
- Denison, D. R., Haaland, S. & Goelzer, P.(2004). **Corporate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Asia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world**.*Organizational Dynamics*, 33(1), 98-109.
- Hughes, J., & Bozionelos, N. (2007). **Work life balance as source of job dissatisfaction and withdrawal attitudes:An exploratory study on the views of male workers**. *Personnel Review*,

- 36(1), 145-154.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pp. 562-589). na.
- Larson, M., Luthans, F. (2006). **Potential added valu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predicting work attitudes.**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 Studies*, 13(1), 45-62.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Luthans, F., C. M. Youssef, & B. J. Avolio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Luthans, F., Youssef, C. M. (2007). **Psychological capital: Investing and develop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Nelson, D. Cooper, C. (Eds.), **Positive Organization Behavior.**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Luthans, F., Youssef, C. M.,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Nimmagadda, S., & Buddha, M. K. (2012). **Key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its impact on public service sector employe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Sciences*, 2(4), 513-521.
- T. D. Allen (2001). **Family-supportive work environments: The role of organiz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8, pp.414-435.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Female Counselors: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IM, SAE YOUNG

Guro-gu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KIM, HEE SUE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female counselors. The study subjects were 267 female counselors with children nationwide who completed a self-reported online questionnaire (Google Form).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included the Organizational Culture Scale, Job Satisfaction Scale, Work-Life Balance Scal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Based on these measur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key variable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m. SPSS 21.0 and AMOS 21.0 were used to statistically validate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ed by female counselors with children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ach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Thir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we compared the research model, the incomplete sequential mediation model, with the competing incomplete mediation model.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incomplete sequential mediation model was more appropriat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among female counselors with children.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d data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enhance the perceived job satisfaction of female counselors.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unseling and education,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 : *Female counselors, organizational culture, work-life bal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atisfaction*

애착 외상을 가진 그룹홈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에 대한 내러티브

저자: 김영복*

한세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 경험한 애착외상이 그룹홈이라는 보호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대인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그룹홈에 입소한 지 3년 이상된 청소년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아동기 애착외상 경험이 이후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 별로 3회~4회기의 심층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 연구자는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안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의 3차원적인 내러티브 탐구절차에 따라 실행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첫째, 그룹홈 청소년들은 아동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가족은 있지만 감정적 유대가 단절된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애착 외상을 자기타위로 돌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를 보였다. 셋째, 대인관계에서는 신뢰 결여와 감정회피가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존중받고 싶다”, “예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통해 안정된 관계에 대한 욕구도 확인되었다. 넷째, 그룹홈 내에서의 관계는 기능적 보호의 의미로 인식되었고, 정서적 돌봄의 부재로 인해 애착의 재형성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학업 성취, 책임감, 자기통제 등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외상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관계 형성과 자아정체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룹홈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는 기능적 보호를 넘어선 정서적 안정 기반의 돌봄, 관계적 신뢰 회복 프로그램, 퇴소 후 관계 지속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는 트라우마 인식 기반의 상담 접근과 내러티브 재구성을 통한 감정 언어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애착 외상을 경험한 그룹홈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상담·치료 및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애착외상, 그룹홈, 그룹홈청소년, 대인관계, 내러티브탐구.

* 주저자: 김영복, 한세대학교 대학원, hwanchun2@naver.com

I. 서 론

애착외상은 부모나 양육자와 같이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다. 애착외상은 크게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애착외상 유발의 핵심은 건디기 힘든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Allen, 2019). 두려움과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이 애착외상을 가져오는데, 학대가 발생한 후 아무도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즉 아동에게 안정감을 회복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애착경험, 회복적인 경험이 뒤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경험은 건디기 어렵고 외상이 된다(신재은 2023). 일반적으로 애착외상은 학대와 방임, 즉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적대감(거절) 심리적 학대, 가정폭력 목격, 신체적 방임, 심리적(정서적) 방임이다(Allen, 2020). 이는 가족 내 트라우마로 작동되며 세대 간 전이된다(최광현, 2021). 이에 노출된 아동은 성장하면서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 인지적 왜곡, 해리, 정서적 고통(분노, 불안, 우울, 죄책감), 주의력 결핍, 스트레스 조절 손상, 자기개념의 문제, 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Allen, 2020). 따라서, 애착외상을 입은 아동은 발달에 필요한 과업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안영주, 신지현, 2023).

그룹홈은 위기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7~8명의 소규모 가정형태로(보건복지부, 2018) 부모의 이혼, 사망, 가정폭력, 학대, 방임, 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벗어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홈의 아동.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족과 연결성의 단절로 불안과 우울을 경험 한다. 가족의 상실로 인하여 결국 내면적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그 감정을 애써 숨겨 놓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살아가기도 한다(김희성, 2022). 그 결과 행동 문제의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이러한 행동 문제는 대부분이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 우울, 대인관계 문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애착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상성 애착과 관련해서 Firestone(2002)은 사랑의 환상이라는 방어기제가 있다고 말하며,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최광현, 2011).

선행연구로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친구의 지지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김형태, 조순실, 2009), 아동기 애착외상 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복합외상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효과에서 아동기 애착외상이 복합외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인애착이 때로는 보호요인, 때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오순옥, 2019). 그룹홈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로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결과되었으며(서보준, 김명자, 2010),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김성경, 2003). 질적연구로는 그룹홈 청소년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룹홈에 입소하면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가를 그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으며(전아름, 2018), 상실경험 청소년의 그룹홈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에서 정서적 반응은 무기력과 우울, 분노, 저항, 부정, 감정적 마비 등이 나타났다(김희성, 2022). 생애초기 애착외상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의 트라우마 가족치료 사례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를 가족치료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신재은, 2023),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연구는 그룹홈 입소 후 보살핌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현상학적 연구를 하였다(김선민, 조순실, 2010). 선행연구의 결과는 너무 포괄적이고 외부로 나타나는 환경과 현상에 집중되어 있는 양적 연구가 많아 실질적으로 애착외상을 경험한 그룹홈 청소년들의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내면의 변화가 그들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내기는 한계가 있었다.

애착외상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어 그룹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 생활하게 된 청소년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시간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야기로 듣고 생생하게 기술하여 탐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가 적절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7)는 내러티브 연구는 단순히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삶은 내러티브를 통해 기록되고, 영위된다. 가장할 때 내러

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듣고 탐색’하는 것 이상이다(유기웅 외 3인, 2024).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야기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였으며(소경희 외 공역, 2007), 이는 인간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를 구성하고 이야기적 삶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감을 의미한다. 둘째로,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내적 세계는 경험 안에서 존재하며, 경험을 벗어난 것은 인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김필성, 2019). 셋째,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은 이야기적이라고 본다. Clandinin과 Murphy(2009)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storied phenomenon)으로 이해하였으며, Dewey의 경험이론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재개념화하였다(김병극, 2012).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를 통한 삶의 구성 과정 자체를 존중하며 이를 연구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다. 내러티브 탐구는 단순한 자료수집이나 분석을 넘어, 이야기하기를 통해 형성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삶 전체를 전면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룹홈의 보호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정서적 애착 형성과 대인관계 경험에 아동기의 애착외상이 미치는 영향을 내러티브 연구 방법으로 그들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애착 외상으로 인해 그룹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애착 외상을 경험한 그룹홈 청소년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유기)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상담 현장에서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개입 및 의미 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퍼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홈 청소년들은 아동기 애착 대상과의 관계 경험은 어떠했는가? 둘째, 자신들이 겪은 애착 외상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 셋째, 그룹홈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경험은 어떠한가? 넷째, 그룹홈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서 그들이 경험한 애착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애착외상을 가진 그룹홈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기 위해 Clandinin과 Connelly(2007)가 제안하는 내러티브탐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연구로 한 개인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연구의 틀로 시간성(계속성), 사회성(상호작용성), 장소(상황)를 의미하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만든다. 시간성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며(김필성, 2019), 경험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성이란 개인

적, 내적 조건과 사회적, 외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험이 형성된다는 것을 뜻하며, 장소란 경험은 특정의 구체적이면서 물리적인 장소나 일련의 장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홍영숙, 2020).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에게 경험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서부터 독특한 연구 방법을 구성하고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김필성, 2014).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하는 협동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연구참여자들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정서적 반응이 그것으로 인해 형성되는 대인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망속으로 들어가 개인적,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중심에 머물며 그들이 경험을 살고,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사는 현장을 함께 하게 된다.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은 “이야기를 살아가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다시 살아가는(reliving)”(김필성, 2019) 가운데 그들의 내러티브를 마무리 한다.

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는 양적연구에 적용하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준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러티브 탐구는 3차원적 공간에서 연구대상자의 경험의 의미 도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한다. 질적연구에서의 신뢰성은 양적 연구에서 논의되는 신뢰도라는 용어 및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적연구에서는 같은 대상을 상대로 다른 형태의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두

측정치 간의 차이를 말한다 (성태제, 시기자, 2006; 유기웅 외 2024).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질적연구에서는 신뢰성의 개념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집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Merriam, 2009; 유기웅 외 2024. 재인용).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 이야기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관심 사이의 정당한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및 모집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의도적 표집을 활용하여 2명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그룹홈에 입소지 3년이상된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새로운 환경인 그룹홈에 입소하여 충분한 안정을 찾고 가족안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 다른 자극에 의해 감정이 오염되기 전에 순수한 기억과 감정을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룹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애착외상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름*	성 별	나 이	학 년	그룹홈에 오게된 동기	거주 기간
이승민	남	14	중1	가정폭력	5년
박시은	남	18	고2	가정폭력	8년

자료수집 방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그룹홈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모든 연구참여자자와 3회 이상의 만남을 통해 1회당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먼저 녹음된 음성파일을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전사하였고,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특히 인터뷰를 실행하면서 당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참고하기 위해 연구 노트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설명문과 동의서를 가지고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그룹홈 시설장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참여를 원하는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연락처를 시설장을 통해 받고, 개별적 연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절차 등을 인터뷰 시작 전에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 연구참여자 이름은 전부 가명임

III. 연구결과

[이승민 이야기]

1.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야기

이야기 1: 경제적 한계가 만든 엄마의 선택

중학교 1학년(14세)인 승민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세 명이 살아본 기억이 없다, 아빠는 출생 직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승민이 엄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에 한계로 네 살 때부터 엄마의 친구인 이모 집에서 동갑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승민이는 이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이모의 아들과 함께 목욕이나 기본 학습 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였고, 이러한 경험 이후 자신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회상하였다.

네 살이었거든요. 그때가 이모랑 친했었어요. 엄마랑 친한 이모 집에서 지냈었는데 저랑 동갑인 애가 있었어요. 그 이모의 아들, 제가 그때는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리고 책은 못 읽었지만 아무튼 숫자 공부는 좀 하고 어린이집도 가고 그랬었어요. 이모한테 이쁘다고 했는데 자주 했는데 그때부터 사회생활 잘한 것 같아요.

이야기 2: 엄마와의 잠깐의 만남과 또다시 분리

승민이는 일곱 살 때 다시 엄마와 함께 살게 되어 기뻐다. 아기 시절 엄마와 함께한 기억은 거의 없었으나 엄마가 보여준 아주 어릴 때 사진을 통해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살면서 승민이는 엄마로부터 신체적 처벌과 정서적 학대, 휴대폰을 이용한 협박을 경험하며 큰 불안을 느꼈다. 그리웠던 엄마와 함께한 시간에서 긍정적 경험은 거의 없었지만, 엄마가 일하시는 사장님이 포르쉐를 태워준 경험과 같이 특별히 기억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엄마의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쉼터에서 생활하였다. 그 후 승민이는 그룹홈으로 입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승민이의 정서적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저한테는 그때 당시 7살이었는데 거기서(지연반응 7초, 머뭇거림) 좀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휴대폰 어플이 있거든요. 그 괴물 어플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잡아 간다. 막 그런 거 맨날 해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엄마랑 살 때는 그렇게 좋은 적이 많이 없었는데, 진짜 진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진짜 인생 살면서 딱 한번 경험해 본게 있거든요. 그 엄마가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포르쉐 한 번 태워줬어요. 그래도 친엄마하고 살았을 때 제일 좋았어요. 무섭고 아프기도 했었지만 제일 좋았어요.

그때 7살 때 엄마 집에서 살다가 좀 많이 맞아가지고 옆집에서 신고를 했나 뭘 했나 봐요. 경찰처럼 생긴 사람들 와서 아보전으로 데리고 가서 아보전에서 지내다

가 또 7살 때 그 집의 컴퓨터로 샀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7살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살았다가 2학년 때 여기로 온 거예요.

시간을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야기 2: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요.

2. 그룹홈에서의 관계 경험 이야기

이야기 1: 그래도 엄마가 좋아

승민이는 엄마랑 사는 시기는 아프고 무섭기도 했지만 제일 좋았던 경험으로 회상했다. 컴퓨터에서는 규칙과 제한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꼈으며 규칙을 어기게 되면 3일 정도는 반성기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TV시청이나 놀이에도 자유가 제한이 되어 그냥 책만 읽어야 했다. 무슨 행사가 있어도 내 뒤에 선 애들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했다. 승민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차별을 느꼈고 욕구를 억압해야 하는 상황과 선택권을 박탈당한 경험이 불평감과 좌절을 느끼게 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승민이가 사회적 적응과 자기조절을 학습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사실 차별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컴퓨터에서 무슨 잘못 딱 하나라도 하면은 계속 3일 정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TV도 못 보고 그냥 책 읽고 그럴 수만 있었거든요. TV를 일요일에 한 번씩 봤거든요. 제일 어린 사람부터 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차례였는데 그걸 양보해야 된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놀이동산 가서 먹고 싶은 간식 있잖아요. 그걸 못 먹었어요. 그 반성 기간이어서 그래요. 그런 기간은 없애고 그냥 다 반성할 수 있게

승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그룹홈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으며, ADHD 약물을 하루 두 번 복용하고 있다. 약을 복용하면 나른함을 느끼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보다 생활이 덜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그룹홈 생활은 처음에는 슬프고, 어색하고, 형들이 욕을 많이 해 무서웠으나 막내였던 승민이는 형들이 있었도 든든하기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특별히 형들과 상호작용은 없으며 밥 먹을 때나 옷장 관련 간단한 의사소통만 이루어진다. 승민이는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다. “힘든 일이 없어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자의 귀에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들렸다. 누구나 환경의 전환이 있으면 불안과 낯섦, 긴장감이 수반되나 승민이는 느껴지는 감정을 무의식에 억압하거나 회피한 것일까 애초에 의식하지 않으려는 스스로 작정한 것 같다.

여기 와서 처음 왔을 때요? 안 힘들었는데요. 다 괜찮았는데. 말을 안 들어주진 않는데 든든하지도 않았고 그냥 좋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아예 말 안 해요. 아예는 아니고 밥 먹을 때 “소시지 그거 몇 개 먹었냐” 그거랑 “옷장에 자기 옷 들어간다” 그런 얘기나 그런 거밖에 안 해요. 하고 싶은 얘기 없는데요.

연구자 “그러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한테 해요?”라고 질문했을 때, 참여자는 “하고 싶은 얘기 없는데요”라고 반복해서 답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속상함이나 화나는 경험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몰라요. 아무도 안 해요”라고 응답하며,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타인에게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야기 3: 그냥 혼자서 쉬어요

승민이는 휴대폰 게임을 좋아한다.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휴대폰 과의존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승민이는 다르다.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 휴대폰으로 머리가 아플 때까지 게임할 때도 있다. 어쩌면 승민이는 처음부터 혼자였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이모집에서 살 때도, 컴퓨터에서 살 때도, 누구도 승민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지지해 준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화가 나거나 불편한 감정이 들 때 이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진정하려 애쓰지만 결국 억압과 반복된 분노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깊은 내면적 고통을 드러낸다.

“그거(휴대폰) 많이 하면 살짝 머리가 살짝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하다 살짝 일어났는데 뭔가 살짝 이상하면은 물도 마시고 잠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살짝 짜증 날 일이

있을 때 머리가 살짝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면 살짝 아파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제가 원래 미래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 스타일인데 화가 나면 미래 같은 거 생각해서 이러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생각이 나 가지고 계속 화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또 놀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 또 또 화나 있고. 학교에서는 속으로 그 사람 욕을 해요. 심호흡을 하고 그냥 창문 한 번 보고 그냥 잊으려 자요.

이야기 4: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승민이는 컴퓨터에서 그룹홈으로 올 때 장난감을 가져왔으며, 한 살 많은 형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장난감으로 놀면서 덕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형이랑 잘 놀기도 했지만 엄청 싸우기도 했다. 그 형이 놀다 엄마가 사준 장난감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반은 부서졌다. 공룡 메카드 종류인데 공룡장난감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날 형과 치구박구 싸웠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어느날 한정판과 변신하는 장난감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화가 나고 울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승민이는 존중받지 못하고 친밀감과 정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없는 관계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존중하는 거”라고 말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놀이를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비교적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승민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

어떤 형이(홍분한 듯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짐) 엄청 재미있는 말장난을 했어요, 무슨 별명이랑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 가지고 그것 따라해봐 그게 가지고 제가 따라 해 봤는데,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그 형이랑 놀았는데 그 형이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다 부서졌어요, 엄마가 사준 유일한 치구박구 싸웠어요. 302호에 보편은 많았어요, 장난감, 그런데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진거예요. 불사조가 그려져 있는게 있거든요, 그게 한정판이란 말이에요, 엄청 짜증나서 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더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가족이 아닌 것처럼 지내고, 다른 사람들 다 경청해주고 존중하는 거. 그러면 화목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서로서로가 중요하고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집이랑 거기 친구들이 달라요, 그냥 사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잘 지내는데요.

[박시은 이야기]

1.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

이야기 1 : 십 년 만의 재회, 이해할 수 없었던 선택들

시은이는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다, 엄마랑 아빠는 이혼한 후 어린시절 엄마는 형과 함께 나도 데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엄마는 형을, 아빠는 시은이를 양육하기로 했다. 시은이는 이유도 모른체 엄마와 분리되어야 했고, 이로 인해

시은이는 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억누르고 ‘나는 그냥 엄마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아들이며, 누구와도 정서적 상호작용을 거부해 왔다. 중학생 시절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점차 회피와 단절을 경험하며, 그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었는데 그래도 아빠는 친구 같이 지금도 연락을 한다.

그렇게 그림고 부러웠던 엄마와 형을 십여 년 만에 만났다. 시은이는 형을 대면했을 때 형은 엄마와 살면서 체격도 외모도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가 형만 양육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였다. 시은이는 피 하나도 안 섞인 사람들과 살아도 이렇게 잘 컸다고 자부심(自負心)을 갖기도 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그냥 나는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혼한 상태였고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계속 저한테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으셨던 적이 많아서 그냥 딱히 정리했을 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 안되죠, 아무리 첫째 형이 아무리 아파도 둘째를 데려가고 싶다면 그래도 같이 데려갔겠죠. 근데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그냥 냅두고 갔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부모랑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컸는데 형은 친부모랑 살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저보다 폐인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됐죠, 피 하나도 안 섞인 저분들이랑 사는데 이렇게 잘 컸는데

이야기 2: 공포와 불안 속의 하루

시은이는 언제부터 할아버지랑 살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고모와 함께 생활하며 공장에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무서워 할아버지께 전화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였다. 구타와 폭력 속에서 죄책감과 수치심,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 내야만 했다. 이후 아버지는 시은이를 시설로 보내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할아버지가 맨날 늦게 오시고, 밤늦게 까지 안오시다 보니까 맨날 기다리고 그러다가 전화하면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냐며 그냥 무서웠을 뿐. 고모,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혼냈죠. 할아버지는 얇은 철사로 저 때리시고 빨개벗기고 내보내고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밥은 또 저 혼자 그냥 잘 먹고 또 고모는 할아버지가 시연이 너무 말 안 듣는다. “너 가서 좀 교육 시켜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또 고모가 고모 말로는 저한테 “칼도 들었다. 물건도 던졌다.”고 했어요.

이야기 3: 상처와 의존의 이중성: 없어서는 안 될 가족

할아버지와 고모와 함께 살 때는 학대받고 살았어도 행복했다. 학대받은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키우기’위해 훈육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경험했음에도 관심과 돌봄 때문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좋은 감정

을 유발시킴으로 현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환상에 빠진 것으로 여겨진다.(최광현 2013)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를 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은이는 가족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지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도 할아버지와 고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루하루 같이 사는 시간이 제일 좋았고 행복했다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학대받았어도 원가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소본능인가보다.

딱히 어렵지는 않고 그냥 행복했어요. 그 하나입니다. 학대받은 거 뭐 제가 잘못해서 받은 거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맞으면 맞다가 끝나는 거죠. 굳이 거기에 계속 신경 쓰기에는 귀찮은. 초등학교 2, 3학년 전이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루하루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다 저 챙겨주시고 할아버지도 가끔 저한테 고기도 과자도 사다주시고 아빠도 저 어릴 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챙겨주셨던 걸로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겠습니다. 다 좋은 분이시고 어릴 때 많이 때리고 몰았다가 때리고 그래도 저에 대한 사랑은 넘치더라고요.

2. 그룹홈에서의 관계 경험

이야기 1: 그룹홈 입소의 첫 기억, 따로 사는구나

그룹홈으로 입소한 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8년이 되었다. 할아버지와 살다가 그룹홈으로 왔을 때 다행이면서도 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학대에서 벗어나 다행이기는 했으나 좋아하는 가족이랑 떨어져 살게되어 슬프기도 했지만 딱히 어려웠던 것은 없었다, 할아버지와 헤어졌어도 그리 힘들지 않고 “그냥 따로 사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원하는 거 다 얻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 좋게 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2: 기억을 묻어 버린다.

시은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았던 경험이 거의 없었다. 과거 상처에 대해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 시은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굳이 알아줄 필요는 없다”고 답하며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로 이미 마음속 깊이 묻어 둔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기로 마음 먹은 말투였다. 과거 상처가 현재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없어요, 제가 다 고쳤으니까요”라며 단호하게 부정했는데, 이는 감정적으로 과거와 연결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경험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적 적응을 반영한다. 겉으로는 담담하고 자립적이지만, 억압된 외로움과 슬픔,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잠재되어 있어 시은이의 내면 정서를 드러낸다.

어린시절, 할아버지가 굳이 마음을 알아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지금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거나 작용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다 고쳤

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면 그냥 안하면 되고, 못하게 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언젠가 다시 하면 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굳이 거기서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 3: 관계를 닫아버린 마음: 귀찮음의 정서적 기원

시은이는 연구자와 면담 중 “귀찮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또래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피로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무기력이나 태만이 아닌, 아픔 이후에 생겨난 자기방어로 자기 보호막으로 사료된다. 과거 가족의 학대와 상실 경험으로 주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전이 아닌 위협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친구와 자신, 가족까지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룹홈으로 오면서 버려졌다는 유기의 경험으로 애착손상으로 반복적인 관계를 회피하고 신뢰를 보류하게 된다. 특히 ‘절대 안 믿어요’라는 말은 실망, 배신, 학대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표현이다. 이 ‘귀찮음’은 관계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의 다른 이름이다. 마음을 내어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두려운 아이는, 그렇게 감정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운다. 이는 정서적 안전 기반의 상실과 반복적 관계 회피로 나타나며,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과 역할 탐색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네, 혼자가 편해서 애들이랑 있는 게 귀찮아서요. 저는 굳이 애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개네들 말해주는 거 들어줘야 되지. 개네들이랑 게임하면서 말도 해야 되지. 또

그럼 개네들이랑 같이 화내면은 또 같이 화내야 되지. 귀찮아요. 그냥 애들이랑 있는 건 좋은데 그냥 이게 한편으로는 또 싫다는 거지. 그래도 만나자니까 만날 수 있으면 만나죠. 귀찮아도 나가죠. 귀찮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귀찮죠. 전 그 누구도 안 믿어요. 7. 8년 되는 친구도 안 믿어요. 가족도 안 믿습니다.

이야기 4: 공감을 기대하지 않는 아이, 혈연 없는 관계의 한계

시은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과 분리되어 그룹홈에 입소했다. 초기에는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었으나, 외부 활동과 놀이를 통해 비교적 잘 적응했다. 그러나 그룹홈 내에서도 정서적 돌봄보다는 기능적 관리로 보호를 인식하며, 시설장 및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혈연적·정서적 유대가 부재함을 느꼈다. 시은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견디며, 가족을 혈연과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실제 가족이 아니다”라고 인식한다. 새로운 가족과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의’와 같은 상호작용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로 작용한다. 그룹홈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하나”라는 걱정되고 위축도 된다. 큰아빠나 대리양육자한테 혼나면 부끄럽고 쟁피하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했던 습관대로 “자는게 제일 좋아요” 자면서 혼자 속상함을 삭힌다.

가족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굳이 그냥 법적으로만

가족이지 실제로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봐주는 부역과 같은 형식일 뿐이지 그냥 그냥 키워주는구나. 나라에서 키우라고 했으니까

눈치 있고 예의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보여주든 말든 하죠. 예의가 먼저죠. 2번도 예의, 3번도 예의. 아니 지금 예의가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든 말든 하죠. 전 다 예의인데요.

IV. 논의 및 제언

논의

본 연구는 애착외상을 가진 그룹홈 청소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탐구함으로써, 첫째, 애착 외상으로 인해 그룹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애착 외상을 경험한 그룹홈 청소년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유기)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상담 현장에서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개입 및 의미 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참여 청소년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회피·불신·정서적 차단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통해 그룹홈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치료·정책적 개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들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특징되며, 안정감보다 위협과 불안이 중심을 이루었다. 승민이와 시은이는 가족을 보호의 공간이 아닌 통제와 거부의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안전기반의 부재가 이후 대인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였다. 둘째, 자신의 외상 경험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직면하기보다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보호기제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어적 재해석은 애착외상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덮어두어야 할 기억’으로 분류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동시에 감정 접근의 어려움과 정서표현 회피의 기반이 되었다. 셋째, 그룹홈에서의 대인관계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예의·성실함을 유지하지만, 감정적 친밀감은 회피하는 형태를 보였다. 즉, 이들에게 관계는 ‘맺되 깊어지지 않는’, ‘예의, 거리두기, 선 긋기’ 등의 행동으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된 생존 전략이었다. 넷째, 그룹홈은 기본적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서적 돌봄과 신뢰 회복의 기반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기능적으로는 적응했으나, 관계적·정서적 치유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 재형성이 단순히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신뢰 회복·자기 존재 의미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실천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정서적 돌봄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현재 그룹홈의 ‘의식주 중심적 기능적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감정·경험을 수용하는 정서기반 보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룹홈 청소년들은 애착외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자들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함으로 Rogers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고 받을 때 개인은 완전한 인간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해 간다고 하였다(천성문 외, 2024). 이를 위해 생활지도사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애착·트라우마 인식 기반 전문교육 및 상담 체계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2. 애착 회복과 관계 신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집단상담, 관계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인관계 회피와 불신을 완화하고자 한다. 사회적·정서적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그룹홈 청소년들의 아동기 애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 양상을 보다 폭넓게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극(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3), 1-28.
- 김선민, 조순실 (2010).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 연구-빼돌 혹은 빼막한 선으로 그린 우리 집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Vol. 62, No. 1, 2010. 2, pp. 31-53.
- 김성경 (2003).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1호. p117-137.
- 김필성 (2014).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비교고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Vol. 2. No3., pp.83-96.
- 김필성 (2019). 내러티브 탐구 과정의 의미에 대한 고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Vol. 7. No. 2. pp.53~71.
- 김형태, 조순실 (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 연구*, 제16권 제3호. p.259-286
- 김희성 (2022). 상실경험 청소년의 그룹홈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2010, Vol. 7, No. 4, pp.1-26.
-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아동복지 정책과.
- 서보준, 김명자 (2010). 그룹홈 청소년과 일반 가정 청소년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신재은 (2023). 생애초기 애착외상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의 트라우마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주영, 신지현 (2023) 애착외상을 입은 아동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술치료연구 제30권 제2호* p293-314.
- 오순옥 (2019). 아동기 애착외상 경험이 후기청소년기 복합PTSD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에의해 조절된 기질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유기웅, 정원종, 김영석, 김한별 (2024).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 박영스토리*, 서울.(초판 2012).
- 전아름 (2018). 그룹홈 청소년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OUGHOPIA* 33:2.여름. pp.227-261.
- 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24)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4판)*. 서울. 학지사
- 최광현 (2011). 가족희생양 역할을 수행한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트라우마가족치료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향경 제9권 제4호*. p13-21

- 최광현 (2021). 관계의 심리학, 서울, 21세기북스
- 최광현 (2013) 가족의 두얼굴. 서울. 부키
- 홍영숙 (2020).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 8권. 제 3호. pp7~28.
- Allen, J. G. (2019). 애착 정신화하기 인간중심의 상담 (최희철 역). 서울:학지사. (원전 2013년)
- Jan G. Allen. 이문희, 김수임, 이수림 공역, (2020) 애착외상의 발달과 치료. 서울, 박영스토리

<Abstract>

Narrativ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with Attachment Trauma in
Group Homes

Kim, Young Bok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attachment trauma experienced in childhood influe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among adolescents living in group homes. Two participants with over three years of residence were interviewed using narrative inquiry based on Clandinin and Connelly's three-dimensional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ed that early experiences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led to emotional disconnection and distrust in relationships. Although the participants showed avoidance and self-protective behaviors, they also expressed a desire for respect and stabl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within the group home were perceived as functional rather than emotional, limiting the reformation of secure attachment.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resilience through self-control and responsibility.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rauma-informed care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in group homes to promote recovery and healthy relationship building.

Key Words: attachment trauma; group home; adolescents in group hom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arrative inquiry

목차

I. 서론	48
II. 연구방법	50
1. 조사대상	50
2. 조사도구 및 내용	50
3. 조사기간 및 절차	52
4. 자료 분석 방법	52
III. 연구결과	53
1. 개인별 특성	53
2. 가정환경 특성	60
3.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64
4. 진로 및 직업 관련	82
5. 정신건강 영역	86
6. 성인지 감수성 영역	109
7.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116
IV. 요약 및 결론	
1)요약	122
2)결론	127
V. 제언	132
VI. 참고문헌	135
<부 록>	
2025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136
2025학년도 상담센터 활동 보고	144
학생생활연구 논문 투고 규정	150

표 목차

<표 1> 성별 분포	53
<표 2> 연령 분포	54
<표 3> 출신고교 소재지	56
<표 4>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57
<표 5> 본인의 종교	58
<표 6> 가정 경제 수준	60
<표 7> 등록금 부담 예정자	61
<표 8>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62
<표 9> 대학진학의 목적	64
<표 10> 본교 선택의 이유	65
<표 11>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66
<표 12> 본교 입학의 만족도	68
<표 13> 본교 입학의 불만족한 이유	69
<표 14> 불만족 시 앞으로 계획	70
<표 15>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72
<표 16>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	73
<표 17> 다전공 이수용의	75
<표 18>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 원하는 지원	76
<표 19> 교수님에게 기대하는 것	78
<표 20>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	79
<표 21>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	80
<표 22> 졸업 후 진로 계획	82
<표 23>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정 원하는 것	83
<표 24>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84
<표 25> 외로움	86
<표 26> 불안	87
<표 27> 분노	89
<표 28> 우울과 무기력	90
<표 29> 자해 충동	92

<표 30> 자해 충동의 원인	93
<표 31> 자살 충동	95
<표 32> 자살 생각을 하는 이유	96
<표 33>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98
<표 34>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99
<표 35>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과도한 정도	101
<표 36>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02
<표 37> 스마트폰 주된 용도	103
<표 38> 삶의 만족도	105
<표 39> 삶에 대한 기대치	106
<표 40> 행복한 삶의 기준	107
<표 41>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109
<표 4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110
<표 43>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112
<표 44>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113
<표 45>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	114
<표 46>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116
<표 47> 상담센터 이용 여부	117
<표 48>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119
<표 49> 상담받고 싶은 문제	120

202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이훈민²⁾

I. 서론

2024년 12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의 본질적 역할이 변해야 함을 강조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학교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기관으로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학교 교육에서 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은 시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 협업, 자기주도적 학습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인적자원이고, 조직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Barney, 1991).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의 성공적 운용이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Delaney & Huselid, 1996; Ichniowski, C., Shaw & Prennushi, 1994; MacDuffie, 1995; 배종석·사정혜, 2003; 김상표, 2006).

대학조직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조직 역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공선표, 2000; 서인덕·이승환, 2009). 이렇듯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대학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들의 특성 및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대학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을 반영하는 일도 한 가지 방안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 이미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들을 학생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학생 지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세대학교에서도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특성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 본교 신입생들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문화

2) 한세대 상담센터 전임연구원

적 특성 및 그 주변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세대학교에서는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사정책 수립 및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하고 학생상담과 지도에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설문조사는 2025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신입생 중 총 561명이 참여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신입생 566명(정원 내)의 약 99.1%에 해당한다.

2)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2024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입생의 개인별 특성 및 가정환경, 대학 생활 및 학업,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신건강 영역,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관련 문항으로 7개 영역에 걸쳐,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주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별 특성

- | | | |
|---------------|-----------------------|------------|
| (1) 학부 | (2) 성별 | (3) 연령 |
| (4) 출신 고교 소재지 | (5)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연도 | (6) 본인의 종교 |

나. 가정환경 특성

- | | | |
|-------------|----------------|------------------|
| (1) 가정경제 수준 | (2) 등록금 부담 예정자 | (3)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
|-------------|----------------|------------------|

다.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 | | |
|----------------------------------|---------------------|
| (1) 대학 진학의 목적 | (2) 본교 선택 이유 |
|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 (4) 본교 입학에 만족 여부 |
| (5) 본교 입학에 불만족의 이유 | (6) 불만족 시 향후 계획 |
| (7) 전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 |
| (8)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 | (9) 다전공 이수용의 |
| (10) 다전공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내용 | |
| (11) 교수에게서 기대하는 것 | (12)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 |
| (13)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는 것 | |

라. 진로 및 직업 관련

- (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진로분야 선정 여부)
- (2) 취업 관련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
- (3)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마. 정신건강 영역

- | | |
|------------------------------|---------------------|
| (1)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 | (2) 불안을 경험한 정도 |
| (3) 분노를 경험한 정도 | (4) 우울, 무기력을 경험한 정도 |
| (5) 자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6) 자해 충동의 원인 |
| (7)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8) 자살 생각의 이유 |
| (9)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 (10)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
| (11)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과도한지 정도 | |
| (12) 일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 (13)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
| (14) 삶의 만족도 | (15) 삶에 대한 기대치 |
| (16) 행복한 삶의 기준 | |

바. 성인지 감수성 영역

- | | |
|--------------------------|-----------------------------|
| (1)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정도 | (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
| (3)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 (4)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
| (5)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 |

사.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 | | |
|--------------------------|---------------------|
| (1) 심리상담가에게 도움 요청할 의사 여부 | (2) 상담센터를 이용할 의사 여부 |
| (3)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 (4) 상담받고 싶은 문제 |

3) 조사 기간 및 절차

본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일인 2025년 2월 25일에 조사하였으며 이후 2차로 2025년 3월 4일에 학생들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작성 절차는 대면 설문지 배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Raw Data)는 IBM SPSS Statistics 21를 활용하여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개인별 특성

(1) 성별 분포

신입생 전체 응답자 561명의 설문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 참여율은 여학생 62.6%, 남학생 37.4%, 기타 0%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년도 비율(여학생 63.7%, 남학생 36.3%, 기타 0%)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낮아졌고, 남학생의 비율은 높아졌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60.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과(59.3%)와 공공서비스학부(48.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간호학과(83.3%), 자유전공학부(74.6%), 디자인학부(73.1%) 순이었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 명

	남	여	전체
신학과	16 59.3%	11 40.7%	27 100.0%
사회과학부	42 35.9%	75 64.1%	117 100.0%
IT학부	49 60.5%	32 39.5%	81 100.0%
공공서비스학부	26 48.1%	28 51.9%	54 100.0%
간호학과	6 16.7%	30 83.3%	36 100.0%
예술학부	22 34.4%	42 65.6%	64 100.0%
디자인학부	25 26.9%	68 73.1%	93 100.0%
언어학부	10 29.4%	24 70.6%	34 100.0%
자유전공학부	14 25.5%	41 74.5%	55 100.0%
전체	210 37.4%	351 62.6%	5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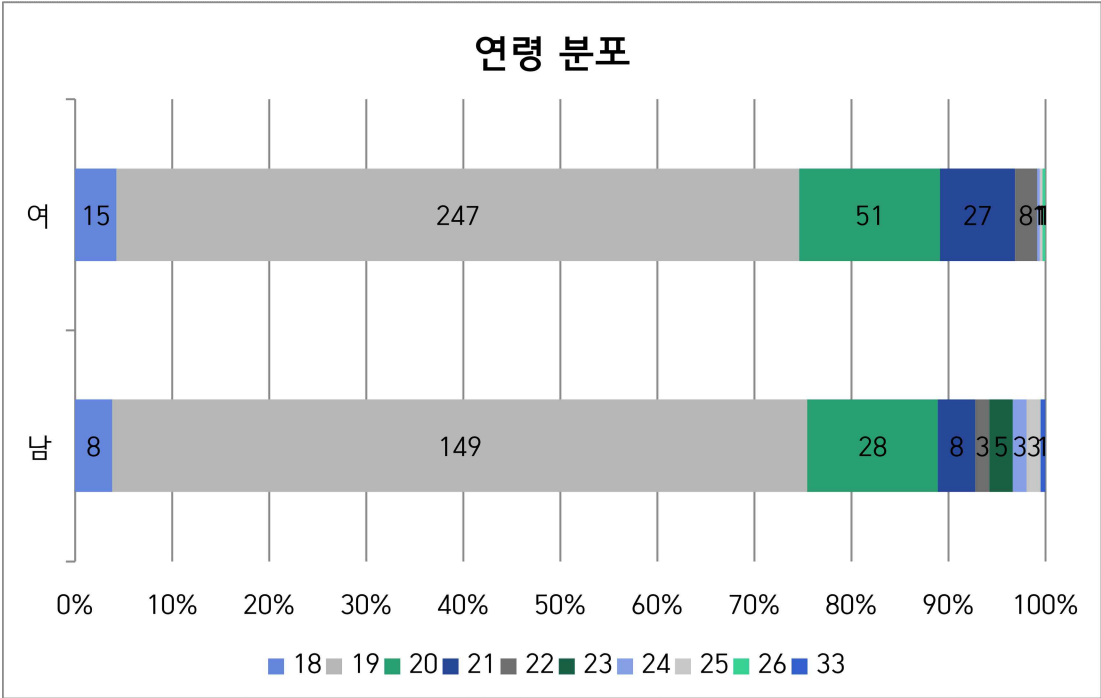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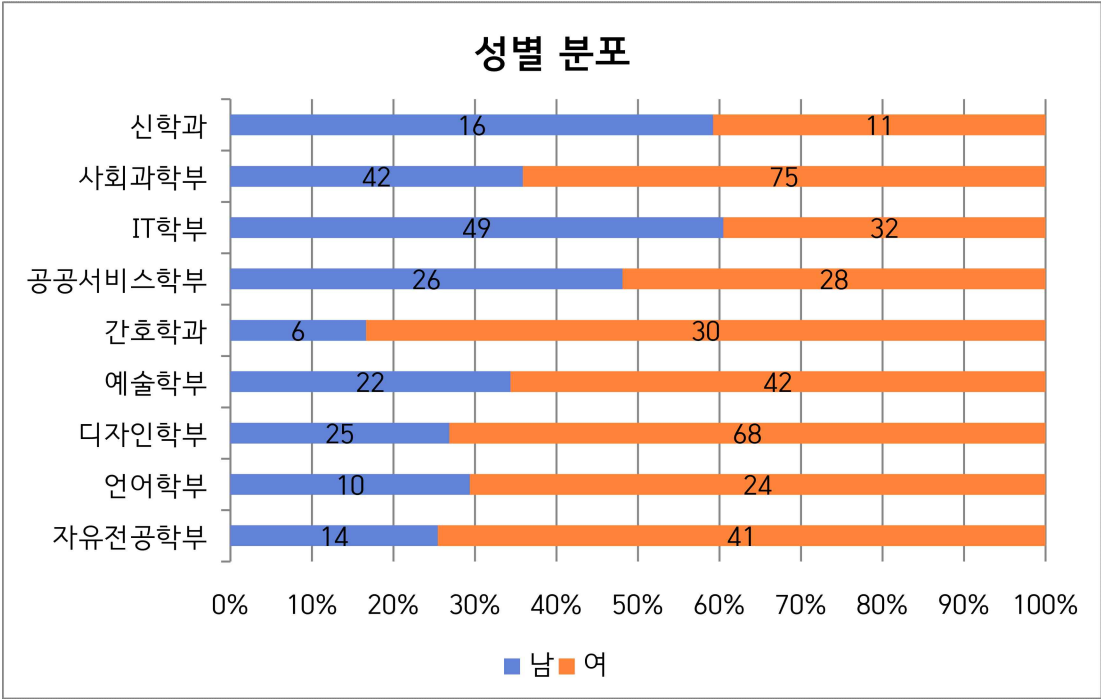
(2) 연령 분포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70.6%)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만 20세(14.1%), 21세(6.1%) 순이며, 기재오류로 인한 학생이 2명 있었다. 만 19세인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83.0%), 언어학부(79.0%), 공공서비스학부(78.0%)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 19세에 해당하는 남학생(70.1%)과 여학생(70.0%)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령 분포

단위: 명

	18	19	20	21	22	23	24	25	26	33	기재 오류	전체
남	8	149	28	8	3	5	3	3	0	1	2	210
	3.8%	71.0%	13.3%	3.8%	1.4%	2.4%	1.4%	1.4%	0.0%	0.5%	1.0%	100.0%
여	15	247	51	27	8	0	1	1	1	0	0	351
	4.3%	70.4%	14.5%	7.7%	2.3%	0.0%	0.3%	0.3%	0.3%	0.0%	0.0%	100.0%
신학과	1	19	2	1	0	0	2	1	0	1	0	27
	3.7%	70.4%	7.4%	3.7%	0.0%	0.0%	7.4%	3.7%	0.0%	3.7%	0.0%	100.0%
사회과학부	7	86	14	7	2	0	0	0	0	0	1	117
	6.0%	73.5%	12.0%	6.0%	1.7%	0.0%	0.0%	0.0%	0.0%	0.0%	0.9%	100.0%
IT학부	5	60	11	4	0	0	1	0	0	0	0	81
	6.2%	74.1%	13.6%	4.9%	0.0%	0.0%	1.2%	0.0%	0.0%	0.0%	0.0%	100.0%
공공서비스 학부	1	42	7	3	1	0	0	0	0	0	0	54
	1.9%	77.8%	13.0%	5.6%	1.9%	0.0%	0.0%	0.0%	0.0%	0.0%	0.0%	100.0%
간호학과	1	30	1	4	0	0	0	0	0	0	0	36
	2.8%	83.3%	2.8%	11.1%	0.0%	0.0%	0.0%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3	35	10	3	5	4	1	3	0	0	0	64
	4.7%	54.7%	15.6%	4.7%	7.8%	6.3%	1.6%	4.7%	0.0%	0.0%	0.0%	100.0%
디자인학부	3	57	21	9	0	1	0	0	1	0	1	93
	3.2%	61.3%	22.6%	9.7%	0.0%	1.1%	0.0%	0.0%	1.1%	0.0%	1.1%	100.0%
언어학부	1	27	3	2	1	0	0	0	0	0	0	34
	2.9%	79.4%	8.8%	5.9%	2.9%	0.0%	0.0%	0.0%	0.0%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1	40	10	2	2	0	0	0	0	0	0	55
	1.8%	72.7%	18.2%	3.6%	3.6%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23	396	79	35	11	5	4	4	1	1	2	561
	4.1%	70.6%	14.1%	6.2%	2.0%	0.9%	0.7%	0.7%	0.2%	0.2%	0.4%	100.0%



(3) 출신고교 소재지

신입생들의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이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서울(23.2%), 대전·충청도(3.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 고교 출신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69.5%, 여학생의 66.7%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지역 출신은 공공서비스학부(83.3%), IT학부(76.5%), 사회과학부(74.4%)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서울 출신은 자유전공학부(30.9%), 디자인학부(28.0%), 예술학부(2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출신고교 소재지

단위: 명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전· 충청도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광주· 전라도	제주도	국외	전체
남	50	146	1	5	5	3	0	0	210
	23.8%	69.5%	0.5%	2.4%	2.4%	1.4%	0.0%	0.0%	100.0%
여	80	234	4	15	11	4	1	2	351
	22.8%	66.7%	1.1%	4.3%	3.1%	1.1%	0.3%	0.6%	100.0%
신학과	6	17	0	3	0	1	0	0	27
	22.2%	63.0%	0.0%	11.1%	0.0%	3.7%	0.0%	0.0%	100.0%
사회 과학부	23	87	1	1	4	1	0	0	117
	19.7%	74.4%	0.9%	0.9%	3.4%	0.9%	0.0%	0.0%	100.0%
IT학부	18	62	0	0	0	1	0	0	81
	22.2%	76.5%	0.0%	0.0%	0.0%	1.2%	0.0%	0.0%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8	45	0	0	0	1	0	0	54
	14.8%	83.3%	0.0%	0.0%	0.0%	1.9%	0.0%	0.0%	100.0%
간호학과	8	24	0	2	0	1	0	1	36
	22.2%	66.7%	0.0%	5.6%	0.0%	2.8%	0.0%	2.8%	100.0%
예술학부	17	31	2	6	6	2	0	0	64
	26.6%	48.4%	3.1%	9.4%	9.4%	3.1%	0.0%	0.0%	100.0%
디자인 학부	26	54	1	6	5	0	0	1	93
	28.0%	58.1%	1.1%	6.5%	5.4%	0.0%	0.0%	1.1%	100.0%
언어학부	7	25	0	1	0	0	1	0	34
	20.6%	73.5%	0.0%	2.9%	0.0%	0.0%	2.9%	0.0%	100.0%
자유전공 학부	17	35	1	1	1	0	0	0	55
	30.9%	63.6%	1.8%	1.8%	1.8%	0.0%	0.0%	0.0%	100.0%
전체	130	380	5	20	16	7	1	2	561
	23.2%	67.7%	0.9%	3.6%	2.9%	1.2%	0.2%	0.4%	100.0%

(4)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신입생들의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는 2025년도가 6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24년(20.3%), 2023년(7.3%) 순이다. 2025년도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부(83.3%)가 가장 높았으며, IT학부(74.1%), 언어학부(73.5%)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8.6%, 여학생 67.5%로 나타났다.

<표 4>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단위: 명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이전	전체
남	144	42	10	14	210
	68.6%	20.0%	4.8%	6.7%	100.0%
여	237	72	31	11	351
	67.5%	20.5%	8.8%	3.1%	100.0%
신학과	16	7	0	4	27
	59.3%	25.9%	0.0%	14.8%	100.0%
사회 과학부	78	29	8	2	117
	66.7%	24.8%	6.8%	1.7%	100.0%
IT학부	60	14	6	1	81
	74.1%	17.3%	7.4%	1.2%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38	12	3	1	54
	70.4%	22.2%	5.6%	1.9%	100.0%
간호학과	30	2	4	0	36
	83.3%	5.6%	11.1%	0.0%	100.0%
예술학부	39	10	4	11	64
	60.9%	15.6%	6.3%	17.2%	100.0%
디자인 학부	58	21	12	2	93
	62.4%	22.6%	12.9%	2.2%	100.0%
언어학부	25	6	2	1	34
	73.5%	17.6%	5.9%	2.9%	100.0%
자유전공 학부	37	13	2	3	55
	67.3%	23.6%	3.6%	5.5%	100.0%
전체	381	114	41	25	561
	67.9%	20.3%	7.3%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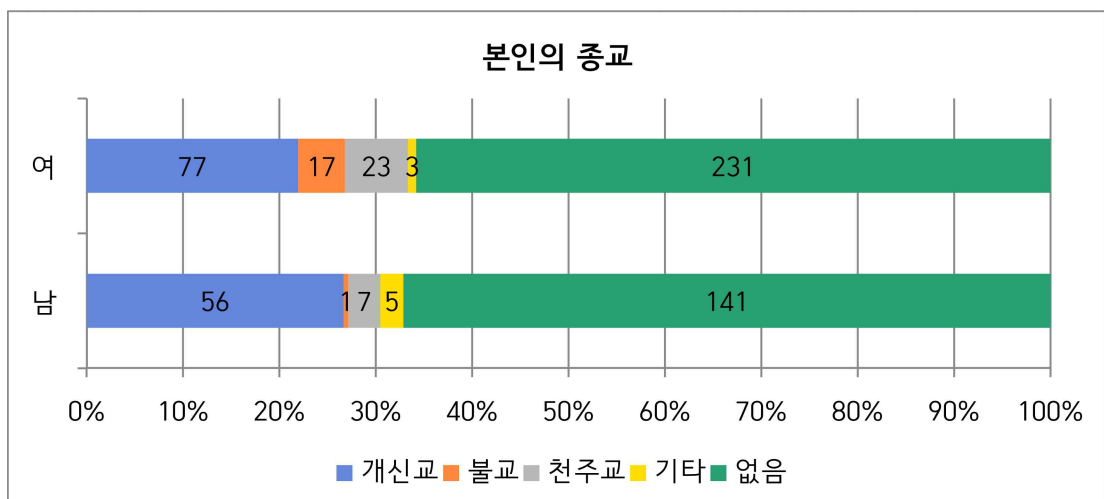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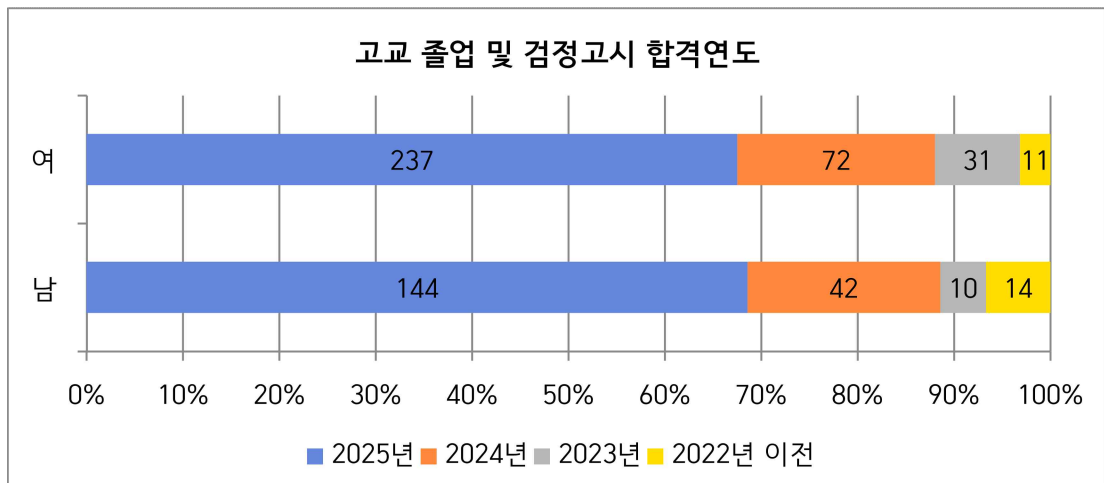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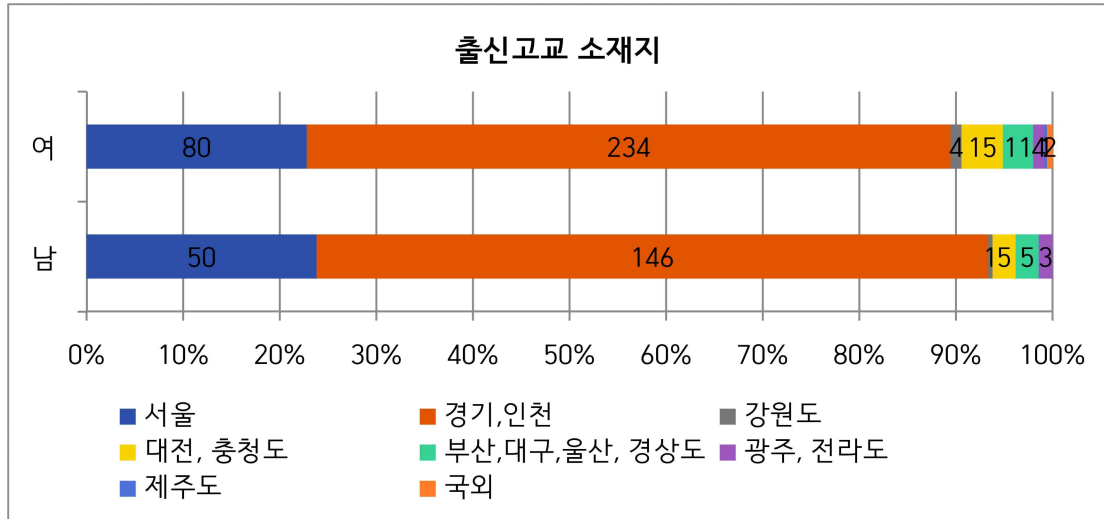
(5)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없음의 응답 비율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개신교(23.7%), 천주교(5.3%)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의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7.1%, 여학생 65.8%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공공서비스학부(77.8%)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부(76.1%), IT학부(75.3%)의 응답을 보였다. 신학과생의 77.8%, 예술학부생의 35.9%는 개신교라고 응답하였다.

<표 5> 본인의 종교

단위: 명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전체
남	56	1	7	5	141	210
	26.7%	0.5%	3.3%	2.4%	67.1%	100.0%
여	77	17	23	3	231	351
	21.9%	4.8%	6.6%	0.9%	65.8%	100.0%
신학과	21	0	1	0	5	27
	77.8%	0.0%	3.7%	0.0%	18.5%	100.0%
사회 과학부	16	7	4	1	89	117
	13.7%	6.0%	3.4%	0.9%	76.1%	100.0%
IT학부	14	1	4	1	61	81
	17.3%	1.2%	4.9%	1.2%	75.3%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9	2	1	0	42	54
	16.7%	3.7%	1.9%	0.0%	77.8%	100.0%
간호학과	7	1	1	0	27	36
	19.4%	2.8%	2.8%	0.0%	75.0%	100.0%
예술학부	23	1	9	2	29	64
	35.9%	1.6%	14.1%	3.1%	45.3%	100.0%
디자인 학부	20	3	3	0	67	93
	21.5%	3.2%	3.2%	0.0%	72.0%	100.0%
언어학부	8	2	4	2	18	34
	23.5%	5.9%	11.8%	5.9%	52.9%	100.0%
자유전공 학부	15	1	3	2	34	55
	27.3%	1.8%	5.5%	3.6%	61.8%	100.0%
전체	133	18	30	8	372	561
	23.7%	3.2%	5.3%	1.4%	66.3%	100.0%



2) 가정환경 특성

(1) 가정경제 수준

신입생들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좋음(23.2%), 곤란(5.7%) 순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5.7%, 여학생 66.4%가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IT학부(70.4%)가 가장 높았으며, 간호학과(69.4%), 자유전공학부(69.1%)로 나타났다.

<표 6> 가정 경제 수준

단위: 명

	매우 곤란	곤란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전체
남	1	9	138	50	12	210
	0.5%	4.3%	65.7%	23.8%	5.7%	100.0%
여	3	23	233	80	12	351
	0.9%	6.6%	66.4%	22.8%	3.4%	100.0%
신학과	1	2	15	9	0	27
	3.7%	7.4%	55.6%	33.3%	0.0%	100.0%
사회과학부	0	7	74	30	6	117
	0.0%	6.0%	63.2%	25.6%	5.1%	100.0%
IT학부	0	8	57	14	2	81
	0.0%	9.9%	70.4%	17.3%	2.5%	100.0%
공공서비스학부	0	2	36	11	5	54
	0.0%	3.7%	66.7%	20.4%	9.3%	100.0%
간호학과	0	0	25	9	2	36
	0.0%	0.0%	69.4%	25.0%	5.6%	100.0%
예술학부	1	3	42	16	2	64
	1.6%	4.7%	65.6%	25.0%	3.1%	100.0%
디자인학부	1	2	64	24	2	93
	1.1%	2.2%	68.8%	25.8%	2.2%	100.0%
언어학부	0	4	20	9	1	34
	0.0%	11.8%	58.8%	26.5%	2.9%	100.0%
자유전공학부	1	4	38	8	4	55
	1.8%	7.3%	69.1%	14.5%	7.3%	100.0%
전체	4	32	371	130	24	561
	0.7%	5.7%	66.1%	23.2%	4.3%	100.0%

(2) 등록금 부담 예정자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 예정자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85.9%가 부모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은 장학금(4.8%), 대출(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87.5%, 남학생 83.3%가 부모님이 등록금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부모라는 응답 비율을 보면 공공서비스학부(90.7%), 사회과학부(89.7%), IT학부(88.9%)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등록금 부담 예정자

단위: 명

	부모	조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	전체
남	175	4	0	1	8	10	9	3	210
	83.3%	1.9%	0.0%	0.5%	3.8%	4.8%	4.3%	1.4%	100.0%
여	307	4	1	1	2	11	18	7	351
	87.5%	1.1%	0.3%	0.3%	0.6%	3.1%	5.1%	2.0%	100.0%
신학과	20	0	0	0	2	0	4	1	27
	74.1%	0.0%	0.0%	0.0%	7.4%	0.0%	14.8%	3.7%	100.0%
사회과학부	105	2	0	1	1	3	4	1	117
	89.7%	1.7%	0.0%	0.9%	0.9%	2.6%	3.4%	0.9%	100.0%
IT학부	72	1	0	0	1	5	2	0	81
	88.9%	1.2%	0.0%	0.0%	1.2%	6.2%	2.5%	0.0%	100.0%
공공서비스 학부	49	0	0	0	1	2	2	0	54
	90.7%	0.0%	0.0%	0.0%	1.9%	3.7%	3.7%	0.0%	100.0%
간호학과	28	2	0	0	0	2	3	1	36
	77.8%	5.6%	0.0%	0.0%	0.0%	5.6%	8.3%	2.8%	100.0%
예술학부	52	1	0	1	2	2	5	1	64
	81.3%	1.6%	0.0%	1.6%	3.1%	3.1%	7.8%	1.6%	100.0%
디자인학부	81	1	1	0	1	4	2	3	93
	87.1%	1.1%	1.1%	0.0%	1.1%	4.3%	2.2%	3.2%	100.0%
언어학부	27	0	0	0	2	1	3	1	34
	79.4%	0.0%	0.0%	0.0%	5.9%	2.9%	8.8%	2.9%	100.0%
자유전공 학부	48	1	0	0	0	2	2	2	55
	87.3%	1.8%	0.0%	0.0%	0.0%	3.6%	3.6%	3.6%	100.0%
전체	482	8	1	2	10	21	27	10	561
	85.9%	1.4%	0.2%	0.4%	1.8%	3.7%	4.8%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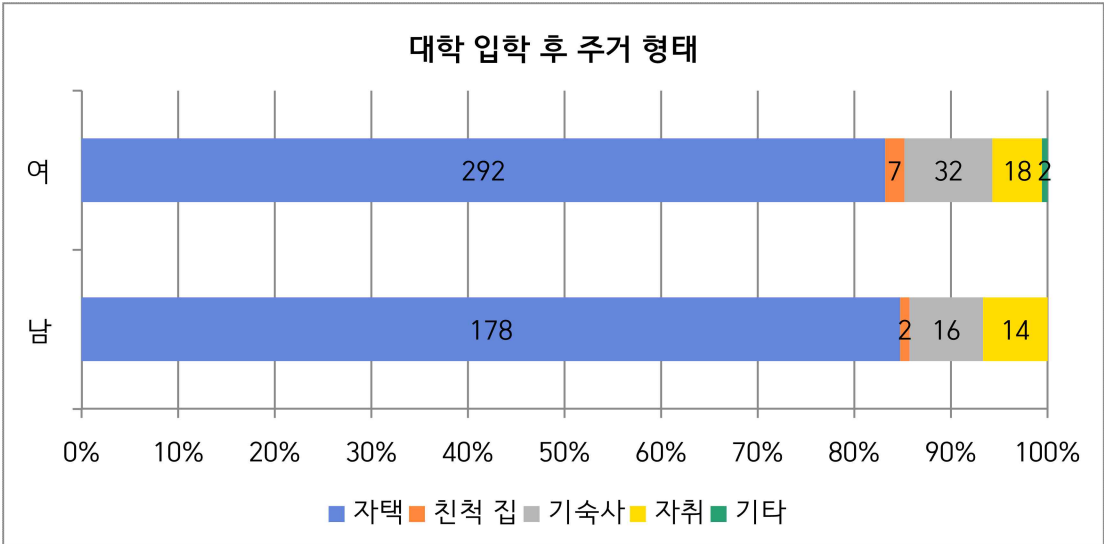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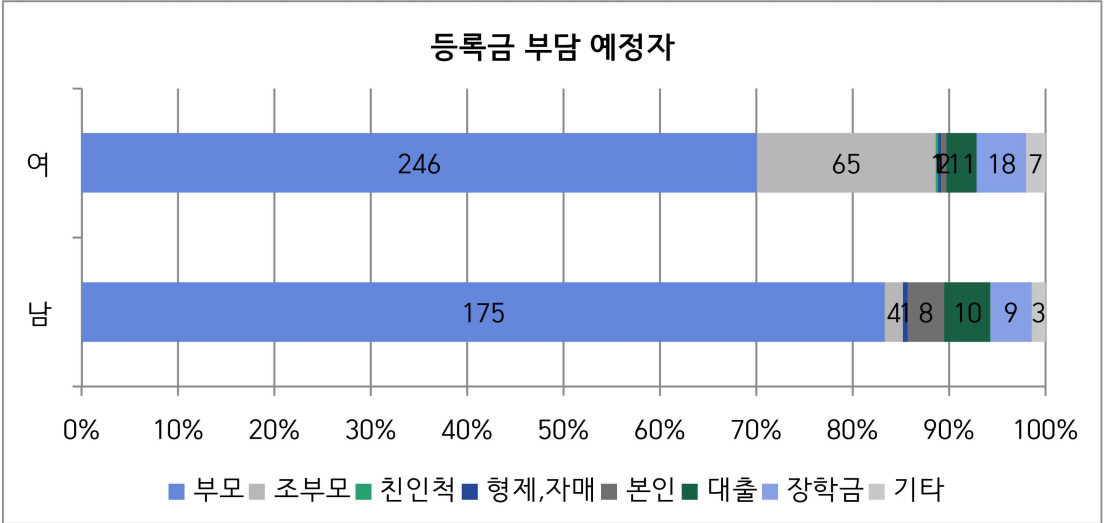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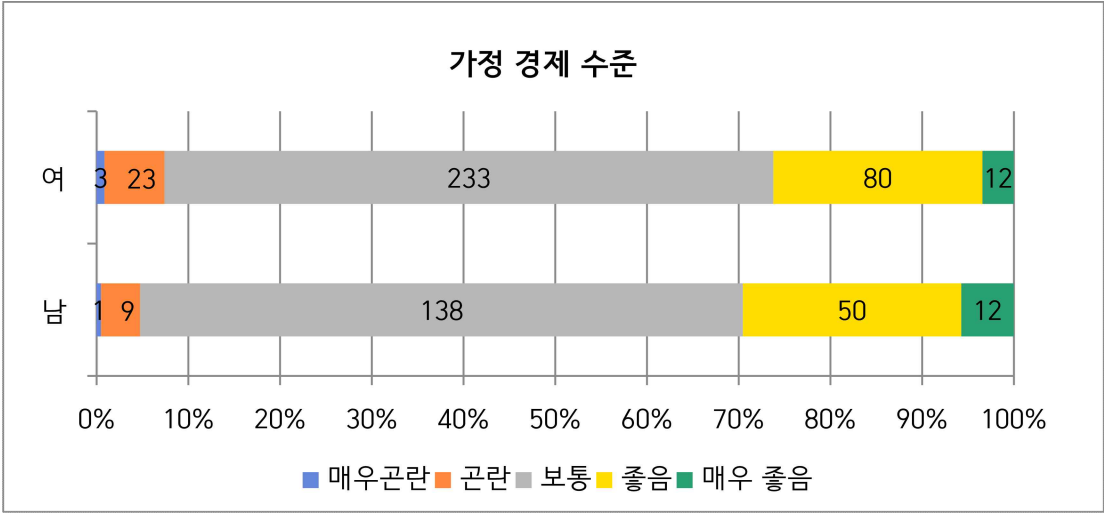
(3) 대학 입학 후 주거 형태

신입생들의 주거 형태를 알아보면, 자택이 전체의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숙사(8.6%), 자취(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84.8%, 여학생 83.7%로 여학생 남학생 모두 자택 주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93.8%), 공공서비스학부(92.6%), 자유전공학부(8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취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예술학부(20.3%), 신학과(15.4%), 디자인학부(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단위: 명

	자택	친척 집	기숙사	자취	하숙	기타	전체
남	178	2	16	14	0	0	210
	84.8%	1.0%	7.6%	6.7%	0.0%	0.0%	100.0%
여	292	7	32	18	0	2	349
	83.7%	2.0%	9.2%	5.2%	0.0%	0.6%	100.0%
신학과	20	0	2	4	0	1	26
	76.9%	0.0%	7.7%	15.4%	0.0%	3.8%	100.0%
사회과학부	99	3	10	5	0	0	117
	84.6%	2.6%	8.5%	4.3%	0.0%	0.0%	100.0%
IT학부	76	1	2	2	0	0	81
	93.8%	1.2%	2.5%	2.5%	0.0%	0.0%	100.0%
공공서비스학부	50	1	2	1	0	0	54
	92.6%	1.9%	3.7%	1.9%	0.0%	0.0%	100.0%
간호학과	29	1	4	1	0	1	35
	82.9%	2.9%	11.4%	2.9%	0.0%	2.9%	100.0%
예술학부	39	2	10	13	0	0	64
	60.9%	3.1%	15.6%	20.3%	0.0%	0.0%	100.0%
디자인학부	78	1	9	5	0	0	93
	83.9%	1.1%	9.7%	5.4%	0.0%	0.0%	100.0%
언어학부	30	0	4	0	0	0	34
	88.2%	0.0%	11.8%	0.0%	0.0%	0.0%	100.0%
자유전공학부	49	0	5	1	0	0	55
	89.1%	0.0%	9.1%	1.8%	0.0%	0.0%	100.0%
전체	470	9	48	32	0	2	559
	84.1%	1.6%	8.6%	5.7%	0.0%	0.4%	100.0%



3)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1) 대학 진학 목적

신입생들의 대학 진학 목적을 살펴보면, 전문지식습득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학 생활을 경험(20.1%), 유망한 직종 취업(1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47.8%, 여학생 53.6%로 남녀 모두 전문지식습득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지식습득에 대하여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76.7%), 공공서비스학부(58.8%), 신학과(5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 진학의 목적

단위: 명

	전문 지식 습득	사회적 지위 확보	유망한 직종 취업	적성과 소질 개발	부모 권유	타인들 도 진학 하기에	대학 생활 경험	국가, 사회 봉사	기타	전체
남	96	6	26	0	5	13	44	1	10	201
	47.8%	3.0%	12.9%	0.0%	2.5%	6.5%	21.9%	0.5%	5.0%	100.0%
여	172	21	51	0	3	12	61	0	1	321
	53.6%	6.5%	15.9%	0.0%	0.9%	3.7%	19.0%	0.0%	0.3%	100.0%
신학과	13	0	1	0	1	0	3	1	4	23
	56.5%	0.0%	4.3%	0.0%	4.3%	0.0%	13.0%	4.3%	17.4%	100.0%
사회 과학부	46	8	14	0	2	7	32	0	3	112
	41.1%	7.1%	12.5%	0.0%	1.8%	6.3%	28.6%	0.0%	2.7%	100.0%
IT학부	33	3	15	0	1	6	17	0	2	77
	42.9%	3.9%	19.5%	0.0%	1.3%	7.8%	22.1%	0.0%	2.6%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30	3	7	0	1	4	6	0	0	51
	58.8%	5.9%	13.7%	0.0%	2.0%	7.8%	11.8%	0.0%	0.0%	100.0%
간호학과	16	1	15	0	1	1	0	0	0	34
	47.1%	2.9%	44.1%	0.0%	2.9%	2.9%	0.0%	0.0%	0.0%	100.0%
예술학부	46	0	5	0	0	0	8	0	1	60
	76.7%	0.0%	8.3%	0.0%	0.0%	0.0%	13.3%	0.0%	1.7%	100.0%
디자인 학부	48	5	12	0	1	2	17	0	1	86
	55.8%	5.8%	14.0%	0.0%	1.2%	2.3%	19.8%	0.0%	1.2%	100.0%
언어학부	16	1	3	0	1	2	8	0	0	31
	51.6%	3.2%	9.7%	0.0%	3.2%	6.5%	25.8%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20	6	5	0	0	3	14	0	0	48
	41.7%	12.5%	10.4%	0.0%	0.0%	6.3%	29.2%	0.0%	0.0%	100.0%
전체	268	27	77	0	8	25	105	1	11	522
	51.3%	5.2%	14.8%	0.0%	1.5%	4.8%	20.1%	0.2%	2.1%	100.0%

(2) 본교 선택 이유

신입생들이 본교 선택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합격 가능성이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기타(10.0%), 취업 가능성(8.6%)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 가능성이란 응답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65.8%, 남학생의 58.1%로 남녀 모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자유전공학부(81.8%), 사회과학부(76.1%), 디자인학부(6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본교 선택 이유

단위: 명

	합격 가능성	경제 사정	주위 사람들의 추천	취업 가능성	대학의 발전 가능성	유능한 교수진	학구적 분위기	기타	전체
남	122	0	26	16	12	10	6	18	210
	58.1%	0.0%	12.4%	7.6%	5.7%	4.8%	2.9%	8.6%	100.0%
여	231	1	20	32	8	13	8	38	351
	65.8%	0.3%	5.7%	9.1%	2.3%	3.7%	2.3%	10.8%	100.0%
신학과	10	0	6	0	0	0	3	8	27
	37.0%	0.0%	22.2%	0.0%	0.0%	0.0%	11.1%	29.6%	100.0%
사회과학부	89	0	1	7	5	0	0	15	117
	76.1%	0.0%	0.9%	6.0%	4.3%	0.0%	0.0%	12.8%	100.0%
IT학부	54	0	6	8	4	3	1	5	81
	66.7%	0.0%	7.4%	9.9%	4.9%	3.7%	1.2%	6.2%	100.0%
공공서비스 학부	27	0	3	6	3	5	3	7	54
	50.0%	0.0%	5.6%	11.1%	5.6%	9.3%	5.6%	13.0%	100.0%
간호학과	22	0	3	6	1	1	0	3	36
	61.1%	0.0%	8.3%	16.7%	2.8%	2.8%	0.0%	8.3%	100.0%
예술학부	19	0	15	3	6	12	6	3	64
	29.7%	0.0%	23.4%	4.7%	9.4%	18.8%	9.4%	4.7%	100.0%
디자인학부	64	0	3	12	0	1	1	12	93
	68.8%	0.0%	3.2%	12.9%	0.0%	1.1%	1.1%	12.9%	100.0%
언어학부	23	1	5	2	1	0	0	2	34
	67.6%	2.9%	14.7%	5.9%	2.9%	0.0%	0.0%	5.9%	100.0%
자유전공 학부	45	0	4	4	0	1	0	1	55
	81.8%	0.0%	7.3%	7.3%	0.0%	1.8%	0.0%	1.8%	100.0%
전체	353	1	46	48	20	23	14	56	561
	62.9%	0.2%	8.2%	8.6%	3.6%	4.1%	2.5%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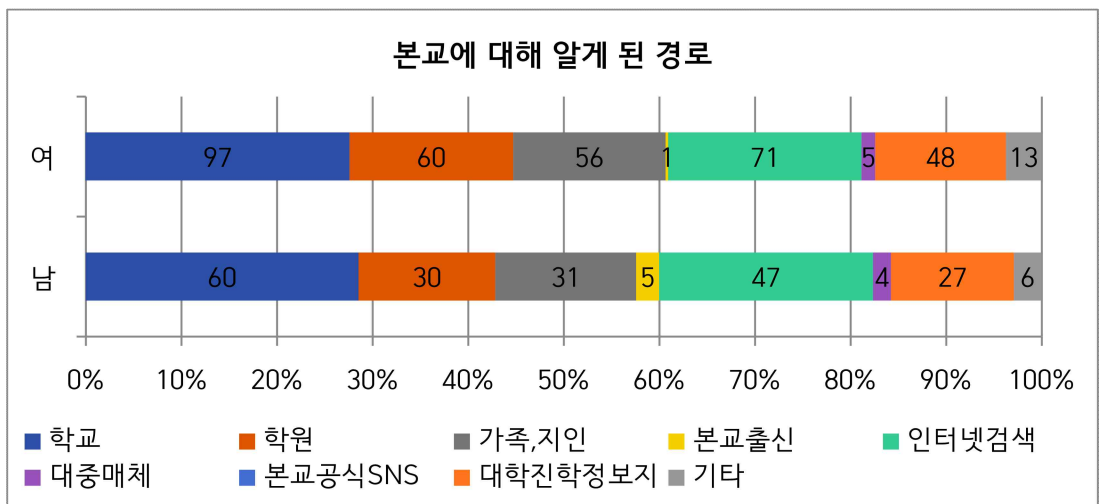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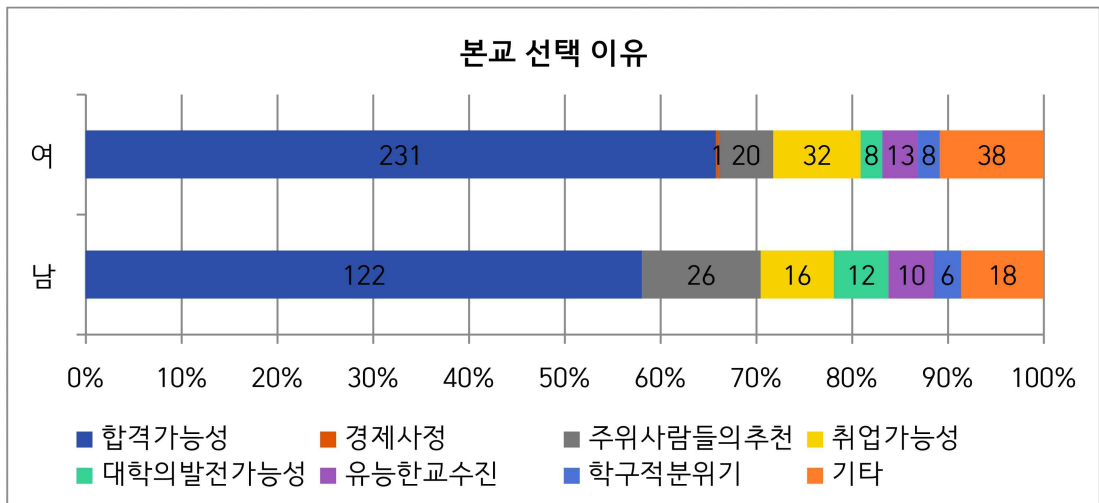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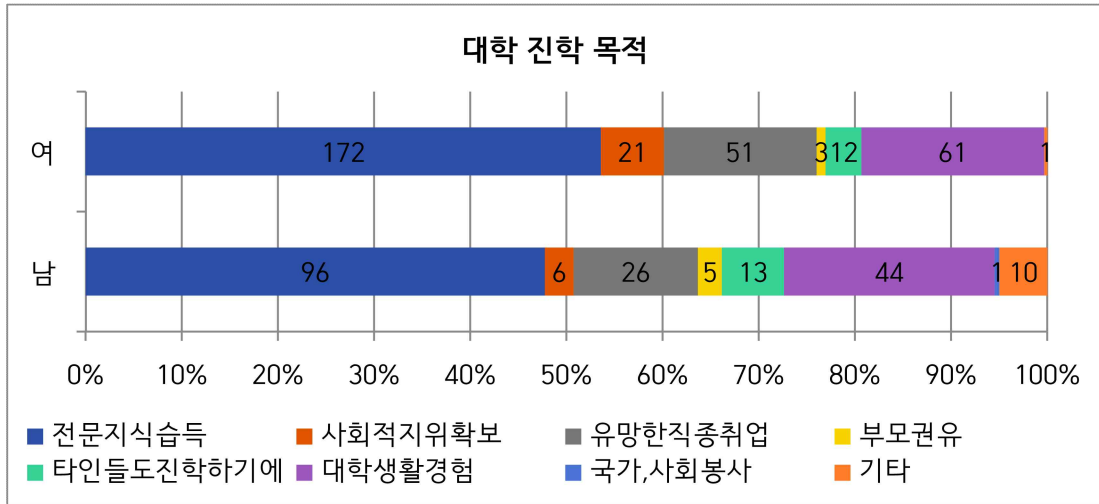
(3)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신입생이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학교(28.0%), 인터넷 검색(21.0%), 학원(16.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28.6%, 여학생 27.6%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IT학부(49.4%), 자유전공학부(40.0%), 공공서비스학부(38.9%)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학원이라고 답한 경우 디자인학부의 경우 58.1%, 예술학부는 39.1%라고 응답하였고, 가족·지인의 경우 언어학부 35.3%, 신학과 33.3%, 예술학부 32.8% 순으로 특이점을 보였다.

<표 11>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학교	학원	가족, 지인	본교 출신	인터넷 검색	대중 매체	본교 공식 SNS	대학 진학 정보지	기타	전체
남	60	30	31	5	47	4	0	27	6	210
	28.6%	14.3%	14.8%	2.4%	22.4%	1.9%	0.0%	12.9%	2.9%	100.0%
여	97	60	56	1	71	5	0	48	13	351
	27.6%	17.1%	16.0%	0.3%	20.2%	1.4%	0.0%	13.7%	3.7%	100.0%
신학과	5	0	9	4	4	0	0	1	4	27
	18.5%	0.0%	33.3%	14.8%	14.8%	0.0%	0.0%	3.7%	14.8%	100.0%
사회과학부	40	7	14	1	31	3	0	16	5	117
	34.2%	6.0%	12.0%	0.9%	26.5%	2.6%	0.0%	13.7%	4.3%	100.0%
IT학부	40	0	8	0	12	3	0	17	1	81
	49.4%	0.0%	9.9%	0.0%	14.8%	3.7%	0.0%	21.0%	1.2%	100.0%
공공서비스학부	21	0	5	0	20	1	0	7	0	54
	38.9%	0.0%	9.3%	0.0%	37.0%	1.9%	0.0%	13.0%	0.0%	100.0%
간호학과	10	2	6	0	10	0	0	8	0	36
	27.8%	5.6%	16.7%	0.0%	27.8%	0.0%	0.0%	22.2%	0.0%	100.0%
예술학부	8	25	21	1	3	2	0	0	4	64
	12.5%	39.1%	32.8%	1.6%	4.7%	3.1%	0.0%	0.0%	6.3%	100.0%
디자인학부	3	54	4	0	19	0	0	10	3	93
	3.2%	58.1%	4.3%	0.0%	20.4%	0.0%	0.0%	10.8%	3.2%	100.0%
언어학부	8	0	12	0	9	0	0	5	0	34
	23.5%	0.0%	35.3%	0.0%	26.5%	0.0%	0.0%	14.7%	0.0%	100.0%
자유전공학부	22	2	8	0	10	0	0	11	2	55
	40.0%	3.6%	14.5%	0.0%	18.2%	0.0%	0.0%	20.0%	3.6%	100.0%
전체	157	90	87	6	118	9	0	75	19	561
	28.0%	16.0%	15.5%	1.1%	21.0%	1.6%	0.0%	13.4%	3.4%	100.0%



(4) 본교 입학의 만족도

본교 입학을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90.9%가 예라고 답변하여 전년도 90.1%와 비슷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91.9%, 여학생 90.3%가 본교 입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예술학부(98.4%), 간호학과(97.2%), 공공서비스학부(94.4%) 순으로 나타났다.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자유전공학부(16.4%)와 IT학부(14.8%)로 나타났다.

<표 12> 본교 입학의 만족도

단위: 명

	예	아니오	전체
남	193	17	210
	91.9%	8.1%	100.0%
여	317	34	351
	90.3%	9.7%	100.0%
신학과	24	3	27
	88.9%	11.1%	100.0%
사회과학부	107	10	117
	91.5%	8.5%	100.0%
IT학부	69	12	81
	85.2%	14.8%	100.0%
공공서비스학부	51	3	54
	94.4%	5.6%	100.0%
간호학과	35	1	36
	97.2%	2.8%	100.0%
예술학부	63	1	64
	98.4%	1.6%	100.0%
디자인학부	83	10	93
	89.2%	10.8%	100.0%
언어학부	32	2	34
	94.1%	5.9%	100.0%
자유전공학부	46	9	55
	83.6%	16.4%	100.0%
전체	510	51	561
	90.9%	9.1%	100.0%

(5) 본교 입학의 불만족 이유

본교 입학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51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62.7%가 원하는 학교 아님이라고 응답하였고, 원하는 학과 아님(17.6%), 기독교 학교(9.8%)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학교 아님 응답을 성별로는 여학생(69.7%), 남학생(52.9%)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언어학부(100.0%), 디자인학부(90.0%), 사회과학부(90.0%) 순이고 202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원하는 학교 아님은 78.8%에서 62.7%로 낮아진 반면, 원하는 학과 아님은 2.4%에서 17.6%로 증가하였다.

<표 13> 본교 입학의 불만족 이유

단위: 명

	원하는 학교 아님	원하는 학과 아님	교육과정 지원 및 장학제도	캠퍼스 분위기 및 시설	기독교 학교	기타	전체
남	9	4	0	2	2	0	17
	52.9%	23.5%	0.0%	11.8%	11.8%	0.0%	100.0%
여	23	5	0	2	3	1	34
	67.6%	14.7%	0.0%	5.9%	8.8%	2.9%	100.0%
신학과	0	3	0	0	0	0	3
	0.0%	100.0%	0.0%	0.0%	0.0%	0.0%	100.0%
사회과학부	9	1	0	0	0	0	10
	90.0%	10.0%	0.0%	0.0%	0.0%	0.0%	100.0%
IT학부	6	2	0	2	2	0	12
	50.0%	16.7%	0.0%	16.7%	16.7%	0.0%	100.0%
공공서비스 학부	2	0	0	1	0	0	3
	66.7%	0.0%	0.0%	33.3%	0.0%	0.0%	100.0%
간호학과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예술학부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100.0%	100.0%
디자인학부	9	0	0	0	1	0	10
	90.0%	0.0%	0.0%	0.0%	10.0%	0.0%	100.0%
언어학부	2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4	3	0	0	2	0	9
	44.4%	33.3%	0.0%	0.0%	22.2%	0.0%	100.0%
전체	32	9	0	4	5	1	51
	62.7%	17.6%	0.0%	7.8%	9.8%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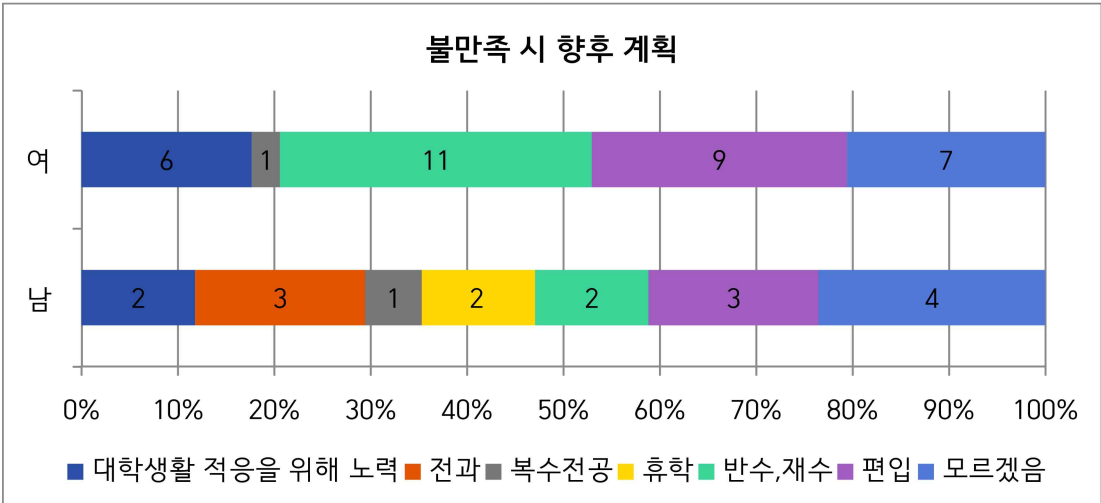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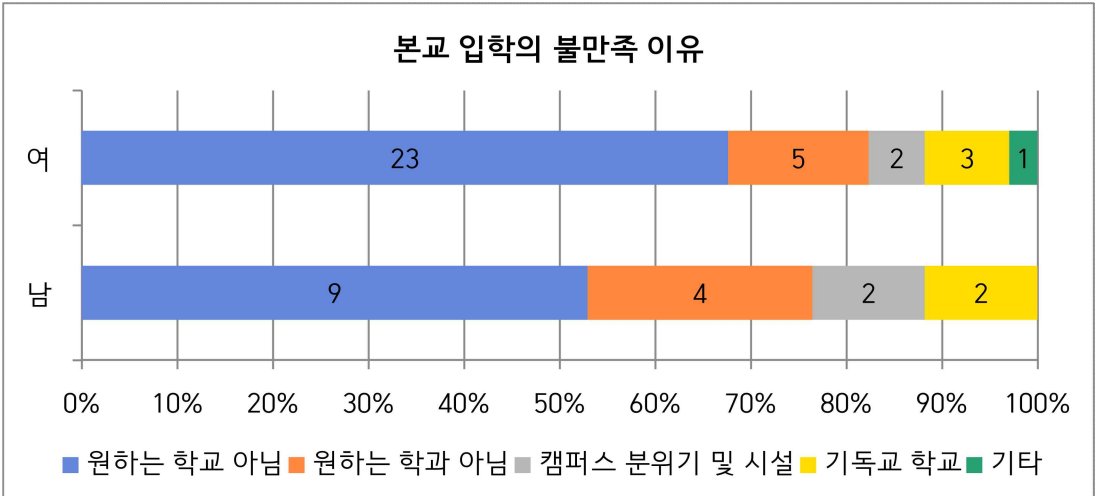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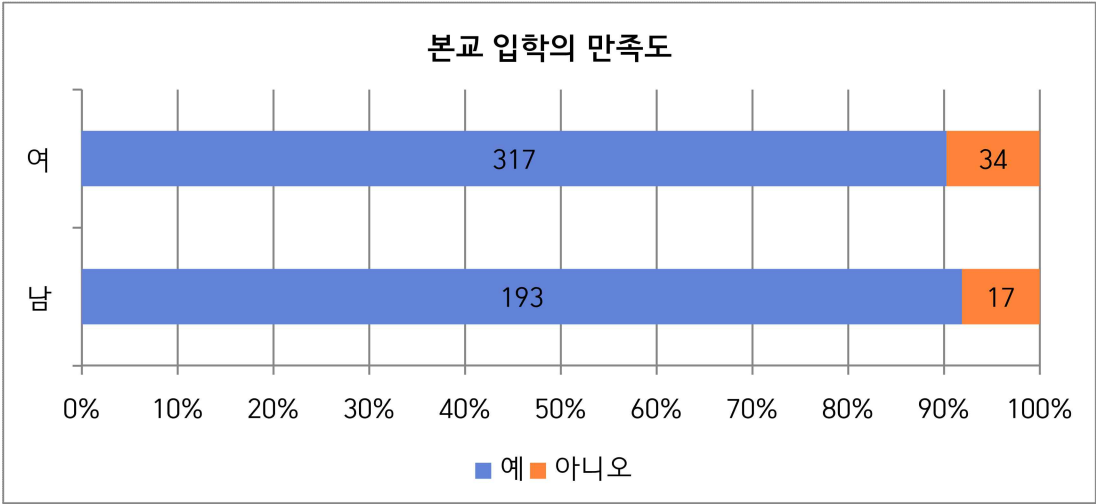
(6) 불만족 시 향후 계획

본교 입학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51명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한 결과, 반수·재수(20.0%), 편입(18.5%), 모르겠음(16.9%) 순으로 나타났다. 반수·재수라고 한 응답을 성별로는 남학생(9.1%), 여학생(25.6%)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100.0%), 언어학부(50.0%), 디자인학부(3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불만족 시 앞으로 계획

단위: 명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	전과	부전공	복수 전공	휴학	반수, 재수	편입	모르 겠음	전체
남	2	3	0	1	2	2	3	4	17
	9.1%	13.6%	0.0%	4.5%	9.1%	9.1%	13.6%	18.2%	100%
여	6	0	0	1	0	11	9	7	34
	14.0%	0.0%	0.0%	2.3%	0.0%	25.6%	20.9%	16.3%	100%
신학과	0	2	0	1	0	0	0	0	3
	0.0%	66.7%	0.0%	33.3%	0.0%	0.0%	0.0%	0.0%	100%
사회과학부	2	1	0	0	0	3	2	2	10
	20.2%	10.0%	0.0%	0.0%	0.0%	30.0%	20.0%	20.0%	100%
IT학부	1	0	0	1	1	3	4	2	12
	8.3%	0.0%	0.0%	8.3%	8.3%	25.0%	33.3%	16.7%	100%
공공서비스 학부	0	0	0	0	1	0	1	1	3
	0.0%	0.0%	0.0%	0.0%	33.3%	0.0%	33.3%	33.3%	100%
간호학과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예술학부	0	0	0	0	0	1	0	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디자인학부	2	0	0	0	0	4	3	1	10
	20.0%	0.0%	0.0%	0.0%	0.0%	40.0%	30.0%	10.0%	100%
언어학부	0	0	0	0	0	1	0	1	2
	0.0%	0.0%	0.0%	0.0%	0.0%	50.0%	0.0%	50.0%	100%
자유전공 학부	3	0	0	0	0	1	2	3	9
	33.3%	0.0%	0.0%	0.0%	0.0%	11.1%	22.2%	33.3%	100%
전체	8	3	0	2	2	13	12	11	51
	15.7%	5.9%	0.0%	3.9%	3.9%	25.5%	23.5%	21.6%	100.0%



(7) 전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학과)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31.0%), 잘 모른다(22.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37.3%, 남학생 34.3%가 전공학부에 대한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해 보통 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회과학부(46.2%), 언어학부(41.2%)와 신학과(4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잘 안다	전체
남	5	61	72	59	13	210
	2.4%	29.0%	34.3%	28.1%	6.2%	100.0%
여	9	66	131	115	30	351
	2.6%	18.8%	37.3%	32.8%	8.5%	100.0%
신학과	1	5	11	7	3	27
	3.7%	18.5%	40.7%	25.9%	11.1%	100.0%
사회과학부	1	24	54	34	4	117
	0.9%	20.5%	46.2%	29.1%	3.4%	100.0%
IT학부	3	28	25	23	2	81
	3.7%	34.6%	30.9%	28.4%	2.5%	100.0%
공공서비스학부	0	9	18	21	6	54
	0.0%	16.7%	33.3%	38.9%	11.1%	100.0%
간호학과	0	7	9	19	1	36
	0.0%	19.4%	25.0%	52.8%	2.8%	100.0%
예술학부	2	9	20	19	14	64
	3.1%	14.1%	31.3%	29.7%	21.9%	100.0%
디자인학부	1	25	35	25	7	93
	1.1%	26.9%	37.6%	26.9%	7.5%	100.0%
언어학부	1	2	14	16	1	34
	2.9%	5.9%	41.2%	47.1%	2.9%	100.0%
자유전공학부	5	18	17	10	5	55
	9.1%	32.7%	30.9%	18.2%	9.1%	100.0%
전체	14	127	203	174	43	561
	2.5%	22.6%	36.2%	31.0%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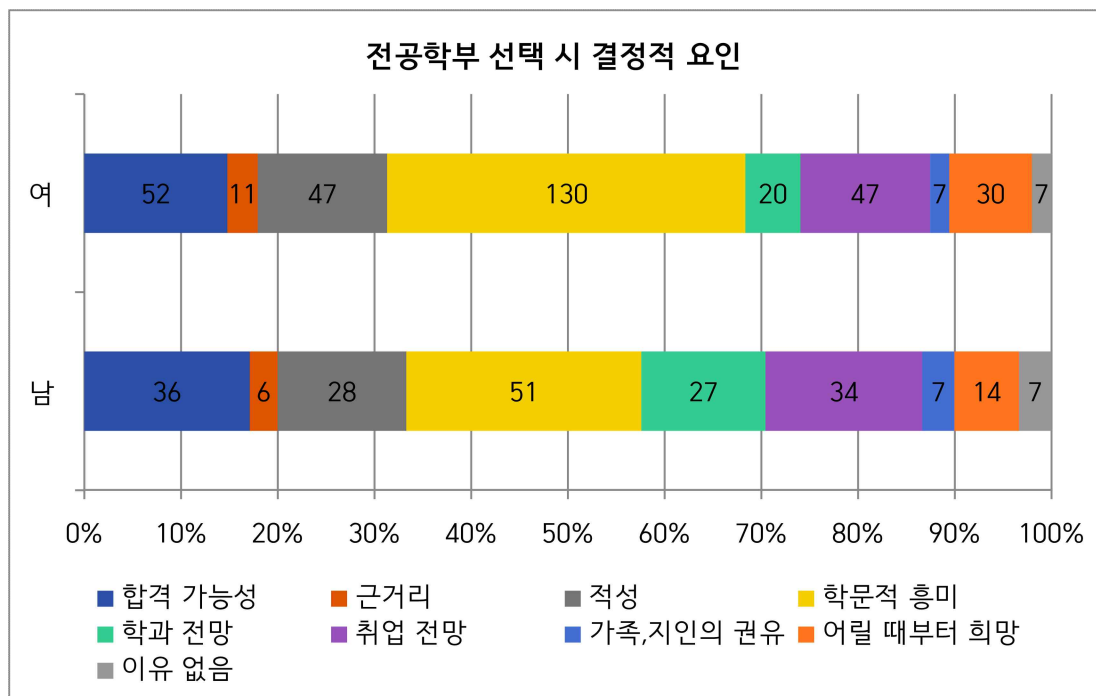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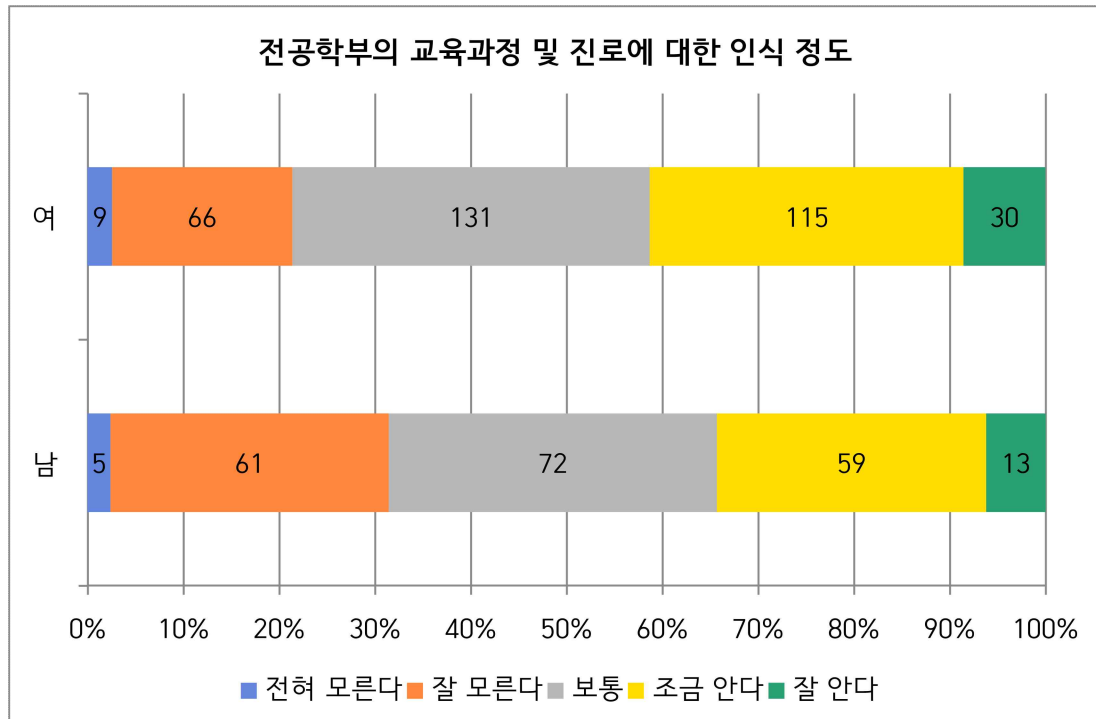
(8)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

신입생들의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32.3%로 학문적 흥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합격 가능성(15.7%), 취업 전망(14.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37.0%), 남학생(24.3%) 모두 학문적 흥미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학부별로 보면 언어학부(50.0%), 공공서비스학부(42.6%), 디자인학부(4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

단위: 명

	합격 가능성	근거리	적성	학문적 흥미	학과 전망	취업 전망	가족, 지인의 권유	어릴 때 부터 희망	이유 없음	전체
남	36	6	28	51	27	34	7	14	7	210
	17.1%	2.9%	13.3%	24.3%	12.9%	16.2%	3.3%	6.7%	3.3%	100.0%
여	52	11	47	130	20	47	7	30	7	351
	14.8%	3.1%	13.4%	37.0%	5.7%	13.4%	2.0%	8.5%	2.0%	100.0%
신학과	6	3	0	7	4	0	3	3	1	27
	22.2%	11.1%	0.0%	25.9%	14.8%	0.0%	11.1%	11.1%	3.7%	100.0%
사회 과학부	19	6	12	41	8	22	1	2	6	117
	16.2%	5.1%	10.3%	35.0%	6.8%	18.8%	0.9%	1.7%	5.1%	100.0%
IT학부	14	2	4	22	7	24	3	4	1	81
	17.3%	2.5%	4.9%	27.2%	8.6%	29.6%	3.7%	4.9%	1.2%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4	2	7	23	4	8	1	5	0	54
	7.4%	3.7%	13.0%	42.6%	7.4%	14.8%	1.9%	9.3%	0.0%	100.0%
간호학과	3	0	2	7	5	15	1	3	0	36
	8.3%	0.0%	5.6%	19.4%	13.9%	41.7%	2.8%	8.3%	0.0%	100.0%
예술학부	9	2	10	15	10	1	1	14	2	64
	14.1%	3.1%	15.6%	23.4%	15.6%	1.6%	1.6%	21.9%	3.1%	100.0%
디자인 학부	7	0	24	38	2	7	1	13	1	93
	7.5%	0.0%	25.8%	40.9%	2.2%	7.5%	1.1%	14.0%	1.1%	100.0%
언어학부	5	1	3	17	1	3	2	0	2	34
	14.7%	2.9%	8.8%	50.0%	2.9%	8.8%	5.9%	0.0%	5.9%	100.0%
자유전공 학부	21	1	13	11	6	1	1	0	1	55
	38.2%	1.8%	23.6%	20.0%	10.9%	1.8%	1.8%	0.0%	1.8%	100.0%
전체	88	17	75	181	47	81	14	44	14	561
	15.7%	3.0%	13.4%	32.3%	8.4%	14.4%	2.5%	7.8%	2.5%	100.0%



(9) 다전공 이수용의

신입생들이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의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4%가 이수할 용의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으며 있다(30.5%), 없다(19.1%)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55.7%, 여학생 47.3%로 나타났다.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61.7%), 디자인학부(60.2%), 신학과(51.9%), 공공서비스학부(5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다전공 이수용의

단위: 명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남	54	39	117	210
	25.7%	18.6%	55.7%	100.0%
여	117	68	166	351
	33.3%	19.4%	47.3%	100.0%
신학과	7	6	14	27
	25.9%	22.2%	51.9%	100.0%
사회 과학부	45	16	56	117
	38.5%	13.7%	47.9%	100.0%
IT학부	21	10	50	81
	25.9%	12.3%	61.7%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14	12	28	54
	25.9%	22.2%	51.9%	100.0%
간호학과	0	23	13	36
	0.0%	63.9%	36.1%	100.0%
예술학부	14	17	33	64
	21.9%	26.6%	51.6%	100.0%
디자인 학부	24	13	56	93
	25.8%	14.0%	60.2%	100.0%
언어학부	16	5	13	34
	47.1%	14.7%	38.2%	100.0%
자유전공 학부	30	5	20	55
	54.5%	9.1%	36.4%	100.0%
전체	171	107	283	561
	30.5%	19.1%	5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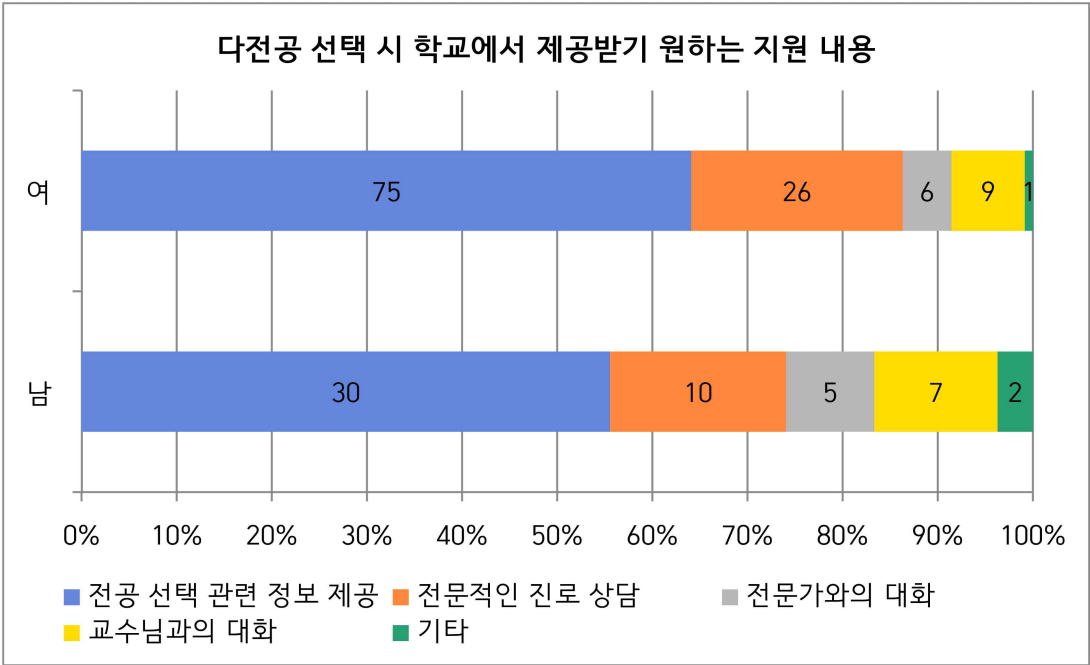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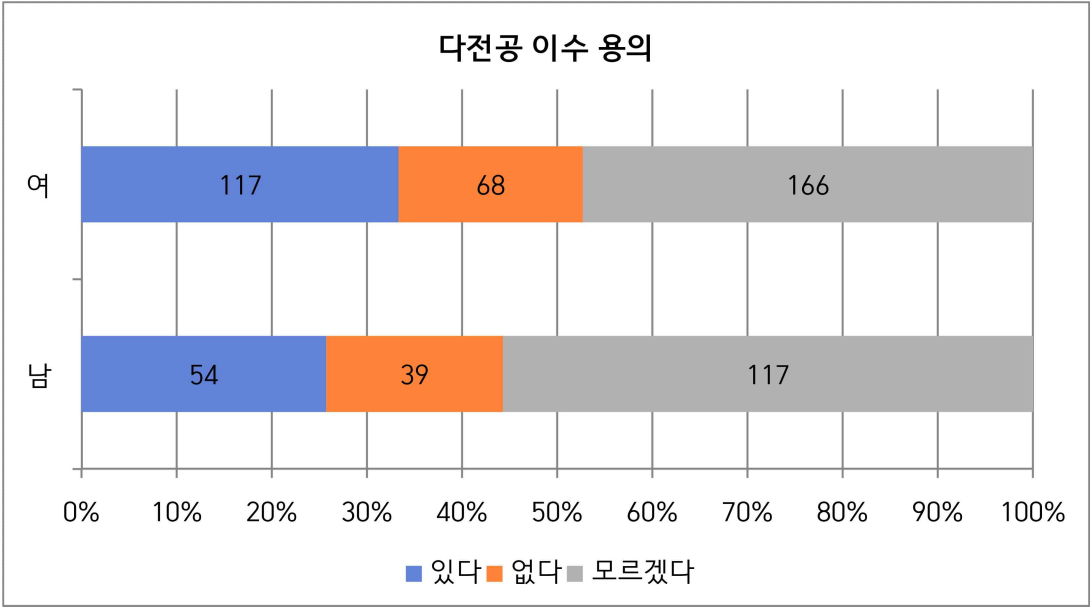
(10) 다전공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 내용

신입생이 전공학과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공선택 관련 정보 제공(61.4%)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적인 진로상담(21.0%), 교수님과의 대화(9.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관련 정보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64.1%, 남학생 55.5%로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언어학부(75.0%), 신학과(71.4%), 사회과학부(7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선택관련정보에 대하여 2024년에는 47.4%에서 2025년도는 61.4%로 증가하였다.

<표 18>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에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

단위: 명

	전공 선택 관련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진로상담	전문가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기타	전체
남	30	10	5	7	2	54
	55.5%	18.5%	9.3%	12.9%	3.7%	100.0%
여	75	26	6	9	1	117
	64.1%	22.2%	5.1%	7.7%	0.9%	100.0%
신학과	5	1	1	0	0	7
	71.4%	14.3%	14.3%	0.0%	0.0%	100.0%
사회과학부	32	10	1	2	0	45
	71.1%	22.2%	2.2%	4.4%	0.0%	100.0%
IT학부	7	6	4	3	2	22
	31.8%	27.3%	18.2%	13.6%	9.1%	100.0%
공공서비스 학부	8	2	2	2	0	14
	57.1%	14.3%	14.3%	14.3%	0.0%	100.0%
간호학과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예술학부	7	2	1	4	0	14
	50.0%	14.3%	7.1%	28.6%	0.0%	100.0%
디자인학부	15	6	1	1	0	23
	62.5%	25.0%	4.2%	4.2%	4.2%	100.0%
언어학부	12	0	0	4	0	16
	75.0%	0.0%	0.0%	25.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19	9	1	0	1	30
	63.3%	30.0%	3.33%	0.0%	3.3%	100.0%
전체	105	36	11	16	3	171
	61.4%	21.0%	6.4%	9.4%	1.8%	100.0%



(11)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전공지식 전달(53.3%)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그다음으로는 인생의 멘토(14.1%), 진로지도(10.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55.6%, 남학생의 49.5%로 남녀 모두 전공지식 전달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63.9%), IT학부(59.3%), 사회과학부(59.0%) 순으로 응답하였다. 24년도 학생에 대한 관심이 3순위였으나 25년도 진로지도가 3순위로 나타났다.

<표 19>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

단위: 명

	전공 지식 전달	진로 지도	품위 있는 태도	깊이 있는 연구	인생의 멘토	학생에 관한 관심	모범 적인 신앙인	기타	전체
남	104	26	13	4	34	22	5	2	210
	49.5%	12.4%	6.2%	1.9%	16.2%	10.5%	2.4%	1.0%	100.0%
여	195	35	23	15	45	31	6	1	351
	55.6%	10.0%	6.6%	4.3%	12.8%	8.8%	1.7%	0.3%	100.0%
신학과	11	1	1	0	3	3	8	0	27
	40.7%	3.7%	3.7%	0.0%	11.1%	11.1%	29.6%	0.0%	100.0%
사회과학부	69	13	8	2	13	10	0	2	117
	59.0%	11.1%	6.8%	1.7%	11.1%	8.5%	0.0%	1.7%	100.0%
IT학부	48	9	6	4	10	4	0	0	81
	59.3%	11.1%	7.4%	4.9%	12.3%	4.9%	0.0%	0.0%	100.0%
공공서비스 학부	27	4	4	1	10	6	2	0	54
	50.0%	7.4%	7.4%	1.9%	18.5%	11.1%	3.7%	0.0%	100.0%
간호학과	23	2	4	2	3	2	0	0	36
	63.9%	5.6%	11.1%	5.6%	8.3%	5.6%	0.0%	0.0%	100.0%
예술학부	25	6	4	4	16	8	1	0	64
	39.1%	9.4%	6.3%	6.3%	25.0%	12.5%	1.6%	0.0%	100.0%
디자인학부	47	18	5	4	9	9	0	1	93
	50.5%	19.4%	5.4%	4.3%	9.7%	9.7%	0.0%	1.1%	100.0%
언어학부	18	3	2	0	5	6	0	0	34
	52.9%	8.8%	5.9%	0.0%	14.7%	17.6%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31	5	2	2	10	5	0	0	55
	56.4%	9.1%	3.6%	3.6%	18.2%	9.1%	0.0%	0.0%	100.0%
전체	299	61	36	19	79	53	11	3	561
	53.3%	10.9%	6.4%	3.4%	14.1%	9.4%	2.0%	0.5%	100.0%

(12)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

신입생들이 대학에 기대하는 경험은 전공 공부(40.8%)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사회경험(13.7%), 취미 및 다양한 활동(1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남학생(41.4%), 여학생(40.5%)로 나타났다. 학부별로는 전공 공부라는 응답비율을 보면 예술학부(68.8%)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신학과(51.9%), 공공서비스학부(46.3%) 순이다. 사회경험은 전년도 8.8%에서 13.7%로 상승하였다.

<표 20>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

단위: 명

	전공 공부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교양 함양	동아리 활동	취미 및 다양한 활동	사회 봉사	사회 경험	폭넓은 인간 관계	이성 교제	전체
남	87	10	21	1	11	22	0	29	24	5	210
	41.4%	4.8%	10.0%	0.5%	5.2%	10.5%	0.0%	13.8%	11.4%	2.4%	100.0%
여	142	11	32	1	25	47	4	48	37	4	351
	40.5%	3.1%	9.1%	0.3%	7.1%	13.4%	1.1%	13.7%	10.5%	1.1%	100.0%
신학과	14	2	1	0	2	4	0	3	1	0	27
	51.9%	7.4%	3.7%	0.0%	7.4%	14.8%	0.0%	11.1%	3.7%	0.0%	100.0%
사회 과학부	32	1	17	0	10	18	1	25	11	2	117
	27.4%	0.9%	14.5%	0.0%	8.5%	15.4%	0.9%	21.4%	9.4%	1.7%	100.0%
IT학부	28	4	9	2	7	6	0	12	12	1	81
	34.6%	4.9%	11.1%	2.5%	8.6%	7.4%	0.0%	14.8%	14.8%	1.2%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25	6	3	0	3	4	0	7	6	0	54
	46.3%	11.1%	5.6%	0.0%	5.6%	7.4%	0.0%	13.0%	11.1%	0.0%	100.0%
간호 학과	12	2	2	0	1	3	3	7	4	2	36
	33.3%	5.6%	5.6%	0.0%	2.8%	8.3%	8.3%	19.4%	11.1%	5.6%	100.0%
예술 학부	44	0	1	0	5	3	0	4	6	1	64
	68.8%	0.0%	1.6%	0.0%	7.8%	4.7%	0.0%	6.3%	9.4%	1.6%	100.0%
디자인 학부	41	4	10	0	3	19	0	8	7	1	93
	44.1%	4.3%	10.8%	0.0%	3.2%	20.4%	0.0%	8.6%	7.5%	1.1%	100.0%
언어 학부	15	1	3	0	3	1	0	4	7	0	34
	44.1%	2.9%	8.8%	0.0%	8.8%	2.9%	0.0%	11.8%	20.6%	0.0%	100.0%
자유 전공 학부	18	1	7	0	2	11	0	7	7	2	55
	32.7%	1.8%	12.7%	0.0%	3.6%	20.0%	0.0%	12.7%	12.7%	3.6%	100.0%
전체	229	21	53	2	36	69	4	77	61	9	561
	40.8%	3.7%	9.4%	0.4%	6.4%	12.3%	0.7%	13.7%	10.9%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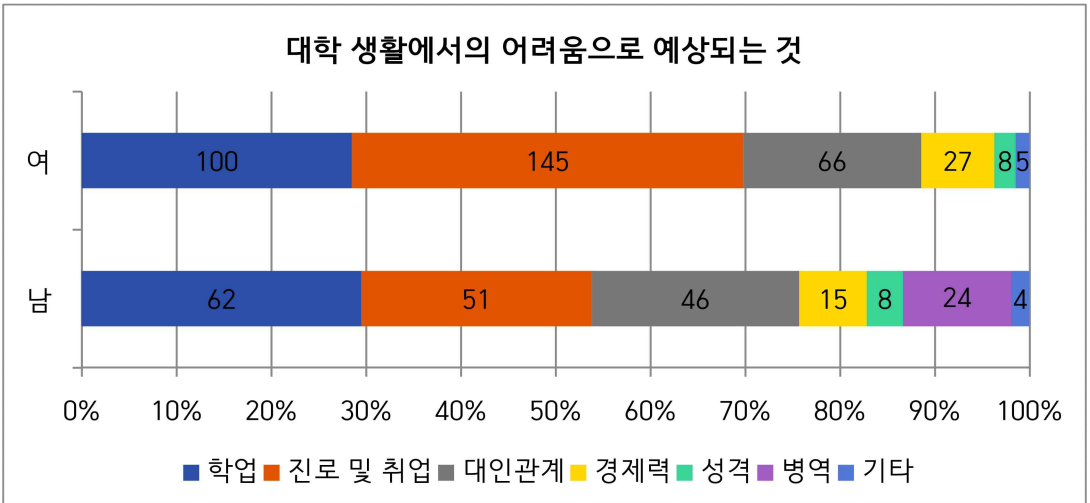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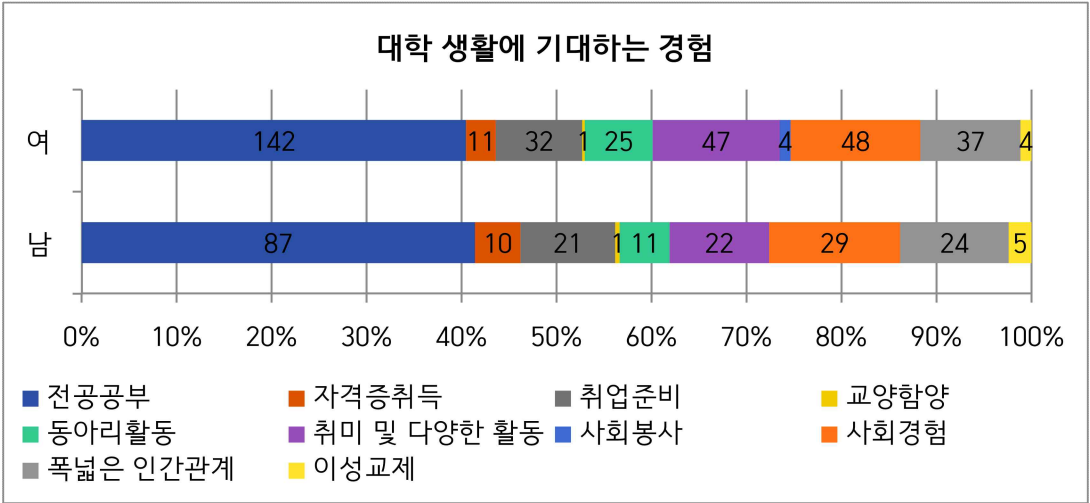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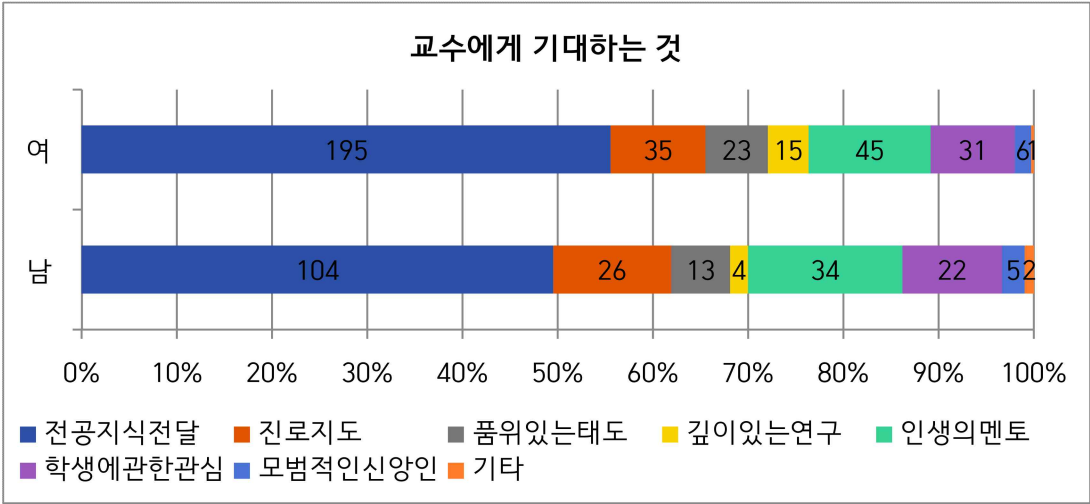
(13)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으로는 진로 및 취업(34.9%), 학업(28.9%), 대인관계(20.0%)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에 따라 여학생(41.3%), 남학생(24.3%)이었으며, 학부별 응답 비율을 보면 자유전공학부(56.4%)가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부(40.2%), IT학부(38.3%)로 나타났다.

<표 21>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

단위: 명

	학업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경제력	성격	병역	기타	전체
남	62	51	46	15	8	24	4	210
	29.5%	24.3%	21.9%	7.1%	3.8%	11.4%	1.9%	100.0%
여	100	145	66	27	8	0	5	351
	28.5%	41.3%	18.8%	7.7%	2.3%	0.0%	1.4%	100.0%
신학과	8	5	6	3	2	2	1	27
	29.6%	18.5%	22.2%	11.1%	7.4%	7.4%	3.7%	100.0%
사회과학부	25	47	24	10	5	6	0	117
	21.4%	40.2%	20.5%	8.5%	4.3%	5.1%	0.0%	100.0%
IT학부	22	31	18	3	3	1	3	81
	27.2%	38.3%	22.2%	3.7%	3.7%	1.2%	3.7%	100.0%
공공서비스 학부	17	10	14	5	0	6	2	54
	31.5%	18.5%	25.9%	9.3%	0.0%	11.1%	3.7%	100.0%
간호학과	19	8	8	1	0	0	0	36
	52.8%	22.2%	22.2%	2.8%	0.0%	0.0%	0.0%	100.0%
예술학부	19	21	11	8	2	3	0	64
	29.7%	32.8%	17.2%	12.5%	3.1%	4.7%	0.0%	100.0%
디자인학부	31	33	13	8	4	2	2	93
	33.3%	35.5%	14.0%	8.6%	4.3%	2.2%	2.0%	100.0%
언어학부	11	10	9	1	0	2	1	34
	32.4%	29.4%	26.5%	2.9%	0.0%	5.9%	2.9%	100.0%
자유전공 학부	10	31	9	3	0	2	0	55
	18.2%	56.4%	16.4%	5.5%	0.0%	3.6%	0.0%	100.0%
전체	162	196	112	42	16	24	9	561
	28.9%	34.9%	20.0%	7.5%	2.9%	4.3%	1.6%	100.0%



4) 진로 및 직업 관련

(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진로분야 선정 여부)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3.0%가 어느 정도 결정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보통이다(28.3%), 거의 결정하지 않았다(2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34.2%), 남학생(31.0%)가 어느 정도 결정했다라고 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부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학부(42.6%), 예술학부(4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졸업 후 진로 계획

단위: 명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	거의 결정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결정했다	확고하게 결정했다	전체
남	10	49	59	65	27	210
	4.8%	23.3%	28.1%	31.0%	12.9%	100.0%
여	23	76	100	120	32	351
	6.6%	21.7%	28.5%	34.2%	9.1%	100.0%
신학과	0	4	11	8	4	27
	0.0%	14.8%	40.7%	29.6%	14.8%	100.0%
사회과학부	12	32	37	31	5	117
	10.3%	27.4%	31.6%	26.5%	4.3%	100.0%
IT학부	8	25	28	15	5	81
	9.9%	30.9%	34.6%	18.5%	6.2%	100.0%
공공서비스 학부	2	12	9	23	8	54
	3.7%	22.2%	16.7%	42.6%	14.8%	100.0%
간호학과	0	1	5	20	10	36
	0.0%	2.8%	13.9%	55.6%	27.8%	100.0%
예술학부	0	9	15	26	14	64
	0.0%	14.1%	23.4%	40.6%	21.9%	100.0%
디자인학부	1	21	27	36	8	93
	1.1%	22.6%	29.0%	38.7%	8.6%	100.0%
언어학부	3	7	11	11	2	34
	8.8%	20.6%	32.4%	32.4%	5.9%	100.0%
자유전공 학부	7	14	16	15	3	55
	12.7%	25.5%	29.1%	27.3%	5.5%	100.0%
전체	33	125	159	185	59	561
	5.9%	22.3%	28.3%	33.0%	10.5%	100.0%

(2) 취업 관련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

신입생들이 취업에 관해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40.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26.9%),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취업 관련 교육(32.5%)은 다소 낮아진 반면 자기이해 도움(14.2%)로 소폭 상승하였다.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43.8%), 여학생(38.2%)로 나타났으며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학과(58.3%), 예술학부(53.1%), 언어학부(4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	진로 관련 자기이해 도움	취업 관련 교육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시설 확충	전체
남	92	35	48	14	21	210
	43.8%	16.7%	22.9%	6.7%	10.0%	100.0%
여	134	58	103	19	37	351
	38.2%	16.5%	29.3%	5.4%	10.5%	100.0%
신학과	6	8	9	1	3	27
	22.2%	29.6%	33.3%	3.7%	11.1%	100.0%
사회과학부	40	20	36	8	13	117
	34.2%	17.1%	30.8%	6.8%	11.1%	100.0%
IT학부	30	16	27	2	6	81
	37.0%	19.8%	33.3%	2.5%	7.4%	100.0%
공공서비스 학부	22	13	9	8	2	54
	40.7%	24.1%	16.7%	14.8%	3.7%	100.0%
간호학과	21	0	10	1	4	36
	58.3%	0.0%	27.8%	2.8%	11.1%	100.0%
예술학부	34	16	4	5	5	64
	53.1%	25.0%	6.3%	7.8%	7.8%	100.0%
디자인학부	39	6	30	4	14	93
	41.9%	6.5%	32.3%	4.3%	15.1%	100.0%
언어학부	15	4	9	0	6	34
	44.1%	11.8%	26.5%	0.0%	17.6%	100.0%
자유전공 학부	19	10	17	4	5	55
	34.5%	18.2%	30.9%	7.3%	9.1%	100.0%
전체	226	93	151	33	58	561
	40.3%	16.6%	26.9%	5.9%	1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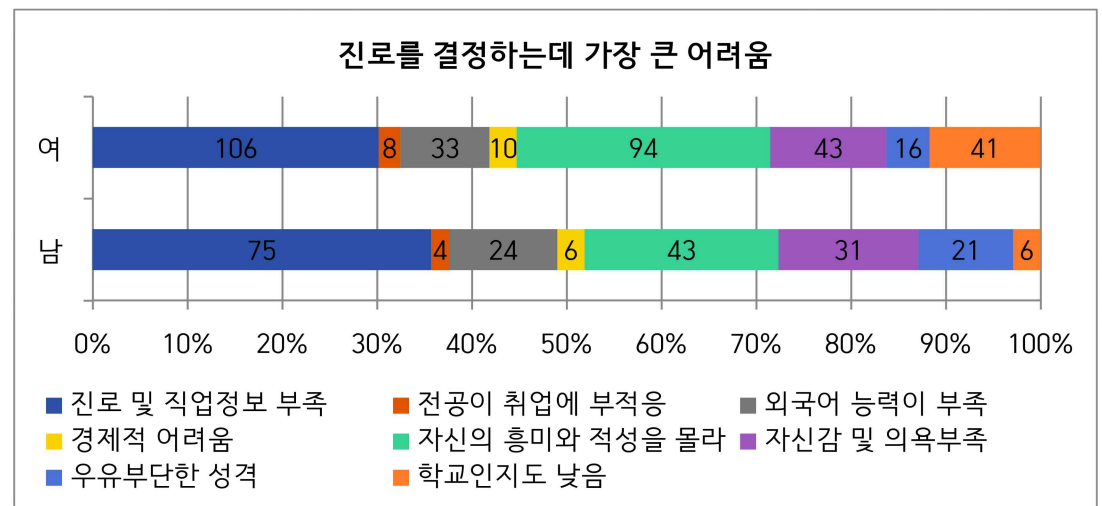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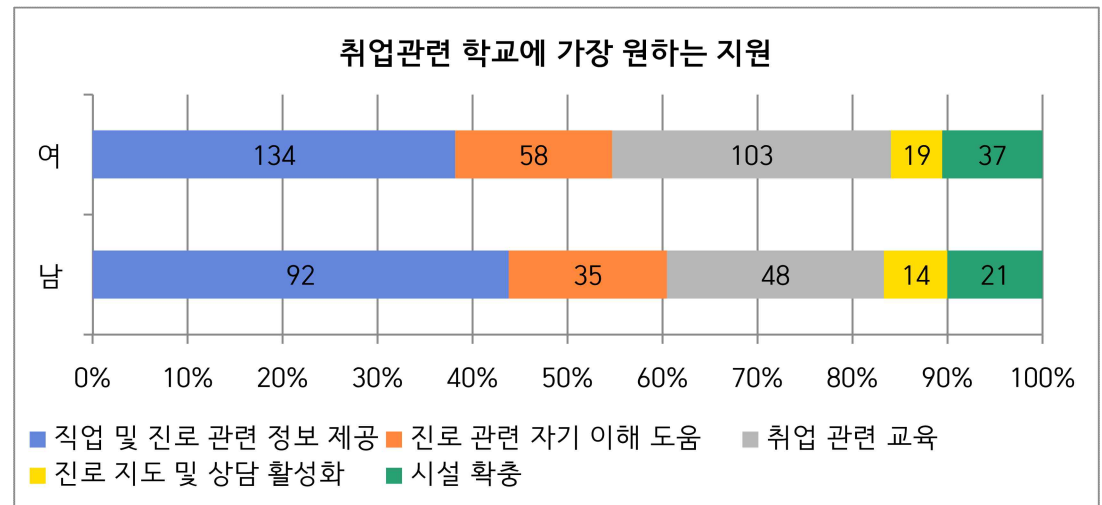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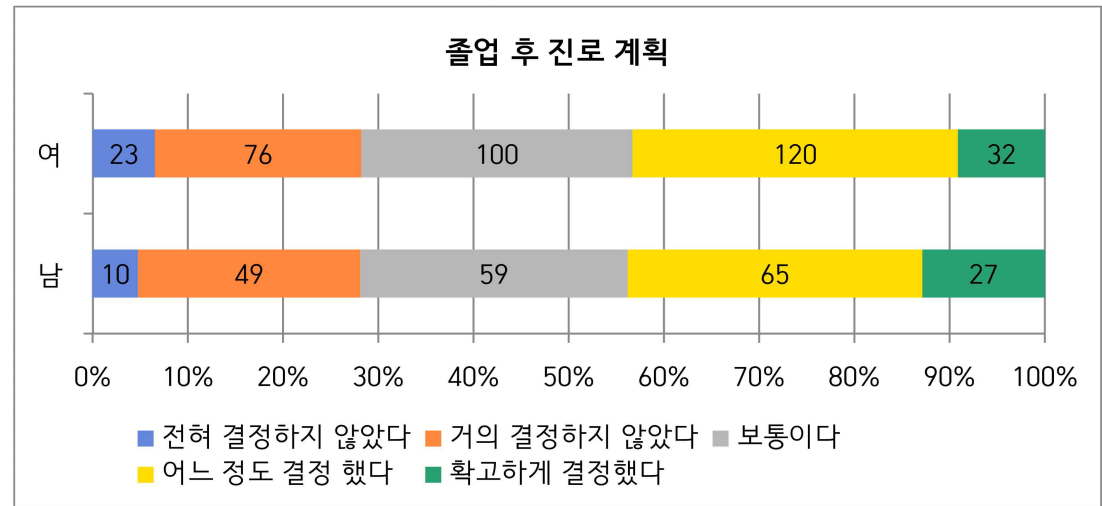
(3)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신입생들이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관한 질문에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24.4%), 자신감 및 의욕 부족(13.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5.7%)과 여학생(30.2%) 모두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 결정 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학부별로 보면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45.2%), IT학부(40.7%), 공공서비스학부(33.3%) 순이다.

<표 24>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전공이 취업에 부적응	외국어 능력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자신감 및 의욕부족	우유 부단한 성격	학교 인지도 낮음	전체
남	75	4	24	6	43	31	21	6	210
	35.7%	1.9%	11.4%	2.9%	20.5%	14.8%	10.0%	2.9%	100.0%
여	106	8	33	10	94	43	16	41	351
	30.2%	2.3%	9.4%	2.8%	26.8%	12.3%	4.6%	11.7%	100.0%
신학과	6	1	7	2	7	3	1	0	27
	22.2%	3.7%	25.9%	7.4%	25.9%	11.1%	3.7%	0.0%	100.0%
사회과학부	31	4	13	3	33	18	5	10	117
	26.5%	3.4%	11.1%	2.6%	28.2%	15.4%	4.3%	8.5%	100.0%
IT학부	33	1	4	2	22	13	5	1	81
	40.7%	1.2%	4.9%	2.5%	27.2%	16.0%	6.2%	1.2%	100.0%
공공서비스 학부	18	1	6	1	12	6	7	3	54
	33.3%	1.9%	11.1%	1.9%	22.2%	11.1%	13.0%	5.6%	100.0%
간호학과	7	0	8	0	10	2	2	7	36
	19.4%	0.0%	22.2%	0.0%	27.8%	5.6%	5.6%	19.4%	100.0%
예술학부	17	5	6	4	5	18	6	3	64
	26.6%	7.8%	9.4%	6.3%	7.8%	28.1%	9.4%	4.7%	100.0%
디자인학부	42	0	6	2	12	11	7	13	93
	45.2%	0.0%	6.5%	2.2%	12.9%	11.8%	7.5%	14.0%	100.0%
언어학부	10	0	7	0	10	2	2	3	34
	29.4%	0.0%	20.6%	0.0%	29.4%	5.9%	5.9%	8.8%	100.0%
자유전공 학부	17	0	0	2	26	1	2	7	55
	30.9%	0.0%	0.0%	3.6%	47.3%	1.8%	3.6%	12.7%	100.0%
전체	181	12	57	16	137	74	37	47	561
	32.3%	2.1%	10.2%	2.9%	24.4%	13.2%	6.6%	8.4%	100.0%



5) 정신건강 영역

(1)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6.9%가 가끔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전혀 없음(44.0%), 자주 경험(7.1%) 순으로 나타났다. 가끔 경험이라는 응답한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48.4%, 남학생 44.3%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61.1%), 디자인학부(57.3%), 자유전공학부(56.3%) 순이고 IT학부는 자주 경험(11.1%), 거의 항상 경험(6.2%)이라는 특이점을 보였다.

<표 25> 외로움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100	93	15	2	210
	47.6%	44.3%	7.1%	1.0%	100.0%
여	147	170	25	9	351
	41.9%	48.4%	7.1%	2.6%	100.0%
신학과	15	11	0	1	27
	55.6%	40.7%	0.0%	3.7%	100.0%
사회과학부	56	54	6	1	117
	47.9%	46.2%	5.1%	0.9%	100.0%
IT학부	41	26	9	5	81
	50.6%	32.1%	11.1%	6.2%	100.0%
공공서비스학부	26	22	5	1	54
	48.1%	40.7%	9.3%	1.9%	100.0%
간호학과	11	22	3	0	36
	30.6%	61.1%	8.3%	0.0%	100.0%
예술학부	29	29	5	1	64
	45.3%	45.3%	7.8%	1.6%	100.0%
디자인학부	33	53	6	1	93
	35.5%	57.0%	6.5%	1.1%	100.0%
언어학부	18	15	1	0	34
	52.9%	44.1%	2.9%	0.0%	100.0%
자유전공학부	18	31	5	1	55
	32.7%	56.4%	9.1%	1.8%	100.0%
전체	247	263	40	11	561
	44.0%	46.9%	7.1%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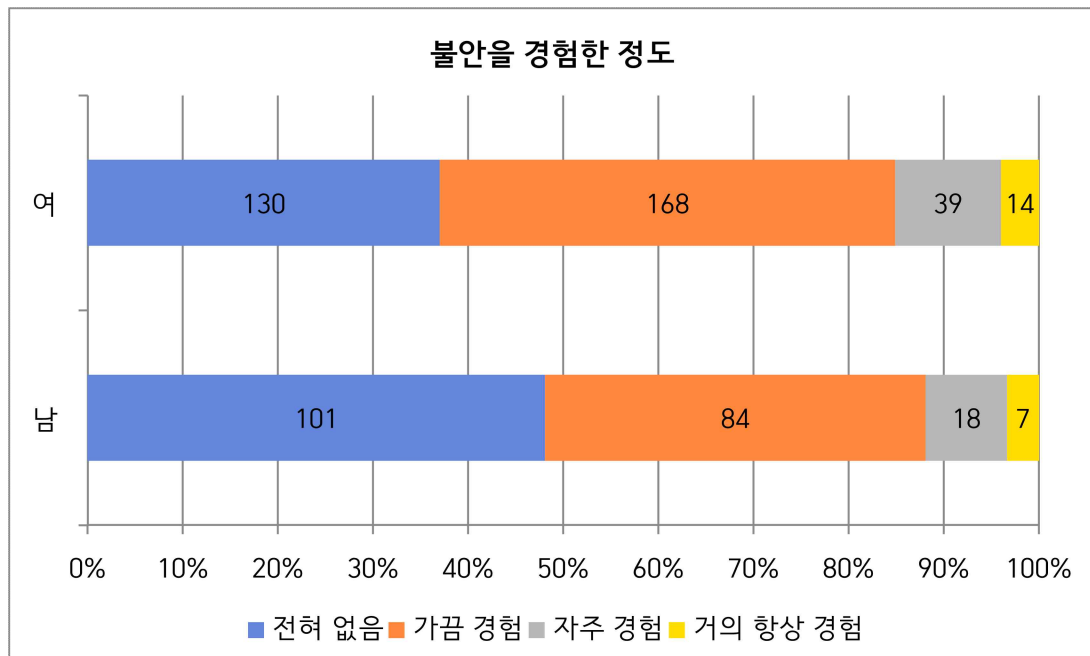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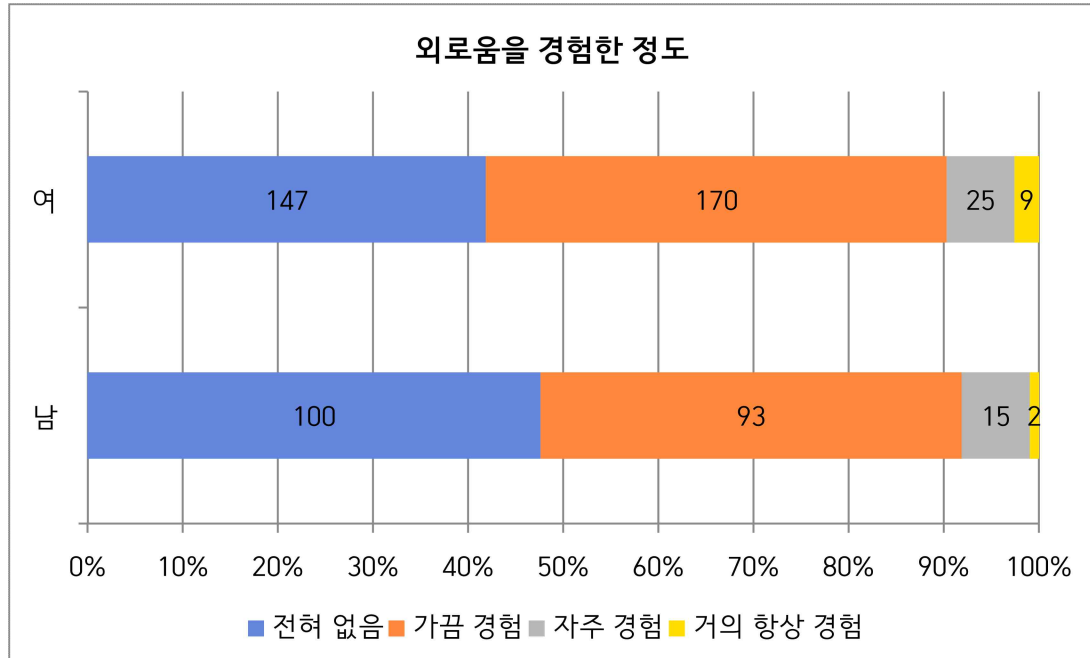
(2) 불안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9%가 가끔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전혀 없음(41.2%), 자주 경험(10.2%) 순이었다. 가끔 경험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 47.9%, 남학생 40.0%가 응답했다.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53.8%), 간호학과(52.8%), 신학과(48.1%)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예술학부는 자주 경험(14.1%), 거의 항상 경험(6.3%)으로 응답했다.

<표 26> 불안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101	84	18	7	210
	48.1%	40.0%	8.6%	3.3%	100.0%
여	130	168	39	14	351
	37.0%	47.9%	11.1%	4.0%	100.0%
신학과	12	13	0	2	27
	44.4%	48.1%	0.0%	7.4%	100.0%
사회과학부	49	55	9	4	117
	41.9%	47.0%	7.7%	3.4%	100.0%
IT학부	38	27	11	5	81
	46.9%	33.3%	13.6%	6.2%	100.0%
공공서비스학부	26	22	5	1	54
	48.1%	40.7%	9.3%	1.9%	100.0%
간호학과	12	19	5	0	36
	33.3%	52.8%	13.9%	0.0%	100.0%
예술학부	25	26	9	4	64
	39.1%	40.6%	14.1%	6.3%	100.0%
디자인학부	31	50	10	2	93
	33.3%	53.8%	10.8%	2.2%	100.0%
언어학부	17	14	2	1	34
	50.0%	41.2%	5.9%	2.9%	100.0%
자유전공학부	21	26	6	2	55
	38.2%	47.3%	10.9%	3.6%	100.0%
전체	231	252	57	21	561
	41.2%	44.9%	10.2%	3.7%	100.0%



(3) 분노를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9.2%가 가끔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전혀 없음(41.5%), 자주 경험(7.7%) 순이었다. 가끔 경험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 50.7%, 남학생 46.7%가 응답했다.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64.1%), 자유전공학부(61.8%), 간호학과(58.3%) 순으로 나타났다. IT학부의 경우 자주 경험(14.8%), 거의 항상 경험(4.9%)로 특이점을 보였다.

<표 27> 분노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98	98	12	2	210
	46.7%	46.7%	5.7%	1.0%	100.0%
여	135	178	31	7	351
	38.5%	50.7%	8.8%	2.0%	100.0%
신학과	15	11	0	1	27
	55.6%	40.7%	0.0%	3.7%	100.0%
사회과학부	50	56	11	0	117
	42.7%	47.9%	9.4%	0.0%	100.0%
IT학부	33	32	12	4	81
	40.7%	39.5%	14.8%	4.9%	100.0%
공공서비스학부	25	24	4	1	54
	46.3%	44.4%	7.4%	1.9%	100.0%
간호학과	11	21	4	0	36
	30.6%	58.3%	11.1%	0.0%	100.0%
예술학부	21	41	2	0	64
	32.8%	64.1%	3.1%	0.0%	100.0%
디자인학부	47	39	4	3	93
	50.5%	41.9%	4.3%	3.2%	100.0%
언어학부	13	18	3	0	34
	38.2%	52.9%	8.8%	0.0%	100.0%
자유전공학부	18	34	3	0	55
	32.7%	61.8%	5.5%	0.0%	100.0%
전체	233	276	43	9	561
	41.5%	49.2%	7.7%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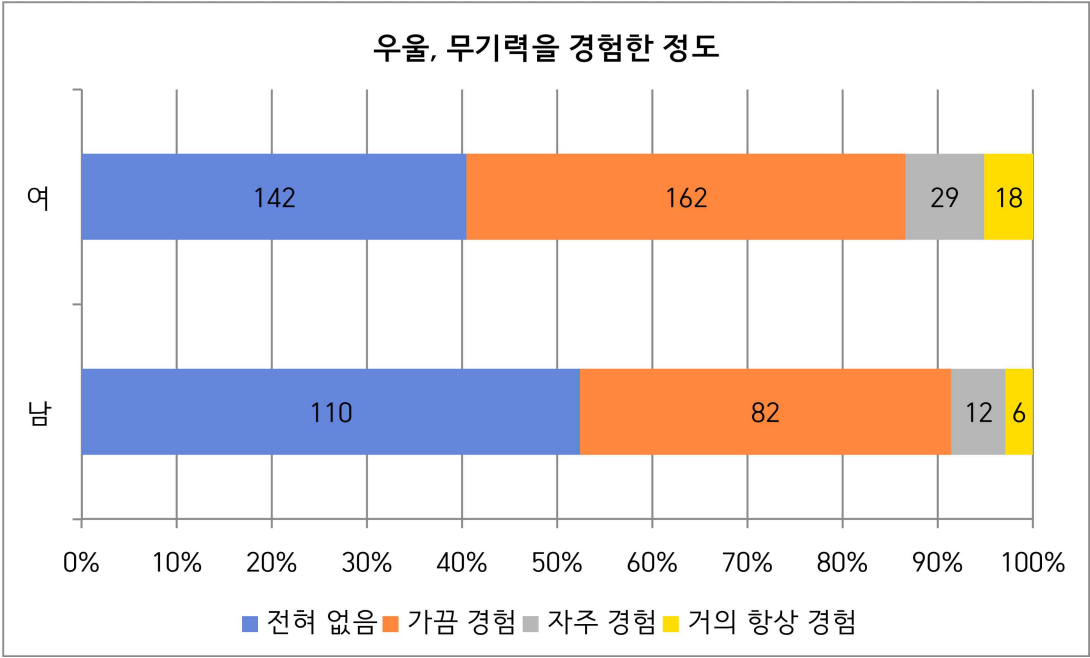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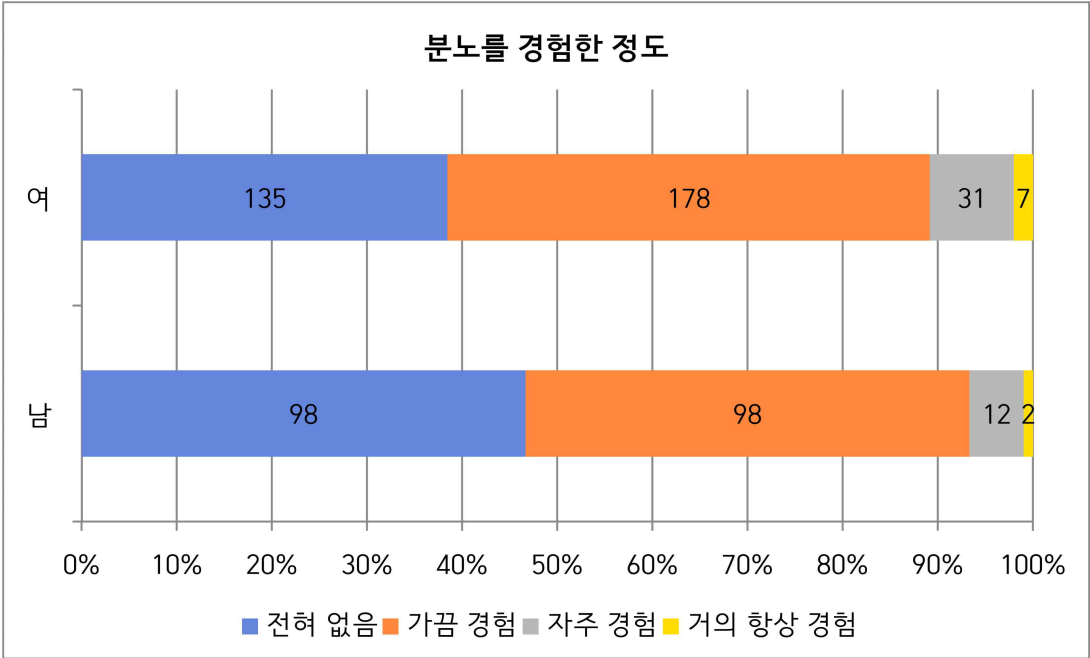
(4) 우울, 무기력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9%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43.5%), 자주 경험(7.3%)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2.4%, 여학생 40.5%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52.8%), 신학과(51.9%), 공공서비스학부(5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올해 작년에 이어 전혀 없음(44.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8> 우울과 무기력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110	82	12	6	210
	52.4%	39.0%	5.7%	2.9%	100.0%
여	142	162	29	18	351
	40.5%	46.2%	8.3%	5.1%	100.0%
신학과	14	11	1	1	27
	51.9%	40.7%	3.7%	3.7%	100.0%
사회과학부	56	52	5	4	117
	47.9%	44.4%	4.3%	3.4%	100.0%
IT학부	36	31	6	8	81
	44.4%	38.3%	7.4%	9.9%	100.0%
공공서비스학부	27	20	5	2	54
	50.0%	37.0%	9.3%	3.7%	100.0%
간호학과	19	13	3	1	36
	52.8%	36.1%	8.3%	2.8%	100.0%
예술학부	28	28	6	2	64
	43.8%	43.8%	9.4%	3.1%	100.0%
디자인학부	37	45	10	1	93
	39.8%	48.4%	10.8%	1.1%	100.0%
언어학부	16	16	2	0	34
	47.1%	47.1%	5.9%	0.0%	100.0%
자유전공학부	19	28	3	5	55
	34.5%	50.9%	5.5%	9.1%	100.0%
전체	252	244	41	24	561
	44.9%	43.5%	7.3%	4.3%	100.0%



(5) 자해 충동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4.3%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3.0%), 자주 경험(1.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96.7%, 여학생 92.9%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별로는 언어학부(100.0%), 디자인학부(96.8%), 신학과(96.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자해 충동에 대해 자주 경험(0.7%), 거의 항상 경험(0.2%)이 자주 경험(1.6%), 거의 항상 경험(1.1%)이 상승하였으며 간호학과의 경우 거의 항상 경험이 5.6%로 나타났다.

<표 29> 자해 충동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203	6	1	0	210
	96.7%	2.9%	0.5%	0.0%	100.0%
여	326	11	8	6	351
	92.9%	3.1%	2.3%	1.7%	100.0%
신학과	26	1	0	0	27
	96.3%	3.7%	0.0%	0.0%	100.0%
사회과학부	112	3	2	0	117
	95.7%	2.6%	1.7%	0.0%	100.0%
IT학부	74	2	2	3	81
	91.4%	2.5%	2.5%	3.7%	100.0%
공공서비스학부	50	3	1	0	54
	92.6%	5.6%	1.9%	0.0%	100.0%
간호학과	33	1	0	2	36
	91.7%	2.8%	0.0%	5.6%	100.0%
예술학부	58	5	1	0	64
	90.6%	7.8%	1.6%	0.0%	100.0%
디자인학부	90	1	2	0	93
	96.8%	1.1%	2.2%	0.0%	100.0%
언어학부	34	0	0	0	34
	100.0%	0.0%	0.0%	0.0%	100.0%
자유전공학부	52	1	1	1	55
	94.5%	1.8%	1.8%	1.8%	100.0%
전체	529	17	9	6	561
	94.3%	3.0%	1.6%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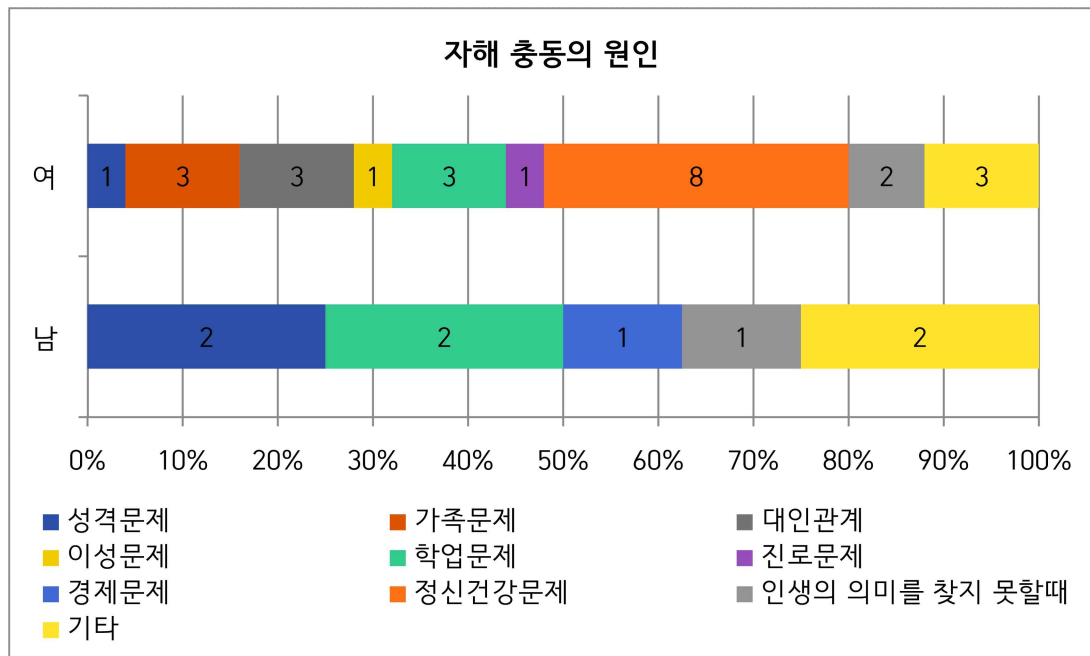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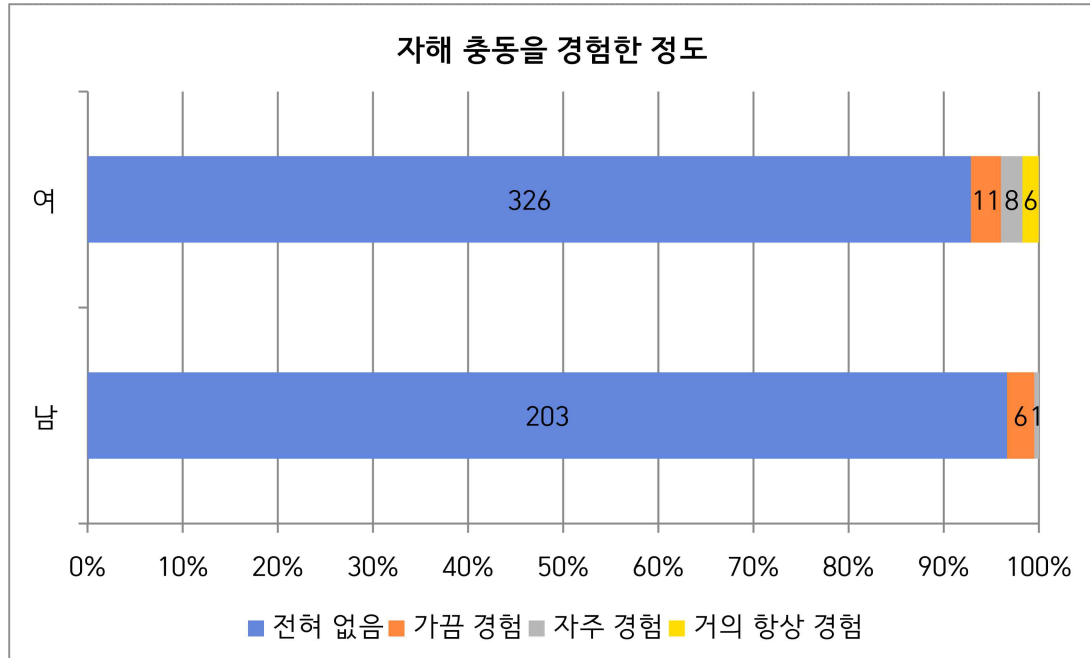
(6) 자해 충동의 원인

신입생에게 자해 충동의 원인에 관한 질문한 결과 정신건강문제 (25.0%), 학업 문제(15.6%), 기타(1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32.0%가 정신건강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나 남학생은 0.0%라고 하였다. 정신건강 문제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사회과학부(80.0%)로 가장 높았고 자유전공학부(33.3%), 간호학과(33.3%)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전년도 정신건강 문제가 5.6%에서 25.0%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30> 자해 충동의 원인

단위: 명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경제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기타	전체
남	2	0	0	0	2	0	1	0	1	1	7
	28.6%	0.0%	0.0%	0.0%	28.6%	0.0%	14.3%	0.0%	14.3%	14.3%	100.0%
여	1	3	3	1	3	1	0	8	2	3	25
	4.0%	12.0%	12.0%	4.0%	12.0%	4.0%	0.0%	32.0%	8.0%	12.0%	100.0%
신학과	0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사회과학부	0	0	0	0	0	1	0	4	0	0	5
	0.0%	0.0%	0.0%	0.0%	0.0%	20.0%	0.0%	80.0%	0.0%	0.0%	100.0%
IT학부	1	1	2	0	0	0	0	0	1	2	7
	14.3%	14.3%	28.6%	0.0%	0.0%	0.0%	0.0%	0.0%	14.3%	28.6%	100.0%
공공서비스 학부	1	2	0	0	0	0	0	1	0	0	4
	25.0%	50.0%	0.0%	0.0%	0.0%	0.0%	0.0%	25.0%	0.0%	0.0%	100.0%
간호학과	0	0	0	0	1	0	0	1	0	1	3
	0.0%	0.0%	0.0%	0.0%	33.3%	0.0%	0.0%	33.3%	0.0%	33.3%	100.0%
예술학부	1	0	1	0	2	0	0	1	1	0	6
	16.7%	0.0%	16.7%	0.0%	33.3%	0.0%	0.0%	16.7%	16.7%	0.0%	100.0%
디자인학부	0	0	0	0	2	0	0	0	1	0	3
	0.0%	0.0%	0.0%	0.0%	66.7%	0.0%	0.0%	0.0%	33.3%	0.0%	100.0%
언어학부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유전공 학부	0	0	0	1	0	0	0	1	0	1	3
	0.0%	0.0%	0.0%	33.3%	0.0%	0.0%	0.0%	33.3%	0.0%	33.3%	100.0%
전체	3	3	3	1	5	1	1	8	3	4	32
	9.4%	9.4%	9.4%	3.1%	15.6%	3.1%	3.1%	25.0%	9.4%	12.5%	100.0%



(7)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정도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5.5%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3.2%), 자주 경험(0.9%) 순이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 97.6%, 여학생 94.3%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별로 보면 사회과학부(98.3.0%), 언어학부(97.1%), 디자인학부(9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자살 충동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205	4	1	0	210
	97.6%	1.9%	0.5%	0.0%	100.0%
여	331	14	4	2	351
	94.3%	4.0%	1.1%	0.6%	100.0%
신학과	26	1	0	0	27
	96.3%	3.7%	0.0%	0.0%	100.0%
사회과학부	115	1	1	0	117
	98.3%	0.9%	0.9%	0.0%	100.0%
IT학부	73	5	1	2	81
	90.1%	6.2%	1.2%	2.5%	100.0%
공공서비스학부	52	2	0	0	54
	96.3%	3.7%	0.0%	0.0%	100.0%
간호학과	34	1	1	0	36
	94.4%	2.8%	2.8%	0.0%	100.0%
예술학부	60	3	1	0	64
	93.8%	4.7%	1.6%	0.0%	100.0%
디자인학부	90	3	0	0	93
	96.8%	3.2%	0.0%	0.0%	100.0%
언어학부	33	1	0	0	34
	97.1%	2.9%	0.0%	0.0%	100.0%
자유전공학부	53	1	1	0	55
	96.4%	1.8%	1.8%	0.0%	100.0%
전체	536	18	5	2	561
	95.5%	3.2%	0.9%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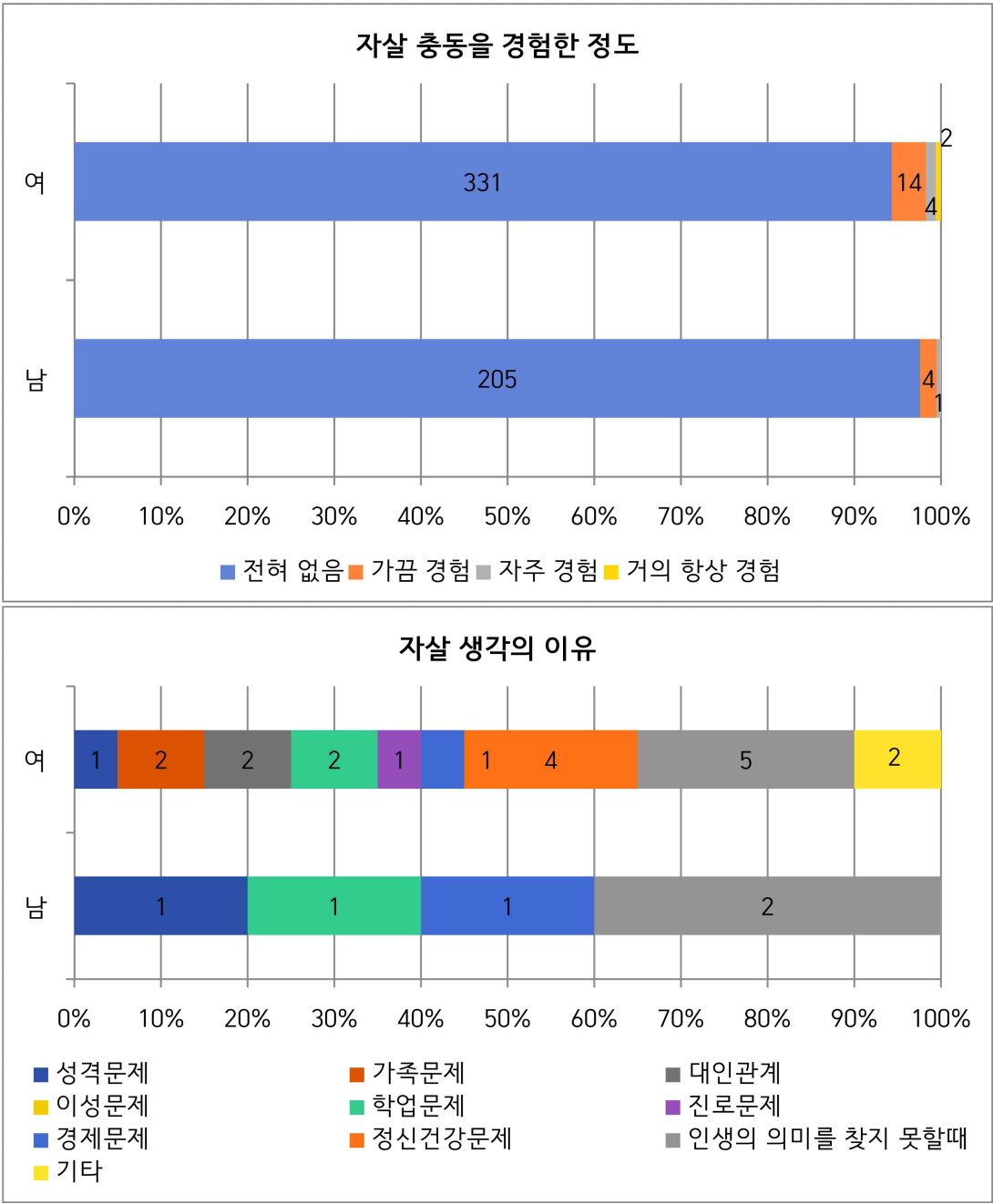
(8) 자살 생각의 이유

신입생 중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다는 25명을 대상으로 원인에 관한 질문 결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신건강 문제(16.0%)와 학업문제(12.0%) 응답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40.0%)이 여학생(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신학과는 100.0%, 사회과학부와 자유전공학부는 각각 50.0%가 응답했다.

<표 32> 자살 생각을 하는 이유

단위: 명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경제 문제	정신건 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기타	전체
남	1 20.0%	0 0.0%	0 0.0%	0 0.0%	1 20.0%	0 0.0%	1 20.0%	0 0.0%	2 40.0%	0 0.0%	5 100.0%
여	1 5.0%	2 10.0%	2 10.0%	0 0.0%	2 10.0%	1 5.0%	1 5.0%	4 20.0%	5 25.0%	2 10.0%	20 100.0%
신학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사회 과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2 100.0%
IT학부	2 25.0%	0 0.0%	2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5.0%	2 25.0%	8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간호 학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예술 학부	0 0.0%	0 0.0%	0 0.0%	0 0.0%	2 5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4 100.0%
디자인 학부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1 33.3%	0 0.0%	1 33.3%	0 0.0%	3 100.0%
언어 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자유 전공 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100.0%
전체	2 8.0%	2 8.0%	2 8.0%	0 0.0%	3 12.0%	1 4.0%	2 8.0%	4 16.0%	7 28.0%	2 8.0%	25 100.0%



(9)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25명에게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잠과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이 각각 28.0%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자살관련자료검색이 24.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잠은 남학생이 40.0%, 여학생은 25.0%이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은 여학생은 35.0%, 남학생은 0.0%로 나타났다. 잠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사회과학부(50.0%)와 IT학부(50.0%), 디자인학부(33.3%)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공공서비스학부(100.0%)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부, 예술학부, 자유전공학부가 모두 50.0%로 나타났다.

<표 33>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단위: 명

	잠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주변에 도움 요청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	시간이 지나 가길 기다림	구체적 자살 방법 생각	자살 관련 자료 검색	해당 없음	전체
남	2 40.0%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2 40.0%	5 100.0%
여	5 25.0%	0 0.0%	0 0.0%	2 10.0%	0 0.0%	1 5.0%	7 35.0%	0 0.0%	1 5.0%	4 20.0%	20 100.0%
신학과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사회 과학부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IT학부	4 50.0%	0 0.0%	0 0.0%	1 12.5%	0 0.0%	0 0.0%	1 12.5%	0 0.0%	0 0.0%	2 25.0%	8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간호 학과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2 100.0%
예술 학부	1 25.0%	0 0.0%	0 0.0%	0 0.0%	0 0.0%	1 25.0%	2 50.0%	0 0.0%	0 0.0%	0 0.0%	4 100.0%
디자인 학부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3 100.0%
언어 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자유 전공 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2 100.0%
전체	7 28.0%	0 0.0%	0 0.0%	2 8.0%	0 0.0%	2 8.0%	7 28.0%	0 0.0%	1 4.0%	6 24.0%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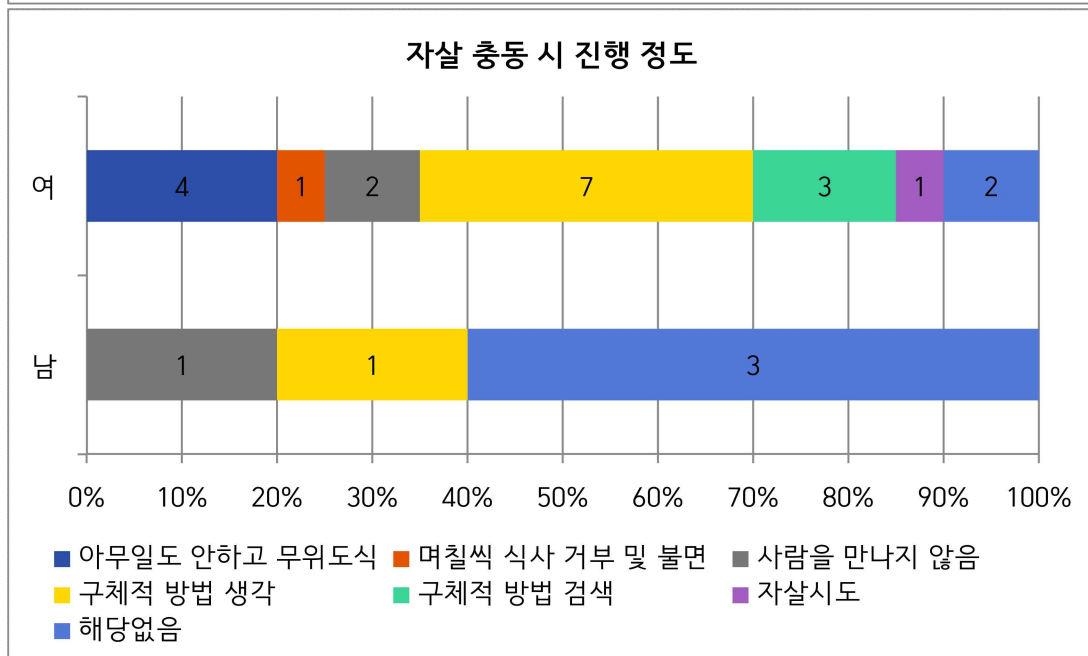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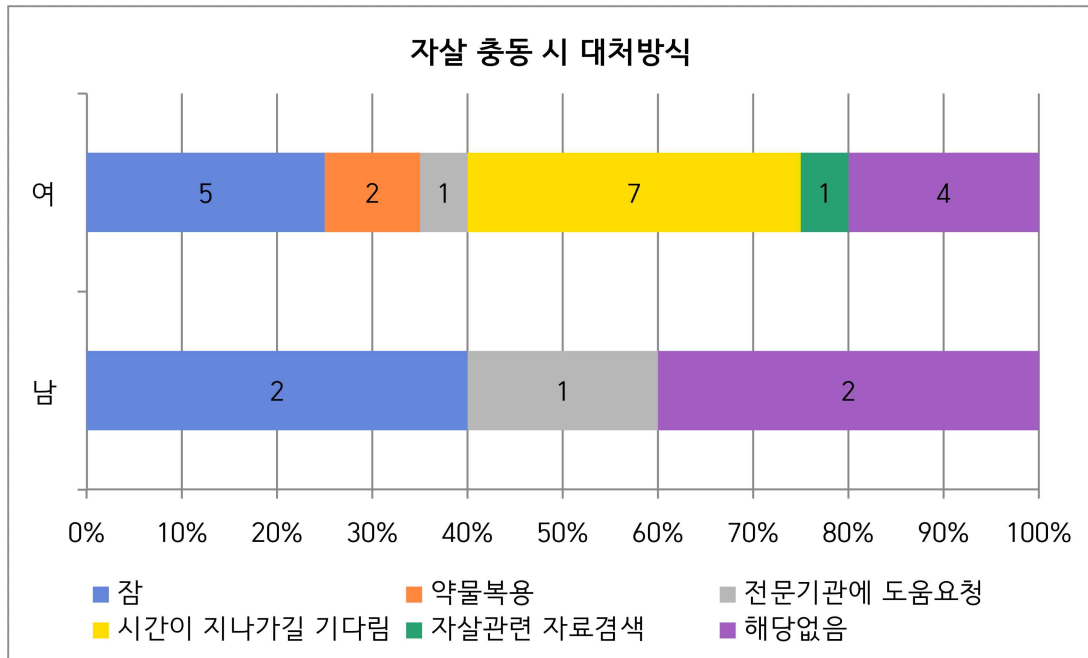
(10)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25명에게 자살 충동이 시 진행 정도를 물어본 결과, 구체적 방법 생각이 32.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해당 없음(20.0%), 아무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16.0%)라고 응답했다. 구체적 방법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35.0%, 남학생은 20.0%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신학과, 간호학과, 자유전공학부 모두 100.0%라고 응답했다.

<표 34>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단위: 명

	아무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며칠씩 식사거 부 및 불면	사람을 만나지 않음	구체적 방법생 각	구체적 방법검 색	자살시 도	기타	해당없 음	전체
남	0	0	1	1	0	0	0	3	5
	0.0%	0.0%	20.0%	20.0%	0.0%	0.0%	0.00%	60.0%	100.0%
여	4	1	2	7	3	1	0	2	20
	20.0%	5.0%	10.0%	35.0%	15.0%	5.0%	0.00%	10.0%	100.0%
신학과	0	0	0	1	0	0	0	0	1
	0.0%	0.0%	0.0%	100.0%	0.0%	0.0%	0%	0.0%	100.0%
사회과학부	0	0	0	0	0	0	0	2	2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IT학부	2	1	0	0	2	1	0	2	8
	25.0%	12.5%	0.0%	0.0%	25.0%	12.5%	0.0%	25.0%	100.0%
공공서비스 학부	0	0	1	0	1	0	0	0	2
	0.0%	0.0%	50.0%	0.0%	50.0%	0.0%	0.0%	0.0%	100.0%
간호학과	0	0	0	2	0	0	0	0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1	0	2	1	0	0	0	0	4
	25.0%	0.0%	50.0%	25.0%	0.0%	0.0%	0%	0.0%	100.0%
디자인학부	0	0	0	2	0	0	0	1	3
	0.0%	0.0%	0.0%	66.7%	0.0%	0.0%	0.0%	33.3%	100.0%
언어학부	1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0	0	0	2	0	0	0	0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전체	4	1	3	8	3	1	0	5	25
	16.0%	4.0%	12.0%	32.0%	12.0%	4.0%	0.0%	20.0%	100.0%



(11)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과도한지 정도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한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5.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그렇다(36.8%), 매우 그렇다(6.8%)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45.3%), 남학생(43.3%)으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언어학부(52.9%), 신학과(51.9%), 예술학부(5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과도한 정도

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18	26	91	71	4	210
	8.6%	12.4%	43.3%	33.8%	1.9%	100.0%
여	16	23	159	129	24	351
	4.6%	6.6%	45.3%	36.8%	6.8%	100.0%
신학과	4	3	14	6	0	27
	14.8%	11.1%	51.9%	22.2%	0.0%	100.0%
사회과학부	6	6	53	43	9	117
	5.1%	5.1%	45.3%	36.8%	7.7%	100.0%
IT학부	6	9	28	30	8	81
	7.4%	11.1%	34.6%	37.0%	9.9%	100.0%
공공서비스학부	5	4	23	22	0	54
	9.3%	7.4%	42.6%	40.7%	0.0%	100.0%
간호학과	0	1	15	17	3	36
	0.0%	2.8%	41.7%	47.2%	8.3%	100.0%
예술학부	3	11	32	16	2	64
	4.7%	17.2%	50.0%	25.0%	3.1%	100.0%
디자인학부	5	6	44	35	3	93
	5.4%	6.5%	47.3%	37.6%	3.2%	100.0%
언어학부	0	2	18	14	0	34
	0.0%	5.9%	52.9%	41.2%	0.0%	100.0%
자유전공학부	5	7	23	17	3	55
	9.1%	12.7%	41.8%	30.9%	5.5%	100.0%
전체	34	49	250	200	28	561
	6.1%	8.7%	44.6%	35.7%	5.0%	100.0%

(12)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신입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3~5시간(33.7%)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7시간(32.8%), 7시간 이상(19.6%) 순으로 나타났다. 3~5시간 응답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33.8%)이 여학생(3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신학과가 3~5시간이라고 응답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고, 자유전공학부(38.2%), 언어학부(35.3%) 순이다.

<표 36>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명

	사용 안 함	1시간 미만	1~3시간	3~5시간	5~7시간	7시간 이상	전체
남	0	6	44	71	67	22	210
	0.0%	2.9%	21.0%	33.8%	31.9%	10.5%	100.0%
여	1	1	26	118	117	88	351
	0.3%	0.3%	7.4%	33.6%	33.3%	25.1%	100.0%
신학과	0	1	4	11	10	1	27
	0.0%	3.7%	14.8%	40.7%	37.0%	3.7%	100.0%
사회과학부	0	1	8	39	45	24	117
	0.0%	0.9%	6.8%	33.3%	38.5%	20.5%	100.0%
IT학부	0	0	17	26	19	19	81
	0.0%	0.0%	21.0%	32.1%	23.5%	23.5%	100.0%
공공서비스학부	0	0	8	19	19	8	54
	0.0%	0.0%	14.8%	35.2%	35.2%	14.8%	100.0%
간호학과	0	0	3	11	10	12	36
	0.0%	0.0%	8.3%	30.6%	27.8%	33.3%	100.0%
예술학부	1	2	11	19	19	12	64
	1.6%	3.1%	17.2%	29.7%	29.7%	18.8%	100.0%
디자인학부	0	2	8	31	36	16	93
	0.0%	2.2%	8.6%	33.3%	38.7%	17.2%	100.0%
언어학부	0	0	4	12	11	7	34
	0.0%	0.0%	11.8%	35.3%	32.4%	20.6%	100.0%
자유전공학부	0	1	7	21	15	11	55
	0.0%	1.8%	12.7%	38.2%	27.3%	20.0%	100.0%
전체	1	7	70	189	184	110	561
	0.2%	1.2%	12.5%	33.7%	32.8%	1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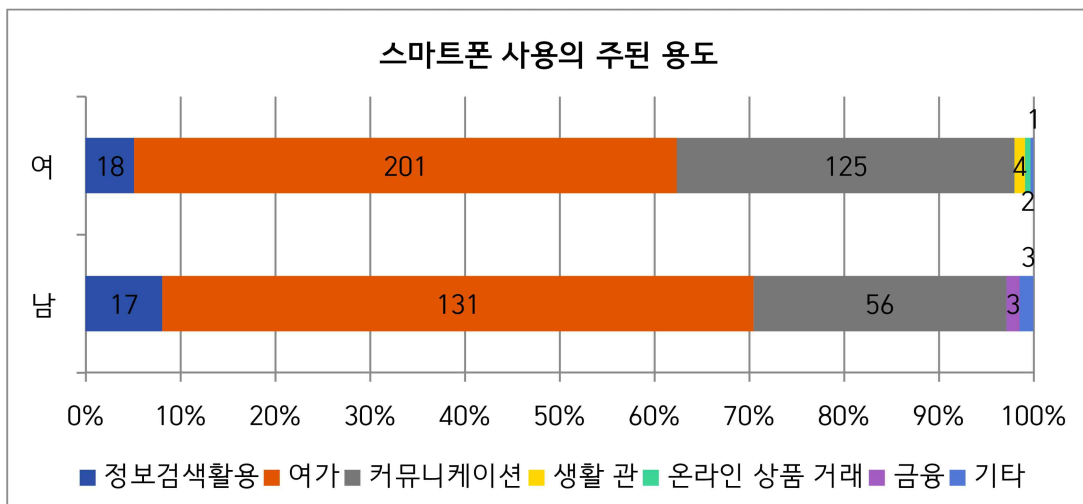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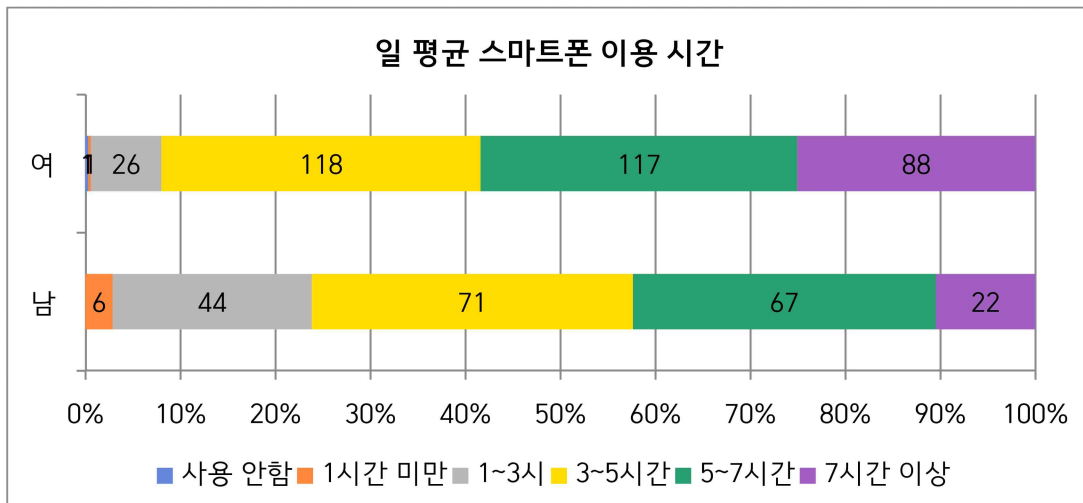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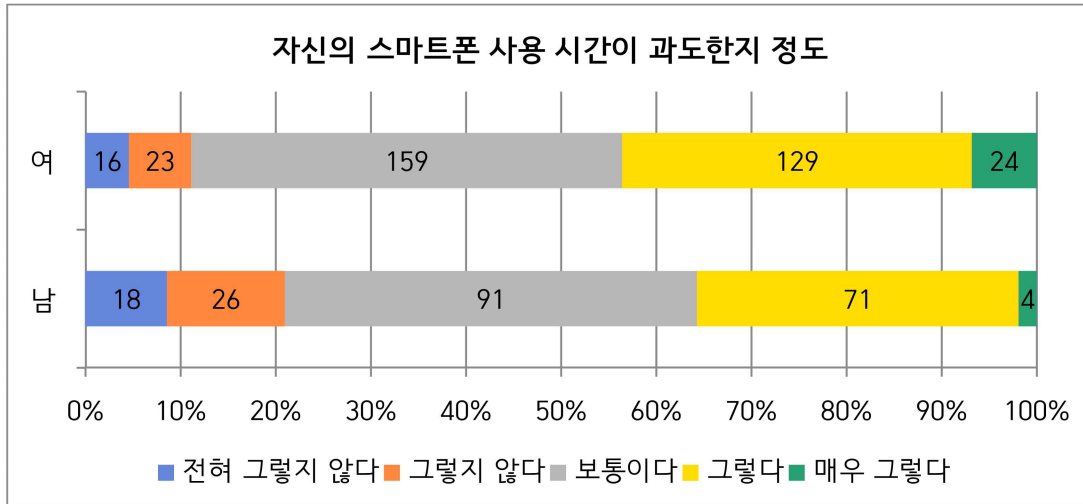
(13)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가(59.2%)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32.3%), 정보검색 및 활용(6.2%) 순이다. 여가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62.4%)이 여학생(57.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72.2%), IT학부(67.9%), 사회과학부(5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스마트폰 주된 용도

단위: 명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생활 관리	온라인 상품 거래	금융	기타	전체
남	17	131	56	0	0	3	3	210
	8.1%	62.4%	26.7%	0.0%	0.0%	1.4%	1.4%	100.0%
여	18	201	125	4	2	0	1	351
	5.1%	57.3%	35.6%	1.1%	0.6%	0.0%	0.3%	100.0%
신학과	4	14	8	0	0	1	0	27
	14.8%	51.9%	29.6%	0.0%	0.0%	3.7%	0.0%	100.0%
사회 과학부	6	70	38	0	0	2	1	117
	5.1%	59.8%	32.5%	0.0%	0.0%	1.7%	0.9%	100.0%
IT학부	7	55	18	1	0	0	0	81
	8.6%	67.9%	22.2%	1.2%	0.0%	0.0%	0.0%	100.0%
공공서비스 학부	2	28	22	0	2	0	0	54
	3.7%	51.9%	40.7%	0.0%	3.7%	0.0%	0.0%	100.0%
간호학과	1	26	9	0	0	0	0	36
	2.8%	72.2%	25.0%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4	38	21	1	0	0	0	64
	6.3%	59.4%	32.8%	1.6%	0.0%	0.0%	0.0%	100.0%
디자인 학부	6	55	30	1	0	0	1	93
	6.5%	59.1%	32.3%	1.1%	0.0%	0.0%	1.1%	100.0%
언어학부	2	15	16	1	0	0	0	34
	5.9%	44.1%	47.1%	2.9%	0.0%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3	31	19	0	0	0	2	55
	5.5%	56.4%	34.5%	0.0%	0.0%	0.0%	3.6%	100.0%
전체	35	332	181	4	2	3	4	561
	6.2%	59.2%	32.3%	0.7%	0.4%	0.5%	0.7%	100.0%



(14) 삶의 만족도

신입생들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44.7%)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보통(41.2%), 매우 만족(8.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45.9%), 남학생(42.9%) 순으로 응답했고,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53.8%), 공공서비스학부(51.9%), 자유전공학부(4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삶의 만족도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남	0	6	88	90	26	210
	0.0%	2.9%	41.9%	42.9%	12.4%	100.0%
여	7	16	143	161	24	351
	2.0%	4.6%	40.7%	45.9%	6.8%	100.0%
신학과	0	1	10	12	4	27
	0.0%	3.7%	37.0%	44.4%	14.8%	100.0%
사회과학부	1	2	54	53	7	117
	0.9%	1.7%	46.2%	45.3%	6.0%	100.0%
IT학부	3	6	33	30	9	81
	3.7%	7.4%	40.7%	37.0%	11.1%	100.0%
공공서비스학부	0	0	19	28	7	54
	0.0%	0.0%	35.2%	51.9%	13.0%	100.0%
간호학과	0	0	16	15	5	36
	0.0%	0.0%	44.4%	41.7%	13.9%	100.0%
예술학부	0	4	28	24	8	64
	0.0%	6.3%	43.8%	37.5%	12.5%	100.0%
디자인학부	1	5	32	50	5	93
	1.1%	5.4%	34.4%	53.8%	5.4%	100.0%
언어학부	0	0	19	13	2	34
	0.0%	0.0%	55.9%	38.2%	5.9%	100.0%
자유전공학부	2	4	20	26	3	55
	3.6%	7.3%	36.4%	47.3%	5.5%	100.0%
전체	7	22	231	251	50	561
	1.2%	3.9%	41.2%	44.7%	8.9%	100.0%

(15) 삶에 대한 기대치

신입생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7.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높음이 34.6%, 매우 높음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52.9%)과 여학생(44.4%)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별로 보면 언어학부(61.8%), 사회과학부(56.4%), IT학부(5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삶의 대한 기대치

단위: 명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남	2	7	111	66	24	210
	1.0%	3.3%	52.9%	31.4%	11.4%	100.0%
여	7	25	156	128	35	351
	2.0%	7.1%	44.4%	36.5%	10.0%	100.0%
신학과	0	0	12	7	8	27
	0.0%	0.0%	44.4%	25.9%	29.6%	100.0%
사회과학부	1	5	66	36	9	117
	0.9%	4.3%	56.4%	30.8%	7.7%	100.0%
IT학부	3	8	41	23	6	81
	3.7%	9.9%	50.6%	28.4%	7.4%	100.0%
공공서비스학부	0	3	27	19	5	54
	0.0%	5.6%	50.0%	35.2%	9.3%	100.0%
간호학과	1	2	14	11	8	36
	2.8%	5.6%	38.9%	30.6%	22.2%	100.0%
예술학부	0	5	23	27	9	64
	0.0%	7.8%	35.9%	42.2%	14.1%	100.0%
디자인학부	1	5	39	40	8	93
	1.1%	5.4%	41.9%	43.0%	8.6%	100.0%
언어학부	0	0	21	11	2	34
	0.0%	0.0%	61.8%	32.4%	5.9%	100.0%
자유전공학부	3	4	24	20	4	55
	5.5%	7.3%	43.6%	36.4%	7.3%	100.0%
전체	9	32	267	194	59	561
	1.6%	5.7%	47.6%	34.6%	1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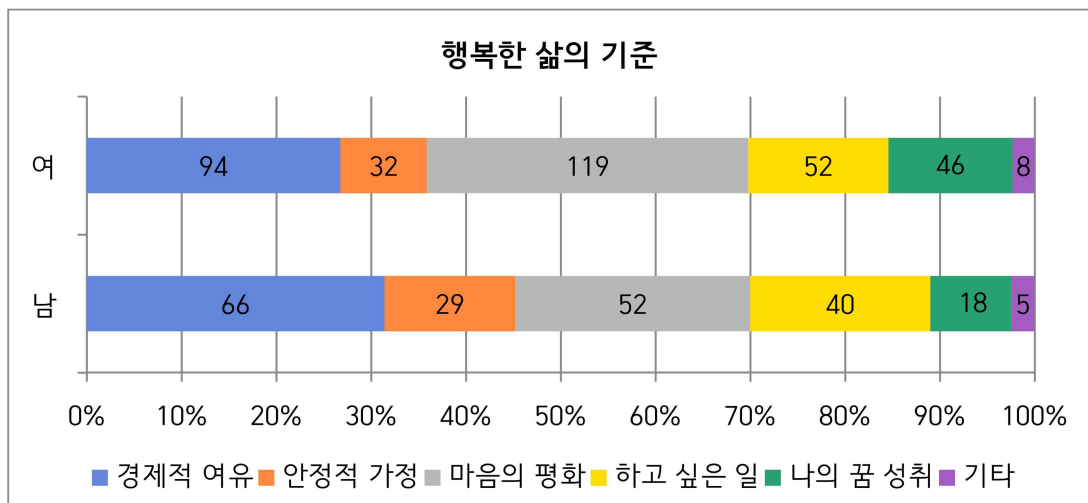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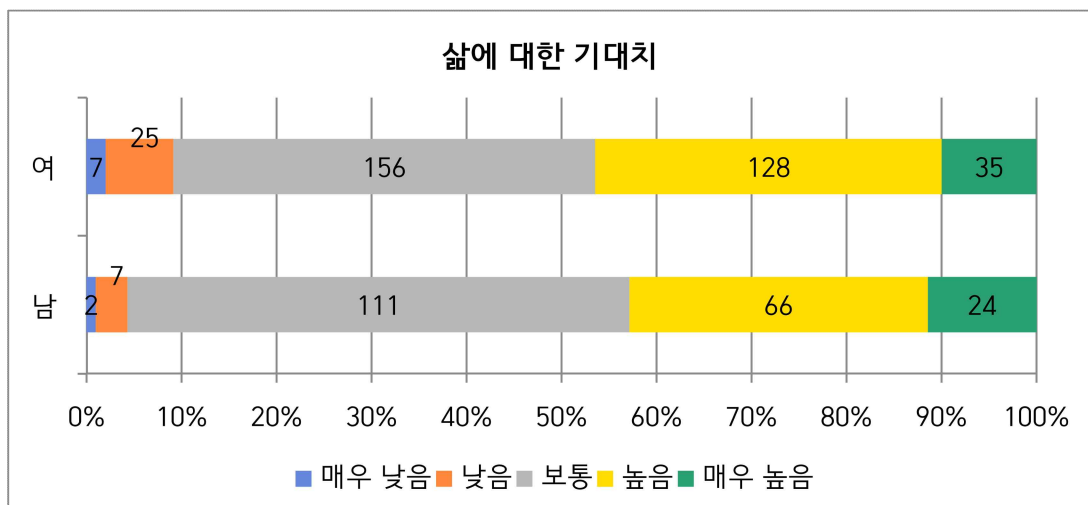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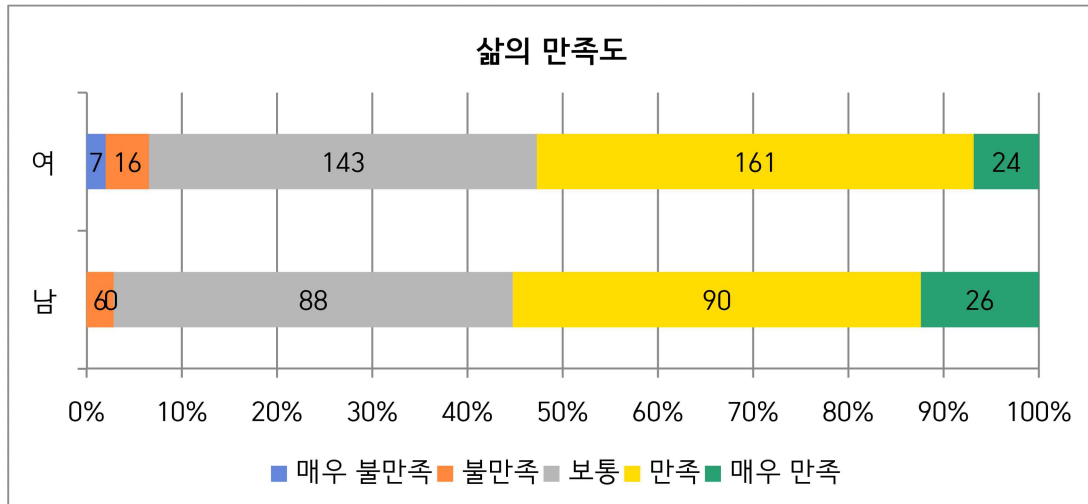
(16) 행복한 삶의 기준

신입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 마음의 평화(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제적 여유(28.5%), 하고 싶은 일(16.4%) 순이다. 마음의 평화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36.9%), 남학생(24.8%)으로 응답하였으나 특이점은 남학생의 31.4%가 경제적 여유가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마음에 평화라고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41.7%), 신학과(40.7%), 디자인학부(3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행복한 삶의 기준

단위: 명

	경제적 여유	안정적 가정	마음의 평화	하고 싶은 일	나의 꿈 성취	기타	전체
남	66	29	52	40	18	5	210
	31.4%	13.8%	24.8%	19.0%	8.6%	1.9%	100.0%
여	94	32	119	52	46	8	351
	26.8%	9.1%	33.9%	14.8%	13.1%	2.2%	100.0%
신학과	6	1	11	4	1	4	27
	22.2%	3.7%	40.7%	14.8%	3.7%	10.0%	100.0%
사회과학부	33	14	34	21	15	0	117
	28.2%	12.0%	29.1%	17.9%	12.8%	0.0%	100.0%
IT학부	34	10	16	13	4	4	81
	42.0%	12.3%	19.8%	16.0%	4.9%	4.7%	100.0%
공공서비스 학부	15	3	15	14	7	0	54
	27.8%	5.6%	27.8%	25.9%	13.0%	0.0%	100.0%
간호학과	13	6	15	1	1	0	36
	36.1%	16.7%	41.7%	2.8%	2.8%	0.0%	100.0%
예술학부	16	6	17	12	13	0	64
	25.0%	9.4%	26.6%	18.8%	20.3%	0.0%	100.0%
디자인학부	19	12	34	13	12	3	93
	20.4%	12.9%	36.6%	14.0%	12.9%	3.1%	100.0%
언어학부	9	7	9	5	4	0	34
	26.5%	20.6%	26.5%	14.7%	11.8%	0.0%	100.0%
자유전공 학부	15	2	20	9	7	2	55
	27.3%	3.6%	36.4%	16.4%	12.7%	3.5%	100.0%
전체	160	61	171	92	64	12	561
	28.5%	10.9%	30.5%	16.4%	11.4%	2.1%	100.0%



6) 성인지 감수성 영역

(1)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신입생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조사한 결과, 잘 안다(29.6%), 조금 안다(29.2%), 보통(21.2%)라고 응답했다. 잘 안다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34.5%, 남학생의 21.4% 으로 응답했으며,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40.9%), 신학과(37.0%), 언어학부(35.3%) 순이다.

<표 41>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잘 안다	조금 안다	보통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	45	60	52	42	11	210
	21.4%	28.6%	24.8%	20.0%	5.2%	100.0%
여	121	104	67	48	11	351
	34.5%	29.6%	19.1%	13.7%	3.1%	100.0%
신학과	10	5	7	5	0	27
	37.0%	18.5%	25.9%	18.5%	0.0%	100.0%
사회과학부	32	37	30	14	4	117
	27.4%	31.6%	25.6%	12.0%	3.4%	100.0%
IT학부	18	25	15	15	8	81
	22.2%	30.9%	18.5%	18.5%	9.9%	100.0%
공공서비스학부	17	15	12	10	0	54
	31.5%	27.8%	22.2%	18.5%	0.0%	100.0%
간호학과	10	15	5	5	1	36
	27.8%	41.7%	13.9%	13.9%	2.8%	100.0%
예술학부	12	16	18	16	2	64
	18.8%	25.0%	28.1%	25.0%	3.1%	100.0%
디자인학부	38	25	19	8	3	93
	40.9%	26.9%	20.4%	8.6%	3.2%	100.0%
언어학부	12	10	6	5	1	34
	35.3%	29.4%	17.6%	14.7%	2.9%	100.0%
자유전공학부	17	16	7	12	3	55
	30.9%	29.1%	12.7%	21.8%	5.5%	100.0%
전체	166	164	119	90	22	561
	29.6%	29.2%	21.2%	16.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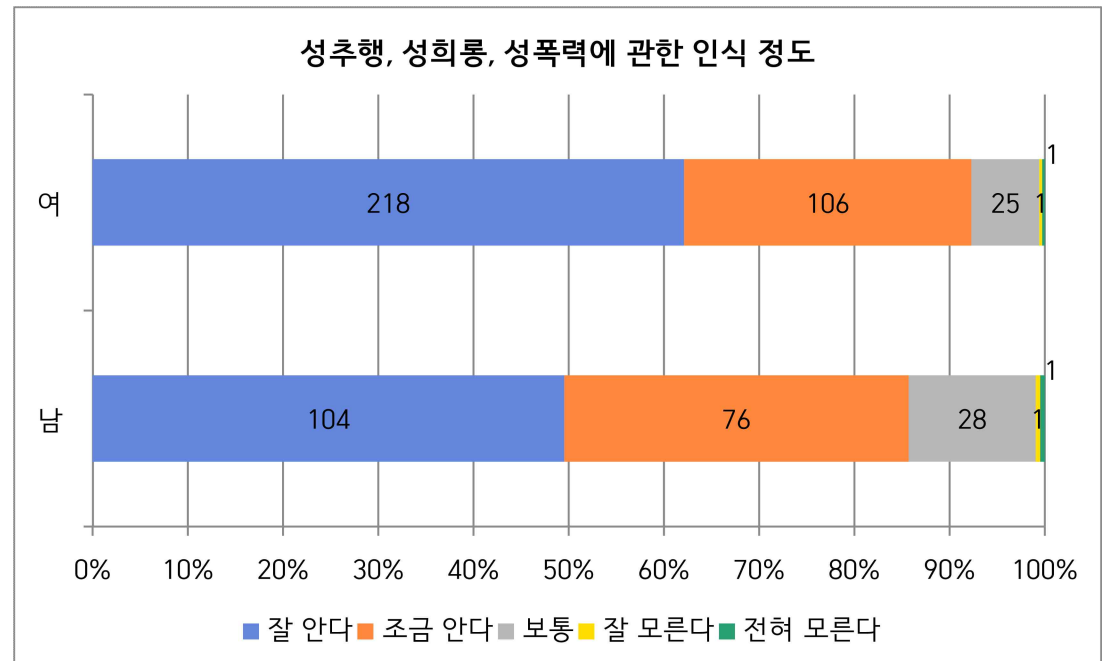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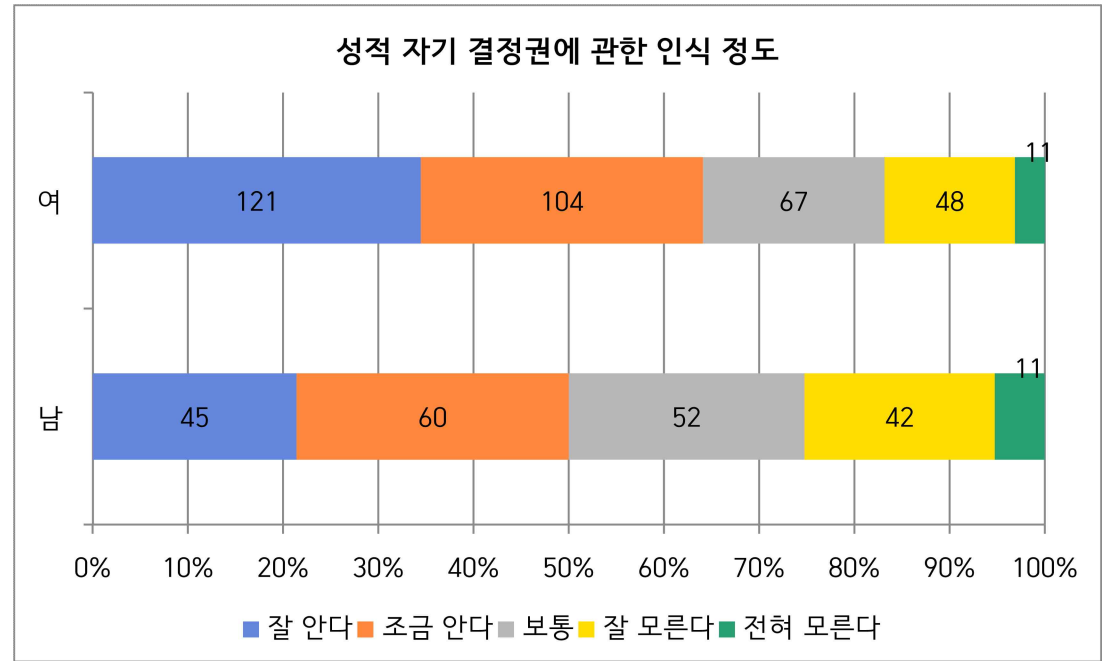
(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신입생들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7.4%가 잘 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30.9%), 보통(9.4%) 순으로 나타났다. 잘 안다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62.1%, 남학생 49.5%으로 나타났고, 학부별로 보면 언어학부(64.7%), 신학과(63.0%), 예술학부(60.9%) 순이다.

<표 4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잘 안다	조금 안다	보통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	104	76	28	1	1	210
	49.5%	36.2%	13.3%	0.5%	0.5%	100.0%
여	218	106	25	1	1	351
	62.1%	30.2%	7.1%	0.3%	0.3%	100.0%
신학과	17	7	3	0	0	27
	63.0%	25.9%	11.1%	0.0%	0.0%	100.0%
사회과학부	65	36	15	0	1	117
	55.6%	30.8%	12.8%	0.0%	0.9%	100.0%
IT학부	42	29	10	0	0	81
	51.9%	35.8%	12.3%	0.0%	0.0%	100.0%
공공서비스학부	31	18	5	0	0	54
	57.4%	33.3%	9.3%	0.0%	0.0%	100.0%
간호학과	18	16	2	0	0	36
	50.0%	44.4%	5.6%	0.0%	0.0%	100.0%
예술학부	39	18	6	1	0	64
	60.9%	28.1%	9.4%	1.6%	0.0%	100.0%
디자인학부	55	31	6	0	1	93
	59.1%	33.3%	6.5%	0.0%	1.1%	100.0%
언어학부	22	10	2	0	0	34
	64.7%	29.4%	5.9%	0.0%	0.0%	100.0%
자유전공학부	33	17	4	1	0	55
	60.0%	30.9%	7.3%	1.8%	0.0%	100.0%
전체	322	182	53	2	2	561
	57.4%	32.4%	9.4%	0.4%	0.4%	100.0%



(3)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3.1%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에 남학생(92.9%)이 여학생(77.2%)보다 더 높았으며,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혀 없다라고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자유전공학부(90.9%), 언어학부(88.2%), 사회과학부(8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단위: 명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전혀 없다	전체
남	0 0.0%	0 0.0%	1 0.5%	14 6.7%	195 92.9%	210 100.0%
여	1 0.3%	4 1.1%	12 3.4%	63 17.9%	271 77.2%	351 100.0%
신학과	0 0.0%	0 0.0%	0 0.0%	5 18.5%	22 81.5%	27 100.0%
사회과학부	0 0.0%	0 0.0%	2 1.7%	14 12.0%	101 86.3%	117 100.0%
IT학부	0 0.0%	3 3.7%	0 0.0%	9 11.1%	69 85.2%	81 100.0%
공공서비스학부	0 0.0%	1 1.9%	3 5.6%	10 18.5%	40 74.1%	54 100.0%
간호학과	0 0.0%	0 0.0%	3 8.3%	4 11.1%	29 80.6%	36 100.0%
예술학부	0 0.0%	0 0.0%	3 4.7%	11 17.2%	50 78.1%	64 100.0%
디자인학부	1 1.1%	0 0.0%	0 0.0%	17 18.3%	75 80.6%	93 100.0%
언어학부	0 0.0%	0 0.0%	0 0.0%	4 11.8%	30 88.2%	34 100.0%
자유전공학부	0 0.0%	0 0.0%	2 3.6%	3 5.5%	50 90.9%	55 100.0%
전체	1 0.2%	4 0.7%	13 2.3%	77 13.7%	466 83.1%	561 100.0%

(4)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때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잘 모른다(39.0%),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다(25.7%),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7.8%) 순이었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44.2%)이 남학생(30.5%)보다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45.2%), IT학부(43.2%), 자유전공학부(41.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4>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단위: 명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	35 16.7%	46 21.9%	55 26.2%	64 30.5%	10 4.8%	210 100.0%
여	48 13.7%	54 15.4%	89 25.4%	155 44.2%	5 1.4%	351 100.0%
신학과	6 22.2%	3 11.1%	8 29.6%	10 37.0%	0 0.0%	27 100.0%
사회과학 부	17 14.5%	22 18.8%	29 24.8%	47 40.2%	2 1.7%	117 100.0%
IT학부	12 14.8%	13 16.0%	19 23.5%	35 43.2%	2 2.5%	81 100.0%
공공서비스 학부	12 22.2%	13 24.1%	14 25.9%	15 27.8%	0 0.0%	54 100.0%
간호학과	3 8.3%	8 22.2%	11 30.6%	13 36.1%	1 2.8%	36 100.0%
예술학부	11 17.2%	10 15.6%	18 28.1%	21 32.8%	4 6.3%	64 100.0%
디자인 학부	11 11.8%	12 12.9%	23 24.7%	42 45.2%	5 5.4%	93 100.0%
언어학부	5 14.7%	7 20.6%	8 23.5%	13 38.2%	1 2.9%	34 100.0%
자유전공 학부	6 10.9%	12 21.8%	14 25.5%	23 41.8%	0 0.0%	55 100.0%
전체	83 14.8%	100 17.8%	144 25.7%	219 39.0%	15 2.7%	5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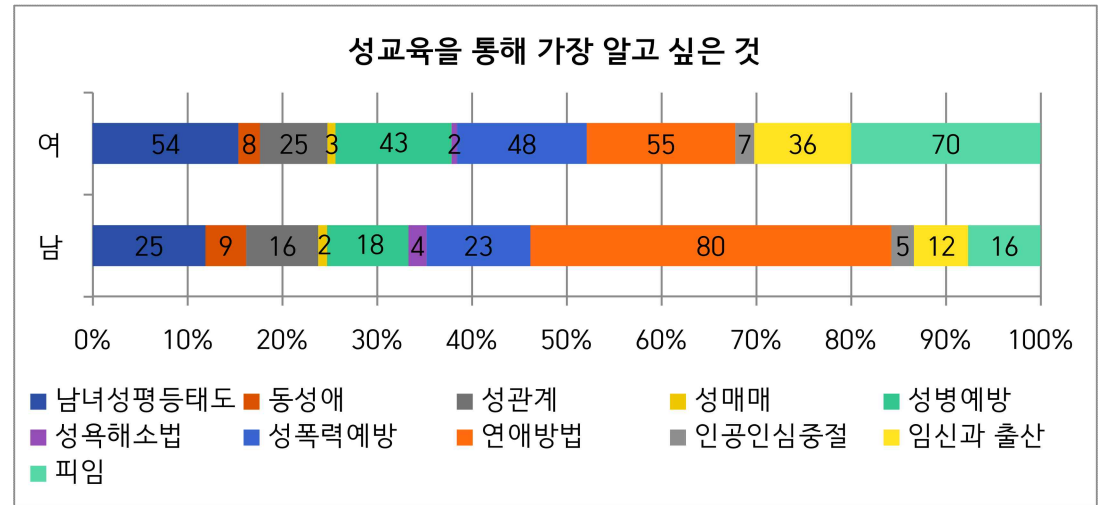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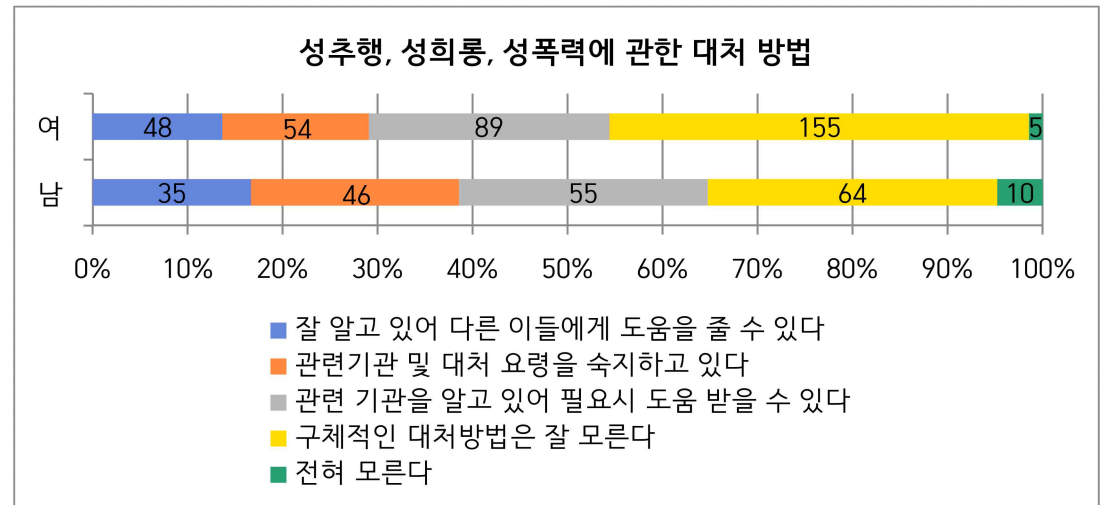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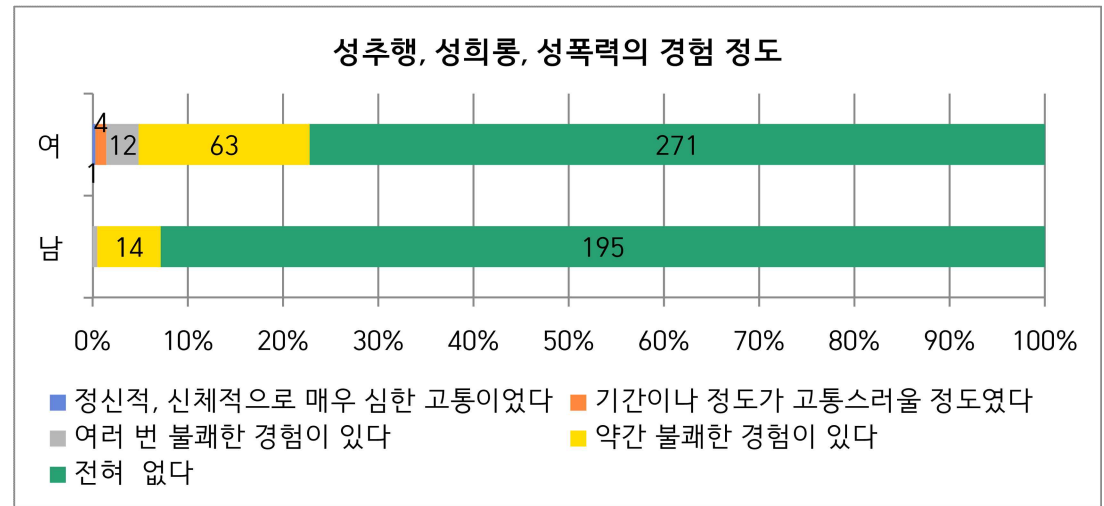
(5)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연애방법(24.1%)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피임(15.3%), 남녀 성평등 태도(14.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8.1%)과 여학생(15.7%) 모두 연애방법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학부별로 보면 신학과가 40.7%로 가장 높았으며 IT학부와 공공서비스학부가 각각 25.9%로 나타났다.

<표 45>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

단위: 명

	남녀 성평 등태 도	동성 애	성관 계	성매 매	성병 예방	성욕 해소 법	성폭 력 예 방	연애 방법	인공 임신 중절	임신 과 출산	피임	전체
남	25	9	16	2	18	4	23	80	5	12	16	210
	11.9%	4.3%	7.6%	1.0%	8.6%	1.9%	11.0%	38.1%	2.4%	5.7%	7.6%	100.0%
여	54	8	25	3	43	2	48	55	7	36	70	351
	15.4%	2.3%	7.1%	0.9%	12.3%	0.6%	13.7%	15.7%	2.0%	10.3%	19.9%	100.0%
신학 과	1	3	1	0	0	3	2	11	1	4	1	27
	3.7%	11.1%	3.7%	0.0%	0.0%	11.1%	7.4%	40.7%	3.7%	14.8%	3.7%	100.0%
사회 과학 부	14	0	11	0	12	0	11	30	3	12	24	117
	12.0%	0.0%	9.4%	0.0%	10.3%	0.0%	9.4%	25.6%	2.6%	10.3%	20.5%	100.0%
IT학 부	17	4	4	0	7	0	11	21	2	5	10	81
	21.0%	4.9%	4.9%	0.0%	8.6%	0.0%	13.6%	25.9%	2.5%	6.2%	12.3%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9	2	6	1	2	0	3	14	2	9	6	54
	16.7%	3.7%	11.1%	1.9%	3.7%	0.0%	5.6%	25.9%	3.7%	16.7%	11.1%	100.0%
간호 학과	2	0	3	0	8	0	1	10	0	4	8	36
	5.6%	0.0%	8.3%	0.0%	22.2%	0.0%	2.8%	27.8%	0.0%	11.1%	22.2%	100.0%
예술 학부	8	2	1	2	6	3	16	12	2	6	6	64
	12.5%	3.1%	1.6%	3.1%	9.4%	4.7%	25.0%	18.8%	3.1%	9.4%	9.4%	100.0%
디자인 학부	18	5	6	2	15	0	12	19	1	3	12	93
	19.4%	5.4%	6.5%	2.2%	16.1%	0.0%	12.9%	20.4%	1.1%	3.2%	12.9%	100.0%
언어 학부	3	1	2	0	3	0	7	7	0	2	9	34
	8.8%	2.9%	5.9%	0.0%	8.8%	0.0%	20.6%	20.6%	0.0%	5.9%	26.5%	100.0%
자유 전공 학부	7	0	7	0	8	0	8	11	1	3	10	55
	12.7%	0.0%	12.7%	0.0%	14.5%	0.0%	14.5%	20.0%	1.8%	5.5%	18.2%	100.0%
전체	79	17	41	5	61	6	71	135	12	48	86	561
	14.1%	3.0%	7.3%	0.9%	10.9%	1.1%	12.7%	24.1%	2.1%	8.6%	15.3%	100.0%



7)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1) 심리상담가에게 도움 요청할 의사 여부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83.4%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86.6%, 남학생 78.1%가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예술학부(89.1%), 사회과학부(88.9%), 간호학과(8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신학과(25.9%)가 타 학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6>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단위: 명

	예	아니오	전체
남	164	46	210
	78.1%	21.9%	100.0%
여	304	47	351
	86.6%	13.4%	100.0%
신학과	20	7	27
	74.1%	25.9%	100.0%
사회과학부	104	13	117
	88.9%	11.1%	100.0%
IT학부	63	18	81
	77.8%	22.2%	100.0%
공공서비스학부	46	8	54
	85.2%	14.8%	100.0%
간호학과	32	4	36
	88.9%	11.1%	100.0%
예술학부	57	7	64
	89.1%	10.9%	100.0%
디자인학부	74	19	93
	79.6%	20.4%	100.0%
언어학부	29	5	34
	85.3%	14.7%	100.0%
자유전공학부	43	12	55
	78.2%	21.8%	100.0%
전체	468	93	561
	83.4%	1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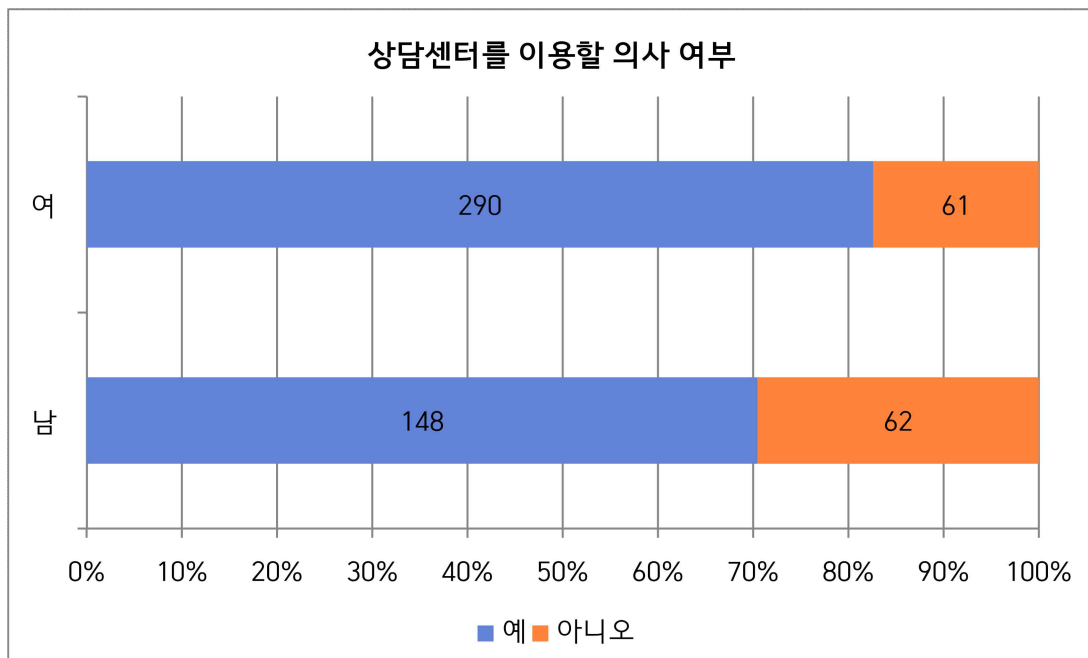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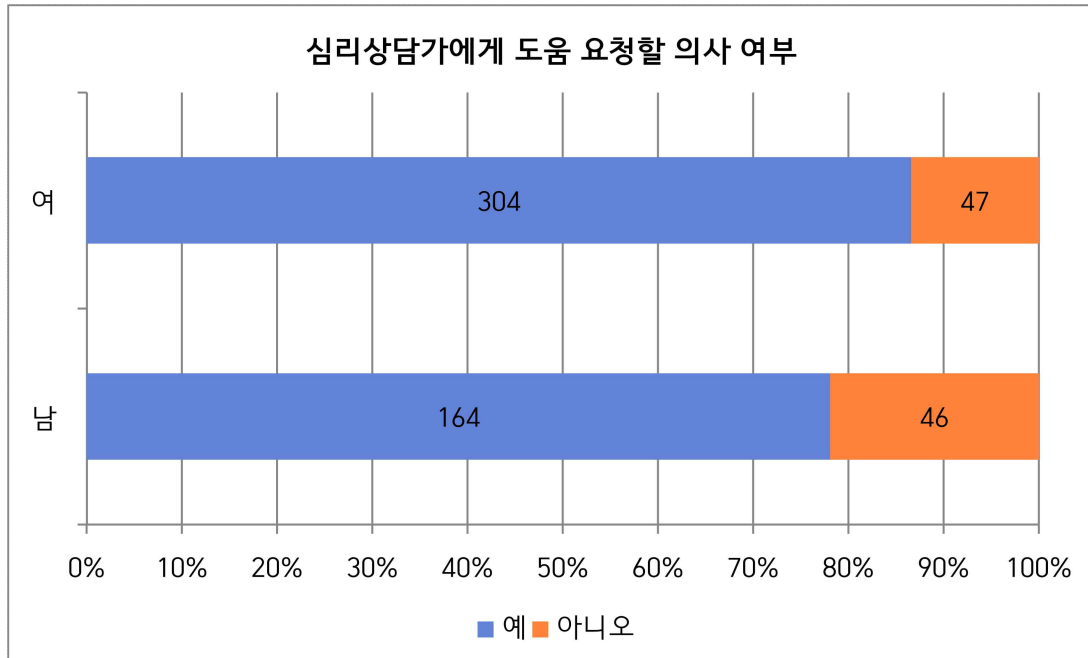
(2) 상담센터를 이용할 의사 여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 해결과 성장을 위해 상담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78.1%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82.6%, 남학생 70.5%가 상담센터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간호학과(91.7%), 공공서비스학부(81.5%), 사회과학부(7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상담센터 이용 여부

단위: 명

	예	아니오	전체
남	148	62	210
	70.5%	29.5%	100.0%
여	290	61	351
	82.6%	17.4%	100.0%
신학과	19	8	27
	70.4%	29.6%	100.0%
사회과학부	93	24	117
	79.5%	20.5%	100.0%
IT학부	62	19	81
	76.5%	23.5%	100.0%
공공서비스학부	44	10	54
	81.5%	18.5%	100.0%
간호학과	33	3	36
	91.7%	8.3%	100.0%
예술학부	48	16	64
	75.0%	25.0%	100.0%
디자인학부	71	22	93
	76.3%	23.7%	100.0%
언어학부	26	8	34
	76.5%	23.5%	100.0%
자유전공학부	42	13	55
	76.4%	23.6%	100.0%
전체	438	123	561
	78.1%	21.9%	100.0%



(3)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6.7%가 개인 심리상담을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이 진로상담(22.8%), 심리검사(17.5%) 순이었다. 심리검사의 경우 전년도 11.7%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개인 심리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61.0%), 여학생(54.1%) 모두 높은 비율로 개인 심리상담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학과와 공공서비스학부가 66.7%, 자유전공학부 61.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8>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단위: 명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 사	정신건강 관련 특강	진로상담	집단상담	없음	기타	전체
남	128	24	6	49	0	2	1	210
	61.0%	11.4%	2.9%	23.3%	0.0%	0.9%	0.5%	100.0%
여	190	74	6	79	1	1	0	351
	54.1%	21.1%	1.7%	22.5%	0.3%	0.3%	0.0%	100.0%
신학과	15	6	1	5	0	0	0	27
	55.6%	22.2%	3.7%	18.5%	0.0%	0.0%	0.0%	100.0%
사회과학부	65	22	1	29	0	0	0	117
	55.6%	18.8%	0.9%	24.8%	0.0%	0.0%	0.0%	100.0%
IT학부	41	16	2	21	0	0	1	81
	50.6%	19.8%	2.5%	25.9%	0.0%	0.0%	1.2%	100.0%
공공서비스 학부	36	5	2	11	0	0	0	54
	66.7%	9.3%	3.7%	20.4%	0.0%	0.0%	0.0%	100.0%
간호학과	24	8	1	3	0	0	0	36
	66.7%	22.2%	2.8%	8.3%	0.0%	0.0%	0.0%	100.0%
예술학부	39	11	1	12	0	1	0	64
	60.9%	17.2%	1.6%	18.8%	0.0%	1.5%	0.0%	100.0%
디자인학부	46	16	3	25	1	2	0	93
	49.5%	17.2%	3.2%	26.9%	1.1%	2.1%	0.0%	100.0%
언어학부	18	5	1	10	0	0	0	34
	52.9%	14.7%	2.9%	29.4%	0.0%	0.0%	0.0%	100.0%
자유전공 학부	34	9	0	12	0	0	0	55
	61.8%	16.4%	0.0%	21.8%	0.0%	0.0%	0.0%	100.0%
전체	318	98	12	128	1	3	1	561
	56.7%	17.5%	2.1%	22.8%	0.2%	0.5%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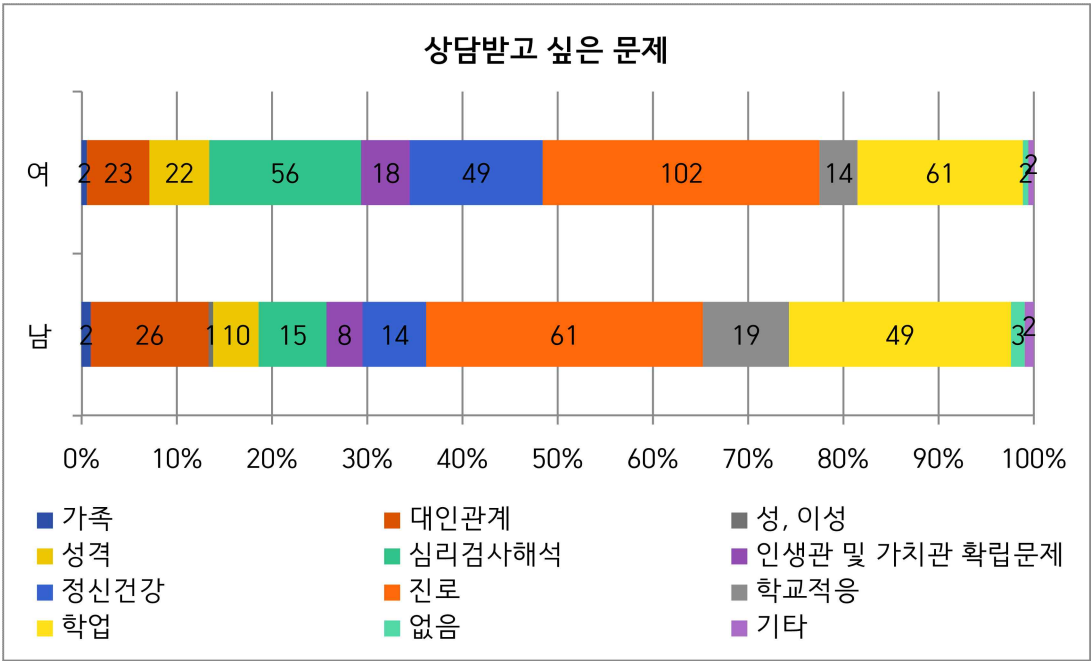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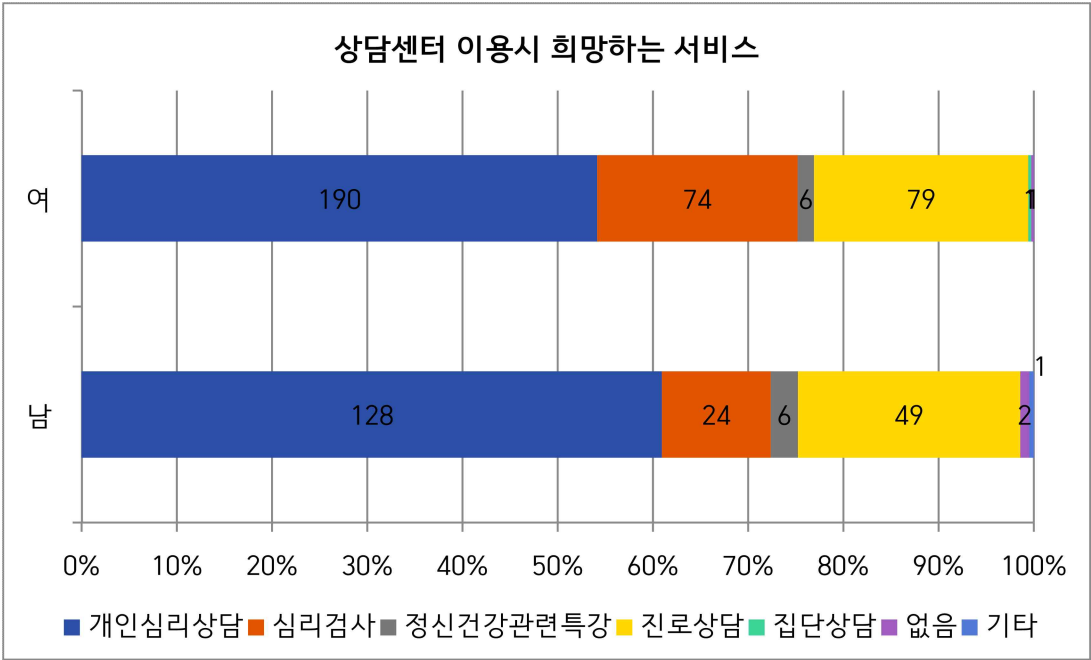
(4) 상담받고 싶은 문제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상담받고 싶은 문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29.1%가 진로를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학업(19.6%), 심리검사해석(12.7%) 순이었다. 진로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29.1%), 남학생(29.0%) 모두 진로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자유전공학부(40.0%), IT학부(33.3%), 사회과학부(32.5%) 순이다.

<표 49> 상담받고 싶은 문제

단위: 명

	가족	대인 관계	성/ 이성	성격	심리 검사 해석	인생 관 및 가치 관 립 문 제	정신 건강	진로	학교 적응	학업	없음	기 타	전체
남	2	26	1	10	15	8	14	61	19	49	3	2	210
	1.0%	12.4%	0.5%	4.8%	7.1%	3.8%	6.7%	29.0%	9.0%	23.3%	1.4%	0.9%	100.0%
여	2	23	0	22	56	18	49	102	14	61	2	2	351
	0.6%	6.6%	0.0%	6.3%	16.0%	5.1%	14.0%	29.1%	4.0%	17.4%	0.6%	0.6%	100.0%
신학과	0	1	0	3	6	0	3	6	3	5	0	0	27
	0.0%	3.7%	0.0%	11.1%	22.2%	0.0%	11.1%	22.2%	11.1%	18.5%	0.0%	0.0%	100.0%
사회 과학부	0	15	0	7	15	4	6	38	7	25	0	0	117
	0.0%	12.8%	0.0%	6.0%	12.8%	3.4%	5.1%	32.5%	6.0%	21.4%	0.0%	0.0%	100.0%
IT학부	0	9	1	5	5	3	8	27	7	14	0	2	81
	0.0%	11.1%	1.2%	6.2%	6.2%	3.7%	9.9%	33.3%	8.6%	17.3%	0.0%	2.4%	100.0%
공공 서비스 학부	0	5	0	1	9	4	8	15	2	10	0	0	54
	0.0%	9.3%	0.0%	1.9%	16.7%	7.4%	14.8%	27.8%	3.7%	18.5%	0.0%	0.0%	100.0%
간호학 과	0	2	0	5	7	0	5	4	4	9	0	0	36
	0.0%	5.6%	0.0%	13.9%	19.4%	0.0%	13.9%	11.1%	11.1%	25.0%	0.0%	0.0%	100.0%
예술학 부	2	7	0	5	9	3	10	14	2	10	1	1	64
	3.1%	10.9%	0.0%	7.8%	14.1%	4.7%	15.6%	21.9%	3.1%	15.6%	1.5%	1.5%	100.0%
디자인 학부	0	8	0	3	9	9	8	29	2	21	3	1	93
	0.0%	8.6%	0.0%	3.2%	9.7%	9.7%	8.6%	31.2%	2.2%	22.6%	3.1%	1.1%	100.0%
언어학 부	0	1	0	2	5	2	8	8	1	6	1	0	34
	0.0%	2.9%	0.0%	5.9%	14.7%	5.9%	23.5%	23.5%	2.9%	17.6%	2.9%	0.0%	100.0%
자유 전공 학부	2	1	0	1	6	1	7	22	5	10	0	0	55
	3.6%	1.8%	0.0%	1.8%	10.9%	1.8%	12.7%	40.0%	9.1%	18.2%	0.0%	0.0%	100.0%
전체	4	49	1	32	71	26	63	163	33	110	5	4	561
	0.7%	8.7%	0.2%	5.7%	12.7%	4.6%	11.2%	29.1%	5.9%	19.6%	0.9%	0.7%	100.0%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조사는 2025년 신입생들의 개인별 특성 및 가정환경, 대학 생활 및 학업,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신건강 영역,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에 대한 의견을 수립 및 분석하여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학사 정책 수립 및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및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조사의 진행은 ① 개인별 특성 ② 가정환경 특성 ③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④ 진로 및 직업 관련 ⑤ 정신건강 영역 ⑥ 성인지 감수성 영역 ⑦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한세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생과 추후 1회 학생들에게 1회 문자 발송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 566명 중 561명이 응답하여 99.1%의 응답률을 보였다. 사용한 설문지는 2024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를 활용하여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특성

개인별 특성에 관하여 모두 5문항으로 성별, 연령, 출신 고교 소재지와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본인의 종교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신입생 전체 응답자 561명의 성별 참여율은 여학생 62.6%, 남학생 37.4%로 나타났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60.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과(59.3%), 공공서비스학부(48.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간호학과(83.3%), 자유전공학부(74.5%), 디자인학부(73.1%) 순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는 만 19세(70.6%), 만 20세(14.1%), 만 21세(6.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늦은 나이 신입생은 만 33세로 확인되었다. 개인별 특성의 특이점으로는 전년도 만 18세(45.8%), 만 19세(31.4%)의 비율을 보였다면 25년도의 경우 만 19세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이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서울 23.2%, 대전·충청 3.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변한 학생들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69.5%, 여학생이 66.7%이다. 신입생들의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는 2025년도가 67.9%로 가장 많았고, 2024년(20.3%), 2023년(7.3%) 순이었다.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신교(23.7%), 천주교(5.3%) 순이었다. 신학과는 개신교가 77.8%로 나타났다으나 다른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가정환경 특성과 관련된 사항

가정환경과 관련한 질문은 총 3문항으로 가정경제 수준, 등록금 부담 예정자, 대입학 후 주거 형태에 관해 질문하였다.

신입생들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66.1%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좋음(23.2%), 곤란(5.7%)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 예정자를 조사한 결과 부모(85.9%), 장학금(4.8%), 대출(3.7%) 순이다. 이는 전년도 부모 부담 (78.3%), 장학금(8.4%), 본인(5.4%)과 비교하면 부모 비중이 약간 상승한 반면, 장학금이나 본인 부담은 줄고 대출로 학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거 형태는 전체의 84.1%가 자택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기숙사 (8.6%), 자취(7.4%) 순이었다.

(3) 대학생활 및 학업과 관련된 사항

대학생활 및 학업과 관련한 문항은 13문항으로 대학진학 목적 및 본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 학부 선택의 요인 및 인식의 정도, 다전공의 이수용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학진학의 목적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1.3%가 전문지식 습득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이 대학생활 경험(20.1%), 유망한 직종 취업(14.8%) 순이다. 본교 선택의 이유에 대해 합격 가능성이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10.0%), 취업 가능성이(8.6%)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8.0%가 학교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21.0%), 학원(16.0%)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디자인 학부와 예술학부는 학원이 각각 58.1%, 39.1%로, 언어학부 35.3%, 신학과 33.3%, 예술학부 32.8%가 가족 지인의 권유로 본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 90.9%가 만족하고 전년도 90.7%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본교 입학에 불만족이라고 답한 하부는 자유전공학부(16.4%), IT학부(14.8%) 순이었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51명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학교가 아님(62.7%), 원하는 학과 아님(17.6%), 캠퍼스 분위기 및 시설(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원하는 학교가 아님(78.0%), 기타(9.8%), 기독교 학교(7.3%)와 달리 25년도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과 캠퍼스 분위기 및 시설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학생들이 불만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년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31.7%)에 비해 25년도는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12.3%) 보다는 반수·재수(20.0%), 편입(18.5%), 모르겠음(16.9%)이라고 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안다(31.0%), 잘 모른다(22.6%) 순이었다. 전공학부의 선택 시 결정적 요인에 무엇인지의 질문에는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32.3%), 합격할 가능성(15.7%), 취업 전망(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전공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4%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으며 30.5%가 이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다전공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내용으로는 전공선택 관련 정보제공(61.4%)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적인 진로상담(21.0%), 교수님과의 대화(9.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관련 정보에 대하여 2024년에는 47.4%에서 2025년도는 61.4%로 증가하였다.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전공지식 전달(53.3%), 인생의 멘토(14.1%), 진로지도(10.9%) 순으로 나타났다. 24년도 학생에 대한 관심이 3순위였으나 25년도 진로지도가 3순위로 나타났다. 대학에 기대하는 경험은 신입생의 40.8%가 전공 공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경험(13.7%) 취미 및 다양한 활동(12.3%)으로 사회경험의 경우 전년도 8.8%에서 13.7%로 소폭 상승하였다.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는 진로 및 취업(34.9%), 학업(28.9%), 대인관계(20.0%) 라고 응답하였다.

(4) 진로 및 직업 관련

진로 및 직업 관련 문항은 3문항으로 진로 계획, 원하는 학교 지원, 진로 결정의 어려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3.0%가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하였다. 그다음은 보통이다(28.3%), 거의 결정하지 않았다(22.3%)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40.3%)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26.9%),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취업 관련 교육(32.5%)은 다소 낮아진 반면 자기이해도움(14.2%)이 소폭 상승하였다. 졸업 후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관한 질문에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32.3%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24.4%), 자신감 및 의욕 부족(13.2%) 순으로 나타났다.

(5) 정신건강 영역

정신건강 영역에 관련된 사항은 17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항은 외로움·불안·분노·우울 및 무기력 경험 정도, 자해 충동 및 충동 원인, 자살 충동 경험 정도 및 관련 사항, 스마트폰 관련, 삶의 만족도와 기대치, 행복한 삶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6.9%가 가끔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전혀 없음(44.0%), 자주 경험(7.1%) 순으로 전년도 전혀 없음(47.0%)가 1순위였던 것과 달리 가끔 경험이 1순위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9%가 가끔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전혀 없음(41.2%), 자주 경험(10.2%)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9.2%가 가끔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 없음(41.5%), 자주 경험(7.7%)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9%가 전혀 없음으로 43.5%가 가끔 경험, 7.3%가 자주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4.3%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가끔 경험(3.0%), 자주 경험(1.6%) 순이다. 또한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5.5%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3.2%), 자주 경험(0.9%), 거의 항상 경험(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가끔 경험(2.3%), 자주 경험(0.5%), 거의 항상 경험(0.0%)과 비교하여 인원수로 보면 전년도 12명, 25년도 25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신입생 중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는 25명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28.0%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하였고, 이어서 정신건강 문제(16.0%)와 학업 문제(12.0%) 응답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25.0%가 가족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교하면 25년도는 가족문제는 8.0%로 낮아졌다. 또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을 보면 잠(28.0%),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28.0%)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자살관련자료검색(24.0%) 순이다.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에 관한 질문에 32.0%가 구체적인 방법 생각이라고 응답하였고, 해당 없음(20.0%), 아무일도 안하고 무위도식(16.0%)순이다. 전년도 구체적인 방법 생각(16.7%)과 비교하면 다소 상승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한지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그렇다(36.8%) 매우 그렇다(6.8%) 순이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3~5시간(33.7%)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7시간(32.8%), 7시간 이상(19.6%)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주로 여가(59.2%)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커뮤니케이션(32.3%), 정보검색 및 활용(6.2%)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4.7%가 만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통(41.2%), 매우 만족(8.9%) 순이다. 신입생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한 결과, 보통(47.6%)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서 높음(34.6%), 매우 높음(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한 삶의 기준에 관한 질문에 30.5%가 마음의 평화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경제적 여유(28.5%), 나의

꿈 성취(16.4%) 순으로 나타났다.

(6) 성인지 감수성 영역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문항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입생들의 29.6%가 잘 안다고 하였고,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29.2%), 보통(21.2%)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조사한 결과, 57.4%가 잘 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30.9%), 보통(9.4%)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83.1%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고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13.7%),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2.3%) 순이다.

이런 경험의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39.0%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잘 모른 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25.7%),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7.8%) 순으로 나왔다.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연애 방법(24.1%)과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피임(15.3%), 남녀성평등 태도(14.1%) 순이다.

(7)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4문항으로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의 83.4%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상담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에도 78.1%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56.7%가 개인 심리상담을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진로상담(22.8%), 심리검사(17.5%) 순이었다. 심리검사의 경우 전년도 11.7%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또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싶은 문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29.1%가 진로를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업(19.6%), 심리검사해석(12.7%) 순이다.

2) 결론

2025년 신입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학부별 결과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신학과는 전체 27명이 설문조사에 참석하였다. 신학과의 성비는 남자 59.3%, 여자 40.7%로 나타났으며, 신학과에 만학도가 1명 존재한다. 신학과의 경우 개신교(77.8%)가 아닌 학생이 전체의 22.2%(6명)을 차지하였고 이는 본교 입학 불만족에서 향후 계획으로 전과 66.7%, 복수전공 33.3%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

가정환경의 특성에서 가정경제 수준에 대하여 타 학부에 비해 매우 좋음은 없고 매우 곤란, 곤란이 11.1%를 차지했다.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25.9%이며 그중 장학금으로 부담한다는 학생이 14.8%에 해당했다. 입학 후 주거 형태로 기숙사나 자취의 비율이 23.1%이며, 본교 선택 이유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의 추천이 22.2%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가족 지인의 평균 15.5%에 비해 33.3%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29.6%(평균 2.0%)가 응답하였고, 정신건강 영역에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55.5%(평균 45.1%)가 응답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평균 30.5%에 비해 40.7%가 마음의 평화라고 답하였다.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으로 연애방법은 40.7%(평균 24.1%), 동성애는 11.1%(평균 3.0%)가 응답하였다.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영역에서 심리상담가에게 도움 요청할 의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률이 25.9%로 전체 평균 16.6%에 비해 높게 나왔으나 정작 상담 받고 싶은 문제로는 검사해석 22.2%(평균 12.7%), 자신의 성격 11.1%(평균 5.7%)가 응답하였다. 29.1%

둘째, 사회과학부는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의 3개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총 117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여자가 64.1%, 남자가 35.9%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특성에서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은 7.8%에 해당했다. 본교 입학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8.5%(10명)를 차지하였고 이들은 원하는 학교가 아니더라고 90%가 응답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과(10.0%) 반수·재수(30.0%), 편입(20.0%), 모르겠다(20.0%)라고 응답하였다.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으로 전공 공부라는 응답(27.4%)이 가장 높았으며 21.4%(평균 13.7%)가 사회경험이라고 응답하여 타 학부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자해 충동의 원인으로 정신건강 문제(80.0%)와 진로문제(20.0%)라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마음의 평화(29.1%)와 경제적 여유(28.2%)라고 답하였다.

셋째, IT학부는 컴퓨터공학과와 융합보안학과로 구성되었고, 총 81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다. 성비를 보면 남학생 60.5%, 여학생 39.5%로 나타났고, 가정환경 특성에서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9.9%에 해당했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학교라는 응답이 평균 28.0%에 비해 49.4%로 높게 나타났고 대학 진학 정보지라는 응답 또한 평균 13.4%에 비해 21.0%로 높게 나타났다. 본교 입학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라고 말한 비율이 평균(9.1%)에 비해 높은 14.8%(12명)를 차지하였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한다는 8.3%(평균 15.7%)로 낮았으며 복수전공(8.3%), 휴학(8.3%), 반수 재수(25.0%), 편입(33.3%), 모르겠다(16.7%)라고 응답했다.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지원으로 전공선택 관련 정보 제공이 31.8%로 평균(61.4%)보다 낮았으며, 타 학과에 비해 전문가와의 대화가 18.2%(평균 6.4%)로 자신의 전공선택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대화를 요청하였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최근 3개월 내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에 대하여 자주경험과 거의 항상 경험이 평균 9.1%에 비해 IT학부의 경우 17.3%로 다소 높았고, 불안에 대한 경험도 자주 경험과 거의 항상 경험 평균 13.9%에 비해 19.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노 경험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자주 경험과 거의 항상 경험이 평균 9.3%에 비해 19.7%으로,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서도 자주 경험과 거의 항상 경험이 평균 11.6%에 비해 17.3%로 나타났다. 이는 타 학부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자해 충동에 대하여도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이 6.2%(평균 1.7%)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서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평균 5.1%에 비해 11.1%로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평균 28.5%에 비해 42.0%가 경제적 여유라고 답하였다.

넷째, 공공서비스학부는 경찰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로 구성되었으며, 총 54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다. 성비로는 여학생이 51.9%, 남학생이 48.1%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특성에서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9.3%에 해당했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인터넷 검색이라는 응답이 평균 21.0%에 비해 37.0%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이 40.7%(평균 40.3%)로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타 학부에 비해 진로 관련 자기이해 도움(적성, 흥미 등)이 24.1%로 평균 16.6%보다 높았고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또한 평균(5.9%)에 비해 14.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13.0%(평균 6.6%)가 응답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서도 매우 만족과 만족의 평균 53.6%에 비해 64.9%로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여유가 27.8%라고 응답하였는데 타 학부와 달리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25.9%(평균

16.4%)가 답하였다.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응답은 연애방법 (25.9%), 남녀 성평등 태도와 임신과 출산(각각 16.7%)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학과는 전체 36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다. 설문결과 여학생이 83.3%, 남학생이 16.7%로 나타났으며 연령분포에서 만 19세 학생이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가정환경 특성에서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16.7%에 해당했다. 본교 선택 이유에 대하여 취업 가능성이라는 응답은 평균 8.6%에 비해 16.7%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대학 진학 정보지라는 평균 13.4%에 비해 22.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품위있는 태도이라고 11.1%(평균 6.4%)가 응답하였고,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학업이라고 52.8%(평균 28.9%)가 응답하였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자해 충동에 대하여도 거의 항상 경험이 5.6%(평균 1.1%)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41.7%(평균 30.5%)가 마음의 평화라고 답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36.1%(평균 28.5%)로 나타났다.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영역에서 심리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88.9%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상담센터 이용할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78.1%에 비해 91.7%로 높게 나타났다. 상담받고 싶은 문제로는 학업이라고 25.0%(평균 19.6%)가 응답하였고, 검사해석은 19.4%(평균 12.7%)가 응답하였다.

여섯째, 예술학부는 음악학과와 공연예술학과로 64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다. 성비로는 여학생이 65.6%, 남학생이 34.4%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특성에서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15.6%에 해당했다. 입학 후 주거 형태로 기숙사나 자취의 비율이 35.9%로 타 학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 인천, 경기 출신 외 타지역 출신 학생의 비율이 평균 9.1%에 비해 예술학부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출신 외 타지역 출신 학생이 23.0%를 차지한 결과와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교 선택 이유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의 추천이 23.4%이며 유능한 교수진이 18.8%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학교 평균 28.0%에 비해 예술학부의 경우 12.5%로 낮은 반면 학원이라는 응답의 평균(16.0%)과 가족, 지인이라는 응답의 평균(15.5%)에 비해 각각 39.1%, 32.8%로 높게 나타났다. 타 학부에 비해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으로 어릴 적 희망에 대하여 21.9%(평균 7.8%)가 자신의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지원으로 예술학부는 전공선택 관련 정보제공을 50.0%로 평균(61.4%)보다 다소 낮았지만, 타 학과에 비해 교수님과의 대화가 28.6%(평균 9.4%)로 교수님과의 대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인생의 멘토라고 25.0%(평균 14.1%)가 응답하였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신감 부족 및 의욕 부족이라고 28.1%(평균 13.2%)

가 응답하였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56.3%(평균 45.1%)가 응답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평균 11.4%에 비해 20.3%가 나의 꿈 성취라고 답하였다.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영역에서 심리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89.1%가 예라고 답하였으나 상담센터 이용할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78.1%에 비해 75.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디자인학부는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 구성되었고 총 9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 결과 성비를 보면 73.1%가 여학생이고 26.9%가 남학생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특성에서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10.8%에 해당했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학교라는 응답 평균 28.0%에 비해 디자인학부의 경우 3.2%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 반면 학원이라는 응답 평균 16.0%에 비해 58.1%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진로지도라고 19.4%(평균 10.9%)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공 교수진의 진로지도를 받고자 하는 요구도가 타 학부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자해충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전체 디자인학부 학생의 3.3%) 중 자해 충동의 원인으로 학업문제가 66.7%,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33.3%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학생의 삶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질문에는 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56.3%(평균 45.1%)가 응답하였다.

여덟째, 언어학부는 영어학과와 중국어학과로 전체 34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다. 성비를 보면 여학생이 70.6%, 남학생이 29.4%로 나타났고, 가정환경의 특성에서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하여 타 학부에 비해 매우 좋음은 없고 곤란이 11.8%를 차지했다. 등록금 부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20.5%에 해당했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가족, 지인이라는 응답 평균 15.5%에 비해 언어학부의 경우 35.3%로 나타났다.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지원으로 언어학부는 전공선택 관련 정보 제공을 75.0%로 평균 61.4%보다 높았으며, 타 학과에 비해 교수님과의 대화가 25.0%(평균 9.4%)로 교수님과의 대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학생에 대한 관심이라고 29.6%(평균 9.4%)가 응답하였고,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으로 전공공부 44.1%, 그 다음으로 타 학부에 비해 폭넓은 인간관계라고 20.6%(평균 10.9%)가 응답하였다.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으로 피임은 26.5%(평균 15.3%), 성폭력 예방이 20.6%(평균 12.7%)라고 응답하였다. 상담받고 싶은 문제로는 정신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평균 1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자유전공학부는 총 55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는데 설문결과 여학생이 74.5%, 남학생이 25.5%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특성에서 가정경제 수준에 대하여 타 학부에 비해 매우 좋음은 없고 매우 곤란, 곤란이 9.1%를 차지했다. 등록금 부

담 예정자로 부모나 인척 형제가 아닌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의 비율이 10.8%에 해당했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학교라는 응답 평균 28.0%에 비해 예술학부의 경우 40.0%, 대학 진학 정보지라는 응답 평균 13.4%에 비해 20.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타 학부에 비해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의 정도(평균; 전혀 모른다 2.5%, 잘 모른다 22.6%)에서 전혀 모른다(9.1%), 잘 모른다(32.7%)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과의 특성으로 보인다.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지원으로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선택 관련 정보제공을 63.3%로 평균(61.4%)과 비슷하였지만, 타 학과에 비해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30.0%(평균 21.0%)로 자신의 전공선택 과정에서 진로정보와 진로상담을 요청하였다.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학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18.2%(평균 28.9%)로 비교적 낮았으나 진로 및 취업이라는 응답에는 56.4%(평균 34.9%)가 응답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서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평균 5.1%에 비해 10.9%로 다소 높게 응답하였고, 삶에 대한 기대치에 대하여서도 불만족과 불만족의 평균 7.3%에 비해 12.8%로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영역에서 심리상담가에게 도움 요청할 의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률이 21.8%로 전체 평균 1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으나, 상담받고 싶은 문제로는 진로라고 40.0%(평균 29.1%)가 응답하였다.

V. 제언

본 조사는 본교 신입생들의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들을 학생 정책의 수립 및 학생 지도라는 차원에서 간단히 고찰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개인별 특성에서 만 19세 학생이 70% 이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학생의 연령이 집중되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학생이 전체의 9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학부 내에서 편중된 연령 및 지역의 구성으로 인하여 이에 속하지 않는 소수 학생들의 학부 내 소외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 간의 협력 및 소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정환경 특성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가정경제 수준이 보통이 대다수 차지하였으며 좋음, 매우 좋은 비율까지 합하면 93.6%의 경제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등록금 부담 예정자가 전년도와 비교하면 장학금이나 본인 부담은 줄고 대출로 학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는 장학 정책의 확대 및 다양한 대출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다.

셋째,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하여 전문지식습득이 목적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1.3%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경험이 20.1%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문지식습득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나타내며 이런 면에서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강사진과 대학생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교 선택 이유는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가 대체로 출신 학교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지인(신학과, 예술학부), 인터넷 검색(공공서비스학부), 학원(디자인학부, 예술학부), 대학진학정보지(IT학부, 자유전공학부)로 학부별로 진학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고 있었다. 다만 본교 공식 SNS는 0%로 학교에서는 학부별 진학 정보 제공에 대한 다양화 및 본교 공식 SNS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세대학교의 현행 입시 홍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입생의 대부분은 본교입학에 만족한다(90.9%)고 하였으나 불만족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학교나 학과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만족 시 향후 계획으로 재수 반수가 25.5%, 편입 23.5%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교 이탈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에 대해 대체로 보통이다(37.3%)라고 응답하였는데 자신의 전공학부의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21.4%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각 학부에서 전공학부의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생활에 기대하는 경험으로 전공공부 외로 사회 경험이라 답하였는데 전년도와 달리 사회 경험은 소폭 상승

(8.8%에서 13.7%) 하였다. 또한 대학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진로 및 취업, 학업, 대인관계라고 응답하였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학교 동아리, 학생회, 국가근로제, TS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 및 대인관계의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25년 처음 시행하는 자유전공학부의 학생의 56.4%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자유전공학부는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 및 취업 관련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으로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 취업 관련교육, 진로관련 자기이해 도움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취업 관련 교육(32.5%)은 다소 낮아진 반면, 자기이해 도움(14.2%)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진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32.3%)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24.4%), 자신감 및 의욕 부족(13.2%)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과 진로에 관한 특강 및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며 더불어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섯째,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외로움, 우울, 무기력, 불안 등 경험 정도의 전혀 없음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경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신입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자해 충동(24년 자주 경험 0.7%, 거의 항상경험 0.0%에서 25년도 자주 경험 1.6%, 거의 항상 경험 0.2% 상승) 및 자살 충동의 경험(24년도 있음 2.8%에서 25년도 있음 4.5% 상승)이 상승하였고, 자해 충동의 원인으로 25%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년도 5.6%에서 25.0%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자살 생각의 이유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이 28.0%, 정신건강 문제가 16.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병원 진료 여부, 약물복용 여부, 약물복용 기간, 약물 종류, 등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조사 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학교 내 상담센터를 통한 위기 개입 및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며 지역 및 가족 내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인지 감수성 영역에서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가 여학생(22.8%)보다 남학생(7.1%)의 경험 정도가 낮았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에서 남학생이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성별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대처 방법에 대해 여학생의 44.2%가 남학생의 30.5%가 구체적

인 방법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에서 신입생의 83.4%가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상담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78.1%가 이용의사를 밝혔다.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로 개인 심리상담이라고 56.7%가 응답하였고 상담받고 싶은 문제로 심리검사 해석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위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의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VI. 참고문헌

- 공선표 (2000). 2000 년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 전망/4 고용부문; 경기회복세 타고 노동시장 회복될 전망. **월간 경영계**, 260, 44-47.
- 김상표 (2006).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중소기업의 성과 사이의 관계. **인적자원관리연구**, 13(4), 15-36.
- 배종석, 사정혜. (2003).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11(2), 133-169.
- 서인덕, 이승환. (2009). 대학조직에서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HRM) 실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학습지향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6(2), 69-90.
- Barney, J.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Delaney, J. T., & Huselid, M. A. (1996).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4), 949-969.
- Ichniowski, C., Shaw, K., & Prennushi, G. (1994).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n productivity. Columbia Business School.
- MacDuffie, J. P. (1995). Human resource bundles and manufacturing performance: Organizational logic and flexible production systems in the world auto industry. *ilr Review*, 48(2), 197-221.
- Tsogtsaikhan Bayarnemek (2022). 대학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대학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행동의 조절효과 분석: 몽골의 국립 대학교와 사립대학교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록

2025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한 세 대 학 교 상 담 센 터

이 설문지는 한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익명)되오니,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별 특성

1. 학부

- ① 신학
- ② 사회과학부 (미디어영상광고, 경영, 관광경영)
- ③ 공공서비스학부 (경찰행정, 사회복지)
- ④ 언어학부 (영어, 중국어)
- ⑤ IT학부 (컴퓨터공학, 융합보안)
- ⑥ 간호
- ⑦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섬유패션디자인)
- ⑧ 예술학부 (음악, 공연예술)
- ⑨ 자유전공학부

2. 성별 : ① 남 ② 여

3. 생년월일 6자리 (예시: 060305): _____

4. 출신 고교 소재지

- ① 서울 ② 경기 · 인천 ③ 강원도
④ 대전 · 충청도 ⑤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도
⑥ 광주 · 전라도 ⑦ 제주도 ⑧ 국외
⑨ 기타

5. 고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연도

- ① 2025년 ② 2024년
③ 2023년 ④ 2022년 이전

6. 본인의 종교

-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 가정환경 특성

7. 가정 경제 수준

- ① 매우 곤란 ② 곤란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8. 등록금 부담 예정자

-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④ 형제·자매 ⑤ 본인 ⑥ 대출
⑦ 장학금 ⑧ 기타

9.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 ① 자택 ② 친척 집 ③ 기숙사
④ 자취 ⑤ 하숙 ⑥ 기타

◆ 대학생활 및 학업 관련

10. 대학 진학의 목적

- ① 전문지식 습득 ② 사회적 지위 확보
③ 유망한 직종 취업 ④ 적성과 소질개발
⑤ 부모 권유 ⑥ 타인들도 진학하기에
⑦ 대학생활 경험 ⑧ 국가, 사회봉사
⑨ 기타

11. 본교 선택 이유

- ① 합격 가능성 ② 경제 사정
③ 주위 사람들의 추천 ④ 취업 가능성
⑤ 대학의 발전 가능성 ⑥ 유능한 교수진
⑦ 학구적 분위기 ⑧ 기타

20. 교수님들에게 기대하는 것

- ① 전공지식 전달 ② 진로 지도
- ③ 품위 있는 태도 ④ 깊이 있는 연구
- ⑤ 인생의 멘토 ⑥ 학생에 관한 관심
- ⑦ 모범적인 신앙인 ⑧ 기타

21. 대학생활에서 기대하는 경험

- ① 전공 공부 ② 자격증 취득
- ③ 취업 준비 ④ 교양 함양
- ⑤ 동아리 활동 ⑥ 취미 및 다양한 활동
- ⑦ 사회봉사 ⑧ 사회 경험
- ⑨ 폭넓은 인간관계 ⑩ 이성 교제

22. 대학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는 것

- ① 학업 ② 진로 및 취업 ③ 대인관계
- ④ 경제력 ⑤ 성격 ⑥ 병역
- ⑦ 기타

◆ 진로 및 직업 관련

23. 대학 졸업 후 하고 싶은 진로 분야가 정해져 있는지

- ①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 ② 거의 결정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결정했다
- ⑤ 확고하게 결정했다

24. 취업 관련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

- ①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
- ②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 (적성, 흥미 등)
- ③ 취업 관련 교육 (영어, 컴퓨터 강좌, 면접 교육 등)
- ④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 ⑤ 시설 확충 (도서관, 영어·컴퓨터 실습 시설 등)

25.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 ①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② 전공이 취업에 부적응
- ③ 외국어 능력이 부족
- ④ 경제적 어려움
- 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 ⑥ 자신감 및 의욕 부족
- ⑦ 우유부단한 성격
- ⑧ 학교 인지도 낮음

◆ 정신건강 영역

26. 최근 3개월 간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27. 최근 3개월 간 불안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28. 최근 3개월 간 분노를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29. 최근 3개월 간 우울/ 무기력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0. 최근 3개월 간 자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32번으로)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1. 자해 충동을 불러일으킨 원인

- ① 성격 문제 ② 가족 문제
③ 대인관계 ④ 이성 관계
⑤ 학업 문제 ⑥ 진로 문제
⑦ 경제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⑩ 기타

32. 최근 3개월 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36번으로)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3. 자살 생각을 하는 이유

- ① 성격 문제 ② 가족 문제
③ 대인관계 ④ 이성 관계
⑤ 학업 문제 ⑥ 진로 문제
⑦ 경제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⑩ 기타

39. 현재 삶의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0.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41.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 여유 ② 안정적 가정
③ 마음의 평화 ④ 하고 싶은 일
⑤ 나의 꿈 성취 ⑥ 기타

◆ 성인지 감수성

42.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조금 안다 ⑤ 잘 안다

43.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조금 안다 ⑤ 잘 안다

44. 과거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③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④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45.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③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
④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46. 성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 ① 연애방법 ② 성관계 ③ 임신과 출산

- ④ 성병예방 ⑤ 피임 ⑥ 성폭력 예방
⑦ 남녀성평등태도 ⑧ 성욕해소법 ⑨ 성매매
⑩ 인공임신중절 ⑪ 동성애

◆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47.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8.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 해결과 성장을 위해 교내 상담센터를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9.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 ① 개인 심리상담 ② 집단상담
③ 진로상담 ④ 심리검사
⑤ 정신건강 관련 특강 ⑥ 기타

50.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싶은 문제

- ① 학업 ② 진로 ③ 대인관계
④ 학교적응 ⑤ 심리검사 해석 ⑥ 성격
⑦ 정신건강 ⑧ 가족 ⑨ 성, 이성
⑩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상담센터 주요 활동 보고

학생처 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자기이해와 진로, 가정 및 대인관계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위한 인턴십 과정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위기 학생 대응 관련하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연계 활동으로 군포·의왕 교육청 지원 청소년 상담, 가까운 지역의 의왕시청과 MOU를 체결하여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그리고 교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1) 재학생 상담

(1) 개인상담

대학생활 중 겪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갈등, 정서 및 성격상의 문제, 신앙 및 가정의 위기, 진로 선택,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2) 집단상담 및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문상담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집단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나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등을 증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MBTI, TCI, 에니어그램, 표준성격진단검사, 방어기제검사)와 적성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적성진단검사)가 있고, 기타 검사들로는 MMPI-2와 K-WAIS, 대학생 간이정신진단검사 등이 있다.

(4) 자살 예방 교육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및 생명존중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의 증진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 지역 연계 상담

(1) 군포·의왕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 상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및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에 의거하여 군포·의왕 지역의 초·중·고 학생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2) 기타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타기관(의왕시청 공무원 대상, 서울분류심사원, 고봉 중·고등학교, 수원보호관찰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황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군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상담실 이용 안내

(1) 이용시간

- 주간 : 월~금 (09:00 ~ 17:00) / 야간 : 월~수 (17:00 ~ 21:00)

(2) 이용절차

- 심리검사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한 주 후에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면접 후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예약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매 학기 집단상담이 개설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3) 이용문의

- 031) 450-5173, 5056 / 한세대학교 대학원관 1층 상담센터

3. 주요 활동 결과

1) 재학생 월별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건수 (2024~2025학년도)

학년도	월	심리검사 건	개인상담 건	비 고
2024	3	42	64	
	4	32	175	
	5	56	220	
	6	25	155	
	7	9	64	
	8	7	52	
	9	28	86	
	10	37	161	
	11	92	304	
	12	11	84	
	1	3	42	
	2	—	95	
	합 계	342	1,502	
2025	3	134	156	2025년 11월 기준
	4	142	217	
	5	77	303	
	6	29	293	
	7	35	161	
	8	9	88	
	9	81	169	
	10	64	170	
	11	103	345	
	합 계	674	1,902	

2) 재학생 심리검사 종류별 실시 및 해석 건수 (2024~2025학년도)

학년도	간이 정신진단	MBTI	TCI	PHQ	GAD	홀랜드	이화 방어 기제	MMPI -2	SCT
2024	185	12	69	147	147	9	41	81	28
2025	602	32	29	672	672	16	42	100	128

3) 재학생 학부별 상담 건수 (2024~2025학년도)

학년도	신학부	인문사회 과학부	IT학부	간호복지 학부	디자인 학부	예술학부	합 계
2024	233	430	124	201	147	146	1,281

학년도	신학부	사회 과학부	공공 서비스 학부	언어 학부	IT학부	간호 학부	디자인 학부	예술 학부	자유 전공 학부	합 계
2025	220	296	323	76	125	67	148	295	61	1,611

4) 교육청 상담 건수 (2024~2025학년도)

학년도	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비 고
2024	3	1	5	1	9	
	4	-	-	-	-	
	5	-	-	-	-	
	6	-	5	-	5	
	7	-	6	1	6	
	8	-	6	1	-	
	9	-	1	-	1	
	10	-	8	-	1	
	11	-	-	-	-	
	12	-	-	-	-	
	1	-	-	-	-	
	2	-	-	-	-	
	합 계	1	31	3	22	
2025	3	-	5	4	8	2025년 11월 기준
	4	1	5	4	11	
	5	-	3	-	-	
	6	-	3	8	3	
	7	-	6	1	10	
	8	-	-	-	-	
	9	-	4	1	4	
	10	-	2	-	-	
	11	-	-	-	-	
	합 계	1	22	17	32	

5) 1:1 진로상담 운영 결과 (2025학년도)

구분	일정	대상자(명)	참여자(명)	참여율(%)	만족도(점)
2025-1학기	7주	324	258	79.62	4.83
2025-2학기	6주	276	247	89.49	4.70
합 계		600	505	84.55	4.77

6) 집단 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2025학년도)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참여자	만족도
2025 -1학기	또래상담	학교 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 발굴	10	4.8
	마음소풍	스트레스 상황 대처 능력 제고	18	4.73
	진로	직업흥미 이해를 통한 진로 의사결정 능력 향상	5	5
	매체활용 집단상담	자기이해 증진 및 강점 찾기	10	4.86
	영화 심리치료	영화 감상과 나눔을 통한 치유와 자아 성장	26	4.69
합 계			69	4.82
2025 -2학기	또래상담	학교 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 발굴	8	4.73
	진로(일반)	직업흥미 이해를 통한 진로 의사결정 능력 향상	8	4.72
	진로(광역)		3	4.80
	마음소풍	스트레스 상황 대처 능력 제고	6	4.76
	발표불안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대처 행동 훈련	3	4.66
	영화 심리치료	영화 감상과 나눔을 통한 치유와 자아 성장	18	4.54
합 계			46	4.7

학생생활연구 논문 투고 규정

2023. 02. 28. 개정

본 학회지는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로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제21권부터 『학생생활연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연구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 결과를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일반 규정

- 1)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학생생활 분야, 상담학 분야의 주제를 다룬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 자료(연구용 및 상담학사 관계) 및 논설이며, '학생생활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것이어야 한다.
- 2)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이상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투고,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 편집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출판 후 독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다른 저자나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교신이 진행될 경우의 혼란으로 인하여 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원고 편집과 분량은 본 학회지의 편집양식에 따라 15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페이지당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단, 페이지 초과 시 규정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5) 모든 연구 논문은 1페이지 이내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포함해야 하고 국문, 영문초록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 6) 게재희망자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을 통하여 제출하며, 학생생활연구의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7) 게재신청서 작성
 - 게재신청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자: 논문 신청, 수정, 게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국과 연락을 취할 자

- 교신저자: 다른 연구자들과 게재된 논문에 관련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
- 연구자: 논문 작성에 참여한 자. (작성 순서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록)

2. 원고작성 규정

- 1) 원고는 반드시 아래아한글(HWP)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원고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3) 논문의 영문 제목은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제목을 명사, 대명사, 형용사는 첫머리를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키워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 4) 논문의 구성
 - ① 국문 제목
 - ② 투고자 성명 및 소속 (한글)
 - ③ 국문 초록
 - ④ 주요어
 - ⑤ 본문 (예: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논의)
 - ⑥ 참고문헌
 - ⑦ Abstract

※ 단, 질적연구에서는 ⑤ 본문 (예,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론 및 논의)로 형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5)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은 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바와 동일하게 공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초중등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6)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7)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으로 일련번호에 따라 표기한다.

I → 1 → 1) → (1) → ① ……

8) 원고작성 기준

① 다단: 2단

② 편집 용지 : A4 규격, 세로 용지

③ 용지여백 : 위쪽 35mm, 아래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머리말 12mm,

꼬리말 13mm

④ 문단 모양 :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서체	크기	정렬	첫줄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신명조	16p/ 진하게	가운데	
투고자 성명 및 소속 (국문/ 영문)	중고딕	10p/ 진하게	가운데	
초록 내용 (국문/영문)	신명조	9p	양쪽	들여쓰기: -10
주요어 (국문)	중고딕	8p/ 진하게	왼쪽	
본문	신명조	10p	양쪽	들여쓰기: -10
I. 제목	신명조	12p/ 진하게	가운데	
1. 제목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1) 제목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들여쓰기: -10
표 제목	중고딕	10p	가운데	
표 내용	신명조	10p	가운데	
그림 제목	중고딕	10p	가운데	
그림내용	신명조	10p	양쪽 또는 가운데	
참고문헌	신명조	10p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p	양쪽	내어쓰기: -30
Abstract	중고딕	12p/ 진하게	양쪽	
주요어 (영문: 기울임)	중고딕	8p/ 진하게	왼쪽	

9) 표 및 그림 작성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동일하게 작성한다.
- 표와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할 경우나 표와 그림에서 작성 시 <표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선도 사용할 수 있다.

10) 참고문헌

출판지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 (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 #### 12)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분은 위의 원고작성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시고 [작성자_논문 예시]를 참조한다. 양식에 맞지 않은 원고나 수정 요청받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3) 기존 논문 참고자료: <https://www.hansei.ac.kr/counselling/2024/subview.do>

3. 투고 규정

1)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투고 심사과정 중이거나, 심사 완료되어 논문이 정식 게재된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편집 담당자 메일로 접수한다. 본 학회지는 원고 마감일은 9월 30일, 발간은 11월 30일에 한다.

2) 논문 심사료

논문 투고자는 편당 90,000원의 논문 심사료를 부과한다. 기한 내 투고를 원칙으로 하고 기한 이후 투고 시 긴급 투고로 간주하여 150,000원을 부과한다.

3) 논문 게재료

논문의 분량은 기본 15페이지 이내, 15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15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당 10,000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논문 제출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세대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밟는다.

(T. 031-450-5173)

5)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10부에 한하여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초과분의 별쇄본은 저자의 사전 요청과 부담에 따라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4. 논문심사 규정

1) 논문 선정의 원칙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 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방법 및 절차

- 편집위원회는 먼저 심사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다.
-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종합판정을 내린다.
-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수정 후 게재가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 요구 수정지시 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최종결정
수정 후 재심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게재 불가	논문 게재 불가. 불가 이유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저자에게 통보

-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 확정 전까지 수정의 충실도와 수정된 논문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추가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을 확인 후에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